



1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1호

(루게 543)



## ◆◆◆◆◆◆◆◆◆◆ 차 례 ◆◆◆◆◆◆◆◆◆◆

축원의 꽃바구니 .....	4
설날의 첫 축배를 .....	5
아버이 그 부름에 .....	6
송엄한 연단을 우러러 .....	7
위대한 그 축복속에 .....	7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	8
그 영상 우러르며 .....	8
느티나무에 박힌 화살 .....	9
인민 .....	12
우러르는 마음속에 .....	13
력사의 땅 강계에서 .....	14
과학자의 한생 .....	16
명언해설 .....	17
우가촌의 별이야기 .....	18
백두겨울의 서정 .....	21
붓을 들어 노래하노라 위대한 우리 당을 .....	22
《사령관동지 !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	23
현실체험이 낳은 열매 .....	24
명제해설 .....	26
첫눈 .....	27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고 .....	28
거대한 날개 .....	34
알찬 열매로 .....	43
단편소설창작에 더 큰 힘을 ! .....	43
당의 문예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는 투사가 되겠다 .....	44
문학으로 전사의 본분을 다하렵니다 .....	44
압록강반의 서정 (외 1 편) .....	45
그 풍요한 흐름은 .....	46
시인 김람인과 그의 창작 .....	47
이 땅은 영웅이 많은 나라 .....	53
청년시절을 값있게 살자 .....	54
이것을 자랑하고싶다 .....	56
새 세대들의 모습 .....	57
실습보고서 .....	58
다시 만나자 .....	66
고향의 모습에서 .....	67
증오의 공간 .....	68
어서 오세요 .....	69
그 마음 안고가리 .....	78
동방조선의 금강산 .....	79
기 다 름 .....	80

# 축원의 꽃바구니

전병구

봄날처럼  
젊음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들이  
한겨울에도 피운 꽃입니다

한송이  
또 한송이  
바구니에 정히 담으면  
꽃도 축원의 향기를 풍기는듯  
가슴도 부풀어오르는 새해

효도 지극하면  
얼음산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전설의 그 이야기처럼  
여름도 한철에 피는 꽃  
이 겨울에 피워올린 인민의 효성 !

꽃바구니로 엮어 드리웁니다  
한평생을 바치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신  
아버이수령님께  
삼가 축원의 꽃바구니를 드리웁니다

백두의 길을 걸으시면  
항일전의 추억을 안고  
그 품에 한아름 안기었던  
백두산의 꽃,

북변의 철의 지구를 이으시여  
대농의 해 새 종자를 얻어낸  
한 연구사를 만나시여  
이슬길을 걸으시던 그 길에 반겨웃던  
백일홍, 들국화도  
새해의 첫아침  
수령님품에 안기는 기쁨을 속삭입니다

단 하루도  
인민을 떠나계신적 없는  
우리 수령님  
열파처럼 밀려드는  
제국주의책동을 물리치시며  
사회주의 내 조국을 빛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새해도 이 아침  
그 언제나  
그 어디서나  
우리러 따르는 그 마음들이  
해바라기꽃으로 피여  
바구니에 넘치웁니다

우리 수령님  
통일된 이 강산  
목란꽃향기속에 길이 모실  
그 마음을 담아  
축원의 꽃바구니를 드리웁니다  
수령님의 만수무강 삼가 축원합니다

# 설날의 첫 축배를

안정기

다정한 벗들이여  
잔 가득 술을 붓자  
추억으로 뜨겁고 희망으로 새로운 설날의 이 아침

우리 서로 할 말은  
잠시 뒤에 미루고  
다같이 정결한 마음의 술을 붓자  
걸어갈 새해를 환히 열어주신  
친애하는 그이께 첫잔을 드리자

기쁜 날 힘겨운 날  
그이의 사랑 가슴에 닿아있어  
환희는 활짝 나래퍼고  
위훈은 하냥 빛나지 않았더냐

역풍 몰아치는 분분한 세월에  
그이의 손길 굳게 잡고있어  
우리의 속대는 든든하고  
우리의 걸음은 힘차지 않았더냐

잔을 들자 높이높이  
즐거운 설날에도 일손을 못놓으시는  
그이를 우리러 감사의 잔을 들자  
예가 비록 연회장은 아니어도  
한가닥 우리 단심이야  
그 누구에게 뒤질수 있으랴

우리의 소박한 이 진정을  
너그러이 받아주시는듯  
웃으시는 그 미소의 해살을 따라가면  
벗들이여 못잊을 지난해가 다 보이리라

안아올린 살림집 5 만세대우에  
다시 3 만세대를 올려놓으시며  
우리 인민의 행복이 하늘에 닿는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애로운 그 모습

걷고 걸으시는 사랑의 길에

달려오며 절을 하는 금나락을  
한가슴에 안아주시는 따사로운 그 품  
아득히 솟아오른 석탄산에서  
주체공업의 래일을 가늠하시는 예지의 그 눈빛

정녕 보이나니  
만세의 우뢰를 터치는 열병대오를 향해  
답례를 보내시는 최고사령관 그이의 손길이  
일심단결 인민의 대하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빛나시는 그이의 안광이...

벗들이여 삼가 경모의 첫잔을 드리자  
그이를 따라 또 한해  
영광의 큰결을 내디딜 우리 아니냐

마음의 신들메를 다시 조이고  
새해엔 더 높이 날아오르자  
그이의 결심이 우리 투쟁의 목표이고  
그이의 기쁨이 우리 행복의 절정이거니

석탄의 폭포를 쏟아  
나라에 힘과 빛과 열을 더 보내고  
비료의 산악을 쌓아올려  
만풍의 들판에서 흐뭇이 웃어보자  
타오르는 쇠물의 노을속에  
렬차의 기적소리 세차게 울리며  
아름다운 미래로 달음쳐가자

주체의 사회주의 높은 봉을 치달으며  
《팀 스피리트》의 광증을 짓부시며  
통일의 새날을 당겨올 우리  
이 아침 아뢰이자 심장에 불타는 소원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여  
우리 맹세의 첫잔을  
우리 충효의 축배를  
온 나라 인민의 념원을 담아 삼가 드리나니  
부디 천세만세 무강하시라

# 아버이 그 부름에

김재원

그 어떤 간곡한 당부가 있어  
그 무슨 절박한 사연이 있어  
아버이가 자식을 부르듯  
그렇게 우리를 불러줍니까 수령님

울렁이는 가슴 진정하며  
마음 경건히 우러르니  
아 후두둑 심장의 벽을 치는  
위대한 아버이의 호소여

두줄기 궤도를 달리는 기관사며  
막장의 탄부며 비료공장익 로동계급들  
온 나라 인민들을 다정히 부르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 잘 꽃피우자고  
아버이수령님 뜨거이 하시는  
신년사의 구절구절

가슴 뚫어라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우리 조국의 빛나는 력사와 함께  
오늘의 이 사회주의가 있고  
후손만대의 양양한 미래가 있음을  
신념으로 안고사는 우리 인민모두에게  
새로운 열정과 신심을 안겨주는 그 음성

새기며 들을수록  
그 구절구절은  
우리 삶의 젖줄기처럼  
가슴가슴에 흘러들어라

언제나 아버지수령님  
우릴 믿어 우리 심장에  
사랑과 믿음을 다 주었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따르는 효자의 의리로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가득  
대고조의 불길로 위훈의 탑으로  
충효의 답변을 새겨왔나니

아버이수령님  
이해에도 우리  
기쁨의 보고만을 드리리라  
불타는 충성 다해,

하늘에 높이 쌓은 비료산과  
천길막장에서 쏟아져나오는  
석탄폭포의 흐름으로,  
강도 높은 철강재의 불흐름과  
전기기관차의 장쾌한 기적소리로,

하늘가에 층층 솟는 통일거리 창가  
흙밭이로 기름진 옥토벌에 흐늘어질  
만풍년의 황금이삭들로  
탐구의 등불 켜들고 마침내 찾아낸  
주체과학의 보배로운 열매들로  
우리 효성을 다바치려니

보시며 기뻐하시라  
어떤 마음과 마음들이  
아버이 그 부름에  
일심단결의 산악으로 일떠섰는가를

그 어떤 유혹의 파도  
바람결에 밀려와도  
이 일심단결의 산악앞에  
산산이 부서져 비말로 흩어지리니  
기뻐하시라 이 일심단결은  
세상에 오직 하나  
아버이수령님 가꾸신 주체형의 사회주의 !

우리의 행복이자  
수령님의 평생 기쁨인  
이 백화만발한  
사회주의화원을 더 활짝 꽃피워  
우리는 드리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

## 송엄한 연단을 우러러

리광근

경건히  
기다리는 마음을 흔들며  
어버이수령님  
근엄하게 나서시여라  
또 한해, 신년사의 연단에  
  
지나온 한해의 나라일을 두고  
밝아온 새해의 나라일을 두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나서시여  
온 나라를 불러주신 수령님의 연단  
해마다 새해 첫날에  
인민에게 축하를 보내시며  
이렇게 나서신 연단은 벌써 수십번  
  
저 연단 우러러 설레이는 마음  
젊으신 장군님의 모습 삼삼히 떠오르고

최고사령관의 위엄한 음성 생생하고  
조국의 발걸음소리 저벅저벅 들려오는듯

어버이수령님  
저 연단에 나서실 때면  
또 한해 높이 오른 조국이 보여오고  
더 높이 오르는 래일의 나날 안겨와  
희망과 긍지로 부푸는 가슴이여

우리 당이 있어  
확신을 가지는  
새해의 이 희망 이 긍지  
저 연단을 우러러 더더욱 넘쳐와라

위대한 당이 이끄는 내 조국에  
해마다 새 년륜이 시작되는 저 연단에서  
올려와라 또 한해 사회주의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조국의 발걸음소리 힘찬 발걸음소리여 !

## 위대한 그 축복속에

김광춘

올해에는  
조국의 산과 들에  
알알이 금쪽같은 이삭들  
더 많이 더 무거이 고개 숙이리  
  
참으로 전승 40돐을 맞는 올해에는  
더 늘어나는 거리와 거리에서  
이사하는 기쁨으로 들썩이리  
짜내는 비단천 필필이 흘러  
이 강산에 무지개를 드리우리

오, 올해에는  
쇠물빛 붉은 하늘을 떠이고  
새 년대의 봉우리를 향해  
조국은 높이도 올라서리

사랑이여라  
축복이여라  
수령님 펼쳐주신 신년사 구절구절  
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길에  
조국땅을 꽃피우며 해빛으로 내리거니

이제 땅속엔  
그 빛발 내려

쇠돌산 석탄산  
보화의 산악처럼 솟아오르리라

땅우엔  
무성하는 건설의 숲  
대기념비들은 솟아나리  
사회주의 우리 제도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리라

좋은 나날들이리  
은빛 궤도우에  
혁명의 북소리 넘치는 강산  
전류를 쏘으며 타빈들은  
눈부신 세월을 감아오려니

기쁨이여라  
사랑이여라  
수령님 해빛아래 꽃피는 땅  
해마다 행복은 더 큰 행복을 불러오고  
기쁨이 더해지는것은  
새해 첫 아침에  
어버이수령님 인민들에게 보내시는  
위대한 그 축복에서부터  
그 음성에서부터 시작되여라

#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김볼로 클로페르 돌레이

조선에 태양이 빛나네  
그 빛발 누리를 비치네  
크나큰 은덕을 길이 전하며  
민주의 조선에 태양 빛나네  
우리 노래부르네 평양에서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리 축원하네 평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산과 들에 고운 꽃 피어나네  
4 월의 봄을 빛내이며  
민주의 조선에 태양 빛나네  
우리 노래부르네 평양에서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리 축원하네 평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필자는 풍고음악가동맹 위원임)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 그 영상 우러르며

제이, 은그위라

동트는 이른아침에도  
당신의 친절한 그 미소 그리고  
별들이 반짝이는 깊은 밤에도  
당신의 자애론 그 영상 그려봅니다  
우리 비록 당신의 따뜻한 품 멀리 떨어졌어도  
그 품을 그리는 마음 심장에 차넘칩니다  
어느때 어디서나 당신을 우러르는  
깊고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속에

당신의 그 영상 안고 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 빛내여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 어떤 설한풍 몰아쳐도  
대를 이어 당신께 충성할것을  
우리는 심장으로 맹세합니다

(필자는 잠비아사람임)



## 느리나무에 박힌 화살

룡악산은 평양의 서쪽교외에 솟아있는 해발 292미터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그 생김새가 마치 룡이 입을 벌리고 날아오르는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 《룡악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시절에 자주 오르시곤하던 사적지일뿐아니라 깨끗한 숲과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수정처럼 맑은 물 그리고 갖가지 고운 새들이 깃들어 우짖는 경치좋은 명산으로서 사람들이 즐겨찾는 유원지이다.

이 산의 남쪽기슭에는 17세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사립학교였던 룡곡서원이 원상대로 잘 보존되어있고 거기서부터 얼마쯤 올라가면 산중턱에 법운암이라는 크지 않은 절간이 있다.

법운암은 본전과 라한전, 칠성각, 산신각 등 여러채의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룡악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구어주고있다.

이 절간은 고구려시기인 393년 평양에 9개의 절간을 세울 때 모란봉의 영명사와 함께 세웠다고 한다.

지난 시기 경치좋은 여기 룡악산근방에는 크고 작은 절간들이 여러개가 있었는데 백범 김구가 1900년부터 3년동안 주지로 있으면서 두루섬과 만경대를 다니던 령천암도 여기서 멀지 않은곳에 있다.

법운암 오른쪽옆에는 하루에 네바게쓰박에 솟아나지 않는다는 신기한 약효를 가진 샘물이 있고 가까운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국가지정으로 되어있는 참중나무와 회화나무 그리고 느리나무가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 19호로 등록되어있는 룡악산 느리나무에 깃든 전설이다.

행창 맑은 달빛이 고요한 숲속을 비치고있었다.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는 뜨음해지고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이따금 본전에서 흘러나오는 주지의 념불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가락맞게 울리었다.

암자의 상좌는 불탑이 있는 프락과 라한전, 칠성각, 산신각들을 돌아보며 빗장도 지르고 거둬세도 하면서 주변을 두루 살피었다.

조심스런 상좌의 발자국소리는 오히려 골짜기의 정적을 더해주는듯싶었다.

이윽하여 주지의 념불도 끝나고 상좌도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다.

골짜기엔 더한층 고요가 깊어졌다.

이때였다. 풀잎에 이슬들은 소리도 들릴상싶은 정적을 깨뜨리며 저 멀리 골짜기아래에서 쿵쿵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잠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상좌는 그 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소리였다.

누굴까? 누가 이 깊은 밤중에 이리로 올가?

상좌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주지가 깨여날가보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발자국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웬 사람이 벌써 본전앞의 돌계단을 오르고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을 얼핏 보니 어느 절의 스님인것 같았다. 가벼운 미풍에 가사자락을 날리며 급하게 달려올라오던 그 스님은 잠시 서서 어디로 갈가 하고 주춤거리더니 인기척을 느꼈는지 상좌가 서있는곳으로 다가왔다. 상좌는 그를 마주 걸어나가 제먼저 인사를 했다.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밤 걸음을 하셨습니다까?》

그는 린근에 있는 암자에 새로 온 주지라고 자기를 소개하였다.

그러더니 《주지님께서 계시옵니까?》하고 물었다.

방금 자리에 들었다고 하니 안타까와하는 스님의 표정이 달빛에도 력연히 알렸다.

상좌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웅글은 법운암 주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뉘신데 이밤중에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거리던 주지는 아까부터 그들이 조심스레 주고받는 말을 죄다 듣고있었다.

《주지님!》

스님은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한다음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오래동안 불도를 닦으신 령험하신 주지님께 긴하게 물어볼 말씀이 있어 찾아왔으니 무례한 저의 짓을 료량해주십시오. 주지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매일밤 저 북쪽하늘에 갑자기 붉은 화광이 비졌다가 한참만에 사라지곤하는데 그러기를 벌써 사흘째나 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천기조화는 범상한것이 아니여서 속세에 길흉화복을 미리 알려주는것이라 하였으니 그게 무슨 조짐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밤길을 걸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딱한 일이었다. 법운암은 남쪽에 자리잡은 절이라 북쪽하늘에 비긴 그 화광을 보지 못했은즉 주지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법운암 주지는 레를 갖춰 찾아온 스님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였다.

이튿날 아침 찾아왔던 스님은 돌아갔으나 그의 발걸음은 가법지 못했다.

법운암 주지에게서는 신기한 해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신기한 화광을 보지도 못했더니 그럴수 밖에 없었다.

스님이 돌아간후 깊은 생각에 잠겼던 법운암 주지는 아무래도 그 신기한 천기조화를 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다음날 그는 저녁을 기다렸다가 날이 어둡자마자 룡악산정수리대봉으로 올라갔다.

얼마를 기다려 밤이 이슬해지자 정말로 북쪽에 불이 붙는듯한 시뻔건 화광이 하늘로 뻗어올랐다. 한참만에 사라진 화광은 참말로 신기하였다. 여적 저런 신기한 화광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주지는 상좌의 부촉을 받으며 가파로운 길을 뚫아 대봉으로 오르곤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조짐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그러기를 이레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주지는 념불을 외우느라고 부처앞에 마주 앉았고 상좌만을 대봉으로 올려보내었다.

상좌는 북쪽하늘의 화광을 보고 가파로운 바위길을 조심스레 내려오고있었다. 절간뒤 샘물터를 지나 라한전을 거쳐 본전으로 오는데 갑자기 획! -하는 바람소리가 머리우에서 들렸다.

밤사당을 하는 어느 맹금의 날개짓소리려니 하고 생각하는데 텅하고 본전의 느티나무에 무엇인가 날아와 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상좌는 열결에 느티나무밑으로 달려가 우를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느티나무에는 난데없는 화살이 날아와 박혔는데 그것은 보통화살이 아니었다.

달빛에 빛나 번쩍번쩍 금빛을 뿌렸는데 화살의 꼬리에 무엇인가 깃갈은것이 달려 바람에 나뭇기고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상좌는 주지가 념불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잊고 본전으로 달려들어갔다.

《네가 무슨 일이나? 불도를 닦는 상좌로서 념불을 하는데 무슨 무례한것이냐?》

주지는 황황히 달려들어온 상좌를 엄하게 꾸짖었다.

상좌는 무릎을 꿇고 앉아 주지에게 루루이 사죄하고 느티나무에 박힌 화살에 대해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진작 말할것이지.》

노여움이 풀린 주지는 호기심에 끌려 불경을 덮고 느티나무로 달려갔다. 과연 상좌의 말대로 신기한 화살인지라 주지는 거기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어디서 날아온 화살일까? 누가 쏜 화살일까? 저 꼬리에 깃처럼 나뭇기는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연방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저녁마다 북쪽하늘에 붉은 화광이 비끼고 영문모를 신기한 화살이 날아온것을 보면 틀림없이 무슨 연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싶이한 주지는 날이 밝자마자 느티나무밑에 사다리를 가져다놓게 하고 그리로 올라가 화살을 자세히 보았다.

그 화살은 정말로 금화살이었고 꼬리에 달린 것은 종이를 접어 달아맨 쪽지편이었다.

주지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펴보았다.

거기에는 닳이 해를 치며 꼬끼요하고 우는 그림과 산에 해가 떠오르는데 세가닥의 해살이 퍼지는 그림이 그려있고 맨밑에는 《백두산 대장수로부터》라는 글이 써여있었다.

《뭐? 백두산대장수! 그럼 김일성장군님이 쏜신 화살이란 말인가?》

편지를 켜 주지는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한참만에야 정신이 들어 상좌의 부촉을 받으며 땅에 내려온 주지는 편지에 그린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내용을 해석할수가 없었다.

닳이 해를 치자 해가 솟아오르는 이 평범한 그림을 백두산대장수가 왜 화살에 달아 여기 룡악산에 날려보냈을까?

이 의문은 도저히 풀수가 없었다.

주지는 상좌를 시켜 린근의 절간들에 보내여 이 소식을 전하고 스님들을 법운암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주지들은 그날로 모두 법운암으로 모여들었다.

전에 왔던 그 스님도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느티나무에 박힌 화살을 보고 신기해하였다.

천출명인으로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말을 항간에서 귀에 쫓도록 들어온 그들은 금빛을 뿌리는 화살을 멍하니 서서 열없이 쳐다보았다. 볼수록 신기하고 놀랍기만 하였다.

어떻게 백두산에서 쏜 화살이 여기까지 날아왔을까?

우두커니 서있는 스님들에게 법운암의 주지가 그림이 그려있는 백두산대장수의 편지를 보이며 그 뜻을 풀어보라고 하였다.

스님들은 모두 신기하게 편지를 들여다볼뿐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었으나 도저히 그 뜻을 알아맞추지 못했다.

법운암의 주지는 멀리에 있는 모란봉의 영명사와 대성산의 광법사에까지 사람을 보내여 주지들을 초청했다.

법운암의 소식을 듣자 그들도 그달음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영명사와 광법사의 주지들도 신기한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

스님들은 모두 실망하였다. 불도를 오래동안 닦아 신묘한 도술을 지니고있다는 광법사의 주지까지도 이렇다할 말을 못하니 인젠 어디에 더 물어볼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유명했다는 금강산과 묘향산의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는 어떻게 해석했을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여러곳에서 모여온 스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며 전전공공하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룡악산증덕에 안개가 뽕얇게 서렸다가 걷히었는데 난데없이 불탑옆에 웬 로승이 장삼자락을 날리며 서있었다.

그는 람루한 의발이었건만 위엄은 천하를 압도하는 기풍이 있었다. 당당한 몸매에 수려한 이목이다.

로승은 이윽히 헤아리던 염주를 고쳐쥐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스님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대들은 무슨 일로 그리도 속을 태우시오?》

범운암의 주지가 로승앞에 다가가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한다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백두산장수님이 보낸 편지를 펼쳐보이였다.

로승은 두손으로 편지를 정중히 받쳐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입을 열었다.

《이 나라에 참으로 길한 일이 생기고 복이 내릴 것입니다.》

스님들은 로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닭이 화를 치고 동산에 해가 솟는것은 장차 이 나라에 광명이 온다는뜻인데 그 광명이 올 시기인 즉 12 지에서 유가 닭을 의미하니 아마 계유, 을유, 정유, 기유, 신유 중 다섯해가운데서 어느해일것지요.

그런데 해살이 세개 그러졌은즉 3년후를 의미할터인데 그러면 바로 을유년에 나라가 독립된다는 뜻으로 되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편지이니 잘 간수하고 이 소식을 어서 만백성에게 전해야겠소.》

로승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으나 매우 저력있게 울렸다.

어허, 참으로 신통한지고-

스님들은 로승의 너무도 신통한 해석에 감심하여 무릎을 쳤다.

범운암 주지는 마음속으로 렬세를 느끼면서도 로승의 밝고 투명한 해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사님, 대사님을 진작 알아뵈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과연 대사님은 만천하의 스승이옵니다. 부끄러운 몸이오나 저희들을 대사님의 제자로 삼아주시옵소서. 대사님의 그 렬힘스런 법도에 이르도록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범운암 주지만이 아니라 모든 스님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디어 로승에게 절을 하였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머리를 들어 올려다보니 로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것이다. 두리번두리번 아무리 찾았으나 로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사님 ! 대사님 !》여기저기에 대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로승이 사라지자 스님들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 의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많은 스님들이 그 로승을 백두산에서 대장수님이 편지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보낸 부하일것이라고 말하였다.

범운암 주지는 여러 스님들에게

《머칠전부터 북쪽하늘에 저녁마다 붉은 화광이 비끼는것은 다 이 편지의 뜻과 깊은 연고가 있는것 같습니다. 백두산대장수님이 다른곳에도 아니고 여기 룡악산에 자리잡은 우리 절간에 이런 귀한 편지를 보내주신것은 무상의 영광이요 천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심신을 키우셨은즉 고향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 애심이 스며있으니 이 나라의 물과 공기를 마시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이의 뜻을 받들어 이 기쁜 소식을 천하에 전하는것이 마땅한 도리일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스님들은 모두 그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하여 이 소문은 만경대는 물론 름근인 대평, 금천, 강선, 증산에까지 퍼져갔다.

그후부터 크지 않은 절간인 범운암은 더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

지금도 범운암본전 앞뜨락 좌측에는 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화살이 박혔던 자리를 렬력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

## 인 민

리종덕

### 1

인민을 믿고 혁명을 시작하고  
인민을 위해  
평생토록 혁명해오신다고  
우리 수령님  
오늘도 뜨겁게 말씀하시여라

인민의 충복이 되시여  
인민을 위해 일하는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으시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만심장을 울리시여라

인민-인민  
우리 수령님  
사랑과 믿음을 다 주시고  
친애하는 그이께서  
온 세상을 통채로 안겨주신  
인민

오, 생각해보면  
전승의 그날  
승리한 인민에게 축하를 보내시는  
수령님의 갈리신 음성을 들으며  
불비속에서 씨를 뿌리던 내 어머니  
얼마나 뜨겁게 목이 메였던가

해주-하성 철도건설완공의 그날엔  
열일곱살 내 형이  
수령님의 감사를 받아안고  
어른이 다 된듯  
가슴을 펴고 돌아왔으니

인민-그 이름은  
전쟁을 이겨낸 내 어머니였고  
위훈으로 첫걸음을 새긴 내 형이었고  
점심 한때는 달계 건느면서도  
파철 손달구지를 신이 나 끌던 내 아니었던가

### 2

아직은

우리 집 식구들중에  
온 나라가 아는 영웅은 없어도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던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사들의 힘을 믿고  
갑문건설을 맡기였다고 하실 때  
그 갑문건설자들속에  
다름아닌 내 아들이 있었으니

광복거리 건설자들이 대견하시여  
한품에 안으시고 사진을 찍어주실 때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엔  
내 딸애도 서있었으니

아 아,  
인민 그 이름은  
내 아들이였고  
내 딸이 아니던가

### 3

세기와 더불어 전해질  
회고록의 첫장에서도  
우리 수령님 《이민위천》이라고  
인민들을 추억하실 때  
얼마나 뜨거운 걱정이 이 가슴에 일었는가

행복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이런 인민이 있어 공화국은 튼튼하다고  
수령님 기쁨으로 외이시는 그 이름

오!  
락원의 의지로 불리우는 그 이름  
태성할머니의 마음이 비낀 그 이름  
검덕의 열정으로 뜨거운 그 이름  
전천땅의 꽃으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당 력사에 별처럼 새겨진  
시대의 영웅들과  
어찌 내 이름을 같이하랴만

바다의 한 물방울인듯  
력사의 주체로 빛나는  
천만 인민의 한사람이 된  
한없는 긍지와 자랑이여

우리 수령님 사랑과 믿음이시고  
친애하는 그이의 세계이신  
우리 인민  
우리 인민

그것은 곡식을 가꾸고

쇠물을 녹이고  
석탄산을 쌓아가는  
평범하나 평범하지 않는  
너로구나 나로구나

오, 인민-인민!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형제들 우리 집 식구들  
수수하나 수수하지 않은  
세계의 주인인  
바로 우리자신들이 아니던가

## 우러르는 마음속에

황금낭

새가정을 이루자  
기다렸던듯이 차려진 집  
산뜻한 벽우에  
아버이수령님 영상을 모시며  
몽클 젖어드는 마음이여

멀리 고향의 부모  
여기 새집에 모셔온듯  
밝은 방안엔 화기가 돌고  
따스함이 봄빛처럼 흐르고...

이제는 그이께서 노을을 이고  
내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도  
몸가까이서 다 보아주시리  
내 하는 일  
내 누리는 생활에 대하여  
그이는 물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리

때로 함께 있던 합숙친구들이  
스스럼없이 저녁에 들리면  
안해의 마음이 비긴 식탁우에도  
그이의 미소는 따뜻이 흐르려니  
어서 들라고  
많이 들라고

밤이면 밤마다  
우리의 단잠을 지켜주시리  
이제 태여날  
우리 아이들의 앞날도  
대견하시여 귀중하시여

요람속에 락원속에 펼쳐주시리

나서며 보아도  
들어서며 보아도  
자애로운 그 영상  
우리에게 다 안겨주시리  
생활에는 환희를  
로동에는 보람을

내 한집을 위해서도 여기 계시는분  
첫살림이 서둘세라 일깨워주시며  
젊은 시절 좋은 때에  
나라 위한 큰일 많이 하라고  
따뜻이 손잡아주시느라  
여기 계시는분

아 집집마다  
부모와는 다 함께 살지 못해도  
수령님을 한가정에 모시고  
누구나 한식술로 사는 우리 인민  
그들속에 나도 사는 행복이여

진정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차려진 새 집  
산뜻한 벽우에만 모셔지는가  
우러르는 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영원히 받들어가리  
아 수령님  
아버이수령님

《제일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강계객주집 주인이다.

저녁늦게 강계시내에 도착하여 객주집에 들어갔더니 그가 대문밖까지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이었다. 하이칼라를 하고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사근사근하고 불임성이 좋았다.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친 전보를 받고 나를 기다리고있었다는 것이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

## 련속기행

# 력사의 땅 강계에서

1923년 겨울...

직고개를 넘어 장강군을 지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저녁늦게야 강계에 도착하시어 강계객주집에서 하루밤을 묵어가시었다.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불멸의 글줄을 따라 답사하는 우리 일행은 강계에 이르자 곧 강계우편국을 거쳐 강계객주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계객주집은 시내의 중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강계시 부창동에 자리잡고있었다. 이곳을 부창이라고 부르게 된것은 옛날 강계부(조선봉건왕조시기의 행정단위)가 있을 때 여기에 부의 창고가 있었기때문이라고 한다.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당시에는 부창동이라고 하지 않고 평북도 강계군 읍내면 동부동이라고 불렀다. 옛성터가 지금도 흔적을 남기고있는 부창동의 구릉지대에는 망미정과 인풍루가 고색칠은 학각지붕을 펼치고 솟아있어 외래침략자들의 침습을 막기 위해 이곳에 강계부를 두고 북방군을 강화하던 시기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투쟁이야기를 오늘도 그대로 전해주는 듯 하였다. 그때 산악표백화산림갈색토양의 이 신작로는 북도와 남도를 이어주는 북부내륙지대의 유일한 외통길이었다. 이 길을 따라 북으로 거슬면 화평땅을 지나 조국의 변방인 중강, 후창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한낮의 찌는듯한 피약벌을 어깨우에 얹으며 남으로 내려면 성간, 전천을 거쳐 개고개(명문고개)를 넘어 평양과 서울로 나갈수 있었다. 장구한 세월의 눈비속에 다져지고 무수한 인생의 못발길에 넓어진 이 길은 조국의 자랑많은 투쟁력사와 함께 민족수난의 피눈물도 스며배여있는 비운의 길이기도 하였다.

병인년(1866년) 프랑스 침략자들이 강화도에 쳐들어왔을 때와 신미년(1871년) 미국침략선이 또 다시 기여들었을 때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움터로 나갈데 대한 봉건정부의 명령을 받들고 의병으로 강화도의 정족산성을 향해가던 1,500명이나 되는 강계포수들의 우렁찬 발구름소리가 지금도 울려오는듯하다.

일제의 강점전후에는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수호하기 위해 창과 화승을 메고 투쟁에 떨쳐나섰던 의병들과 독립군들의 발자욱도 짚게 찍혔었다.

히나 나라를 찾겠다고 제나름대로의 큰뜻을 안고 이 길을 갔던 그들, 살아서 돌아온 이 과연 몇몇이나 되었던가. 그들마저 화승총을 동강내고 산속에 숨어 한숨과 의분의 눈물속에 남은 여생을 보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열두살 어린신 나이에 이 길을 걸으셨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부창의 나지막한 구릉을 지나 만경대로 향한 이 길은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떠올린 혁명의 길, 광복의 길로 우리 조국력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겼던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강계객주집에 이르렀다. 연옥색치마저고리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녀강사가 일행을 쪽대문안으로 반갑게 맞아들이었다.

강계객주집은 정방형의 울담에 둘러싸인 그리 크지 않은 ㅁ자형의 돌기와집이었다. 토방우에는 퇴마루가 있고 토방으로 오르는 나무계단이 있으며 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무셨던 모심방이 있었다.

방금전에 한줄금 시원하게 내린 비방울들이 사적지구내의 깨끗한 잔디밭이며 정원수의 푸른 잎새들에 맺혀 보석처럼 반짝거리고있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찾아오는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와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 그리고 각지에서 오는 참관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활짝 열려져있는 객주집의 방문앞에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다가섰다.

방안에는 지금으로부터 19년전 강계객주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안의 혁명사적지 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신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1974년 11월 1일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도 몸소 시간을 내시고 강계객주집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를 독립하자면 조국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

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셨던 50여년전의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강계객주집에 대한 인상이 깊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그날의 사적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동기와집을 돌아보며 강사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니노라니 대문밖까지 달려나와 수령님을 반갑게 맞아들이던 객주집주인의 모습이 금시 눈앞에 보이는듯하고 마당가에는 수령님을 위하여 이 집 할머니가 뚫이던 소갈비국냄새와 숯불에 굽던 청어냄새가 아득한 세월을 넘어 오늘도 진하게 풍기는듯하였다.

통방옆의 작은 방안에는 수령님께서 주무실 때 이 집 할머니가 내놓았던 두툼한 이부자리가 있으며 부엌에는 정성껏 음식을 지어올렸던 식기류들과 소반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어르신 수령님을 있는 성의와 정성을 다해 반들어모신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다음날 아침 강계우편국으로 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팔도구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보를 치시였습니다. 글 한자에 3전씩 받았는데 여섯자를 넘으면 1전씩 더 받는다고 하여 오래 생각하신 끝에 전보용지에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여섯글자를 써넣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치신 여섯자의 전보문은 비록 짧은 글발이었으나 거기에는 조선의 혁명가로 하루빨리 성장하여 조국광복위업을 맡아나설것을 바라시며 천리먼길을 떠나보내신 아버님의 그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었습니다.》

강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20년대초의 그 날에로 이끌어갔다.

...강계우편국을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계객주집으로 돌아오시면서 거리를 둘러보시었다.

강계는 실로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시내의 돌레에는 높고낮은 산들이 우쭐우쭐 솟아있는데 눈에 덮이고 나무들이 우거졌다. 남산, 독산, 대왕산, 소복산은 마치도 강계읍을 둘러싼 병풍 같았으며 거리변두리를 흐르는 장자강은 강계읍의 풍치를 한층 더 돋구어주고있었다. 퍼그나 높은 남산으로부터 뻗어내린 산줄기가 장자강에 막히어 우뚝 멈춰선 아슬아슬한 벼랑우에는 관서 8경의 하나로 이름높은 인풍루가 높이 솟아 도시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있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짓누르듯 거리한복판에는 수비대, 헌병대, 경찰소, 산림보호소, 전매국, 신식은행, 금융조합 등 일제의 식민지략탈기관들이 도사리고있어 주인행세를 하고있었다.

당시 인구가 천여호밖에 안되던 크지 않은 강계읍에 이처럼 많은 통치기관들이 들어앉았으니 강계는 나라를 빼앗기고 도탄속에 빠진 이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었다. 여덟살나시던 해 부모님을 따라 림강으로 가시며 들리셨을 때보다 상점들도 더 많아졌고 전선줄도 얼기설기 늘어져있었다.

일제놈들에게 지지 눌러 금시 숨막힐듯한 우리나라의 북방도시, 게다가 활개쳐다니고 왜색이 짙어가는 강계읍거리를 바라보시는 어르신 수령님의 눈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그이께서는 강계객주집에서 체류하신 그 짧은 하루동안에도 조국광복의 큰뜻을 키우기 위하여 떠나신 천리길을 쉬임없이 이어나가야 할 무거운 의무감을 민족의 숙원처럼 엄숙히 받아안으셨던것이다. 하여 이튿날 아침 객주집주인의 권고도 사양하지고 강계객주집의 쪽대문을 나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에서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이튿날 객주집주인은 나를 차에 태워보내려고 자동차사업소에 갔다 왔다. 그는 차고장으로 열흘쯤 기다려야 할것 같다면서 신청은 해놓았으니 친척집에 온셈치고 그동안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진정이 고마웠지만 빨리 가야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도 더는 만류하지 못하고 짚신 두켤레를 주면서 개고개쪽으로 가는 달구지군까지 한사람 물색하여 붙여주는것이었다.》**

참으로 가슴뜨거운 구절이었다. 그때 우리 수령님의 나이는 겨우 열두살이었다.

열두살이라면 장자강의 얼음우에서 썰매를 타던 아이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나이였다. 허나 그 나이에 벌써 도탄에 빠진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계셨던 수령님이시었다.

열흘을 기다리시면 자동차로도 가실수 있는 길이었다. 그동안이면 강계시내의 역사유적들을 구경도 하며 곱쌍인 피로도 푸실수 있었다. 그러나 떠나시었다. 자동차가 아니라 금수레에 태워준대도 열흘을 기다리실수 없는 수령님이시었다.

오가산과 직고개를 넘으며, 화평군과 장강군을 지나며 목격하신 조국의 현실, 수림속에 숨어사는 가난한 화전민들의 귀틀집이며 골짜기에 쓰러질듯 붙어있는 동점마을의 동기와집들... 피나리 보집우에 대롱대롱 쪽박을 엮고 배고파우는 어린것들을 달래며 북간도로 들어가던 류량민들의 모습...

나라를 독립하자면 조국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그 말씀의 참뜻을 천리길의 자욱마다에서 더욱 깊이 느끼신 수령님이시었다. 하

여 수령님께서서는 열흘을 기다리시지 않고 떠나시었던 것이다.

그렇다. 강제객주집에 남기신 열흘에 대한 이야기-그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평범한 생활속에서 흘러가는 나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것이다. 그것은 열두살 어리신 그 시절에 벌써 조국과 인민을 위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특징지을수 있게 하는 이야기이며 파란중첩한 조선혁명을 승리로 빛내이신 그 요인을 체득할수 있게 하는 이야기일것이다.

바로 그러한 의지로 인민을 이끌어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남들은 수백년이 걸려서야 수행한 공업화의 역사적과제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끼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 땅우에 찬란히 펼쳐주셨거니,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짚는 조선의 즐기찬 그 걸음, 세월을 주름잡는 천리마의 역센 그 날음은 그때 벌써 시작되고있었것이 아닐가.

어느새 친근해진 너강사와 함께 강제객주집 쪽대문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뜨겁게 안겨오는것이 있었다. 이 쪽대문을 나서시여 모진 추위와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고 험산 준령을 넘으시며 혁명

의 천리길을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잠시의 휴식도 다 뒤로 미루시고 한평생을 오직 인민을 위해 바치시며 현지지도의 먼먼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자애로운 수령님의 사랑의 력사가... 회고록의 글줄을 따라 배움의 천리길로정을 걷는 우리의 앞길에는 또한 얼마나 많은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놓여있을것인가.

비뻗은뒤 깨끗한 저녁이다. 8월의 명절을 가까이 한 북방도시는 눈부신 황금빛채운이 어린 푸른 하늘아래 가없이 펼쳐져있다. 강제객주집주위에는 창가마다 꽃들이 활짝 핀 다층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 자욱이 어려있는 고등중학교와 백화점, 망미정, 인풍루가 자리잡고있다. 또한 사적지를 축으로 하여 인민정권기관들과 문화공공건물들이 의젓하게 들어앉았다.

어디선가 혁명가요를 부르는 아이들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을 헤가르며 또 하나의 미더운 답사행군대오가 부창동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를 휘여오른 배움의 천리길로정을 따라 씩씩하게 손저으며 사적지구내로 들어서고있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속에 자리잡은 강제객주집의 쪽대문으로-

## 과학자의 한생

최상희

그대의 한생은 씨앗에만 있는듯  
그대는 한알의 씨앗을 찾아  
남다른 진통과 모대김 속에 사나니  
그대의 하루는  
탐구없이 보낸 사람의 한생보다 길어라

분기계획 넘쳐한  
광부들 용해공들  
목마에 앉아 꽃다발에 휩싸일 때  
가막사리 달라붙는 논두렁길로  
쭈정이씨앗을 손에 쥐고 걷던 날  
그런 날의 피로움은 얼마나 컸으랴

고뇌에 찬 탐구의 한길 걷는 삶  
끝없는 진통이 남기고 간 흔적인듯

희여지는 머리카락  
깊이 패인 주름살

아, 한생을 다바쳐  
새 씨앗을 찾아낸 그 한순간이면  
그대의 남다른 진통과 모대김은  
그 한알의 씨앗에 담겨  
나라의 크나큰 재부로 남으리니

인류에게 바쳐지는 과학자의 한생이어  
그 한생은  
먼먼 후날에도 이어지리라  
그대의 발명으로  
인민이 혜택받는 그 세월의 길이만큼...



# 명언해설

《인민적풍격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인 사고방식을 지닌다는것은 결코 탁상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우기 말공부으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

력사는 인민적풍격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사고방식을 지닌 고결한 인품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고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것과 같은 완전무결한 인민적풍격을 갖춘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담은 커도 인간을 뜨겁게 대할줄 모르고 인민을 위하는 인정은 있어도 담과 도량이 크지 못한 사람은 참말로 인민적풍격을 지닌 위인이라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지니적 없는 비범한 담력과 열화같은 인간애를 겸비하고 계시는 동서고금에 일찌기 없는 인민적풍격의 소유자인 희세의 위인이시다,

인민적풍격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인 사고방식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혁명투쟁의 불구름을 헤쳐나가는 전과정에 견지하여오신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 발자욱을 찍으신 그때부터 탁상앞에서 말공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숨결, 눈빛, 표정, 말투, 손세, 몸가짐까지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돌리면서 인민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었다.

실로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적풍격과 인민적사고방식이 있음으로 하여 초기혁명활동의 그 어려운 나날에도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성과적으로 결성될수 있었으며 수많은 혁명가들이 자라날수 있었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적풍격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인민적 사고방식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운동하는것은 태양의 인력때문이다.

인민적풍격과 인민적인 사고방식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인품이야말로 만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이다.

인민적풍격의 기초에는 위대한 인간애가 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존중과 뜨거운 사랑,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같은 인품의 영원한 샘이며 무궁한 원천이다.

력사의 의지와 인류의 지향을 체현한 인민적풍격,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사고방식을 지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온 조선혁명의 영광찬란한 력사가 인류사에 아로새겨질수 있었으며 세계만방에 영웅조선이 빛나게 되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민족적자주성이 확고히 담보되고 혁명의 전취물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힘차게 다그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모범을 보여 주신 이 위대한 사고방식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심장이 위대하고 우리 당의 심장이 위대하기에 주체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고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약속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영웅적인민의 기개를 온 세상에 더욱 빛나게 떨치고있다.

## 우가촌의 별이야기

평양시 교외의 삼석구역에는 별과 함께 산봉우리들이 적지 않아 그 사이마다에는 깊고 열은 골짜기들이 많다. 그중에는 관학골이라고 부르는 깊은 골짜기도 있다. 이 골짜기의 양지바른곳마다에는 밤나무가 많은 밤촌과 우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우가촌 그리고 박막골, 미학골 등 제나라의 이름을 단 여러개의 마을이 들어앉아있다.

바로 여기가 삼성리라는곳이다.

우리 나라 그 어디나 마찬가지로 최근 국사봉을 중심으로 길게 가로놓인 산줄기의 봉우리마다에서 항일혁명선열들이 남겨놓은 혁명적구호문헌들이 수없이 발굴되어 이곳 인민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고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곳에서는 구호문헌과 함께 그와 관련한 전설도 발굴되었다.

그것은 박막골 뒤산봉우리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에 씌여진 《광명성》이라는 구호문헌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고장사람들은 매일저녁 6 시경부터 8 시 사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박막골뒤산봉우리정점에 있는 《광명성》이라고 쓴 소나무꼭대기에서 커다란 별 하나가 불쑥 솟아올라서는 다른 구호문헌들이 보존되어있는 다섯개의 봉우리를 모두 거쳐 삼성산마루에까지 가서 없어지는 신묘한 현상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 현상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기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두달전인 6 월중순 어느 날 저녁녘이었다.

립하가 지나고 하지가 가까와오지만 아직은 저녁에 선기가 도는데 아침부터 잔뜩 찌프리고있던 하늘이 금시 한소나기 쏟아부을듯이 먹장같은 구름을 몰아오고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을 감촉하지 못하는지 열에닐 곱살쪼 되여보이는 더벅머리총각이 홀잡땀을 입고 지계를 전체 수심에 잠겨 철봉으로 넘어가는 오솔길을 더벅더벅 걸어가고있었다. 한손에는 자그마한 약봉투를 쥐고 다른 한손에는 지계작시미를 지팽이삼아 짚고서 걸어가는 그 총각이 바로 우가촌이라는 마을에 눈먼 동생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는 순돌이라는 소년이다.

멀망을 앞둔 일제는 우리 나라의 수많은 청장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는데 불쌍한 순돌이도 여기에 걸려들어 매일 당장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래서 순돌이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약이라도 한첩 더 지어다드리고 가려고 이른새벽 산에 올

라 나무를 해다 팔고 약방엘 들려오다나니 이렇게 늦게야 고개길에 들어선것이였다.

《내가 이제 집을 떠나면 어머니 병구완은 누가 해주고 눈먼 동생은 누가 돌보아준단말인가... 농사는 또 어떻게 하고... 세상은 너무도 무정하구나...》

순돌이는 불쌍한 어머니와 동생생각이 갈마들어 점점 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이생각 저생각 하며 한고개를 넘어 철봉에 들어서니 늘 지고다니며 다리쉽을 하곤하던 너럭바위가 나타났다. 그 바위를 보는 순간 순돌이는 몇해전에 왜놈 순사들에게 잡혀간 아버지생각이 불쑥 났다.

아버지를 따라 장거리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이 바위돌우에 앉아 장마당에서 사들고오던 지짐이며 호떡 같은것도 먹었고 바위밑에 솟아오르는 웅달샘에 땀도 씻곤했었다.

어느때는 모르겠더니 오늘따라 이 바위를 보니 아버지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생각할수록 아버지가 그리웠고 어머니와 동생이 불쌍히 여겨져 순돌이는 그만 그 바위우에 털썩 앉아 체 설음에 겨워 눈물이 그렁해있는데 《애야, 너 왜 그러느냐 웅?》하면서 누군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것이였다.

무인지경에서 자기를 동정해주는 사람이 있어 더더욱 설음이 북받쳐오른 순돌이는 그만 엉엉 목놓아 울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애야, 그만하라는데두. 다 큰 사내가 이게 뭐냐. 그쳐라. 어서.》하면서 순돌이의 손을 잡아주는것이였다. 마음이 좀 가라앉은 순돌이는 울음을 그치고 눈굽을 닦았다.

그 사람은 순돌이옆에 앉으며 《너는 왜 여기서 혼자 울고있느냐 ?》하고 다정하게 물었다.

순돌이는 그제서야 그 사람이 누구일가 하고 쳐다보았으나 이미 날은 어두워져서 누군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이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지나가다보니 네가 슬피 울기에 왔다. 그래 너는 어디서 사느냐?》

동정어린 그 목소리에 순돌이 마음은 대변에 풀리고말았다. 순돌이는 그 사람에게 자기 속마음을 터놓았다.

대대로 이곳에서 살고있는 순돌이네는 몇해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살림이지만 웃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

산과 들에 새싹이 움트고 시내가에 버들꽃, 민들레꽃이 필 때면 순돌이는 어린 동생을 이끌고 나물캐러 다녔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오면 그들앞에서 동생이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하고 노래도 부르고 재물을 부려 고역에 시달리는 가정이었지만 저녁마다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오곤 하였다.

그러나 저 아래권 밤촌이라는 마을에서 사는 옥심사나운 변치주님이 구장이 된 다음부터는 마을이 어수선했지였고 줄곧 슬픈 일만 생기곤 하였다.

욕심이 꿈발바닥같은 이놈은 온 골안에 짝 차넘치는 밤나무와 추리나무 그리고 메마를대로 메마른 땀기밭까지 다 독차지하고 작인들을 마구 부려먹었다.

몇해전부터는 면에 뻗질나게 드나들며 면장과 왜놈순사들을 청해들이더니 마침내 구장자리까지 타고앉아 갖은 못된짓을 다하였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악착한 구장놈에게 물려가 항의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그럴수록 이놈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제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사람은 젊은이건 늙은이건 가리지 않고 《징용》과 부역에 막 끌어내곤 하였다.

이렇게 되자 마을사람들은 이놈과는 마주서기조차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빛진 중》이라고 이놈앞에 가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해 가을이었다.

래년에 없이 심한 가뭄과 그뒤로 들이닥친 큰물피해로 보잘것없이 된 농사지만 그나마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순돌이 아버지는 아침 일찌기 어머니와 함께 밭에 나가 강냉이가을을 하고있었다.

이때 밭머리에 갑자기 구장놈이 나타나더니 래일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강냉이가을은 후에 하고 제놈의 집에 와서 어머니는 부엌일을 하고 아버지는 장마비에 무너졌던 뒤돌안의 담장을 고쳐쌓으라고 하였다.

바쁜 때에 제놈의 집에 와서 일을 하라는것이 비위에 거슬리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는수없이 구장놈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버지가 점심밥도 못먹고 무거운 돌을 굴러다가 담장을 쌓고있는데 떡방아를 찧는 어머니를 따라갔던 철없는 어린 누이동생이 아버지에게로 다가오더니 배고프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자고 졸라대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조금만 더 있다가 담장을 다 쌓고 가자고 하면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밥 몇알을 어린 딸의 작은 손에 쥐어주고는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이때 갑자기 마당쪽에서 《야, 이 쌍년의 계집애가 밤을 도적질해 !》하는 구장녀편네의 앙칼진 소리와 함께 《아그그-》하는 어린 딸의 숨넘어가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달려가보니 마당에는 뺨진 불찌와 재가 담긴 화로가 나뒹굴었고 어머니는 두 눈을 감싸쥐고 우는 어린 딸을 끌어안고 몸부림치고있었다.

그옆에는 부엌아궁에서 재를 담아내곤하던 부삽을 손에 든 구장녀편네가 한쪽손을 허리에 얹고 살기등등해 서있었다.

한눈에 모든것을 알아본 아버지는 얼른 달려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흠칠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격분한 아버지는 《넌년도 사람이냐?》 하더니 그년이 쥐고있던 부삽자루를 빼앗아 내동미치고 퇴마루로 뛰어올라가 화로를 들어 문열린 방안에다 댔다 끈졌다.

그리고는 어린 딸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온통 데서 험상궂게 된 딸의 얼굴을 씻어주고 간장을 바르면서 바빠 돌아갔다.

그런데 이때 방문이 벌럭 열리더니 왜놈순사들이 다짜고짜로 아버지를 묶어가는것이였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달려나가 앞을 가로막으며놈들에게 들이댔다.

《너희들도 사람이냐? 어린것의 눈을 못쓰게 만드려고도 모자라서 생사람을 또 잡아가느냐? 예익 이 악귀같은놈들아.》

순사놈들은 어머니를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칼등으로 때리고는 아버지를 끌어가고 말았다.

그날 어머니는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허리를 다쳐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어린 동생은 두눈을 잃고 말았다.

이날부터 순돌이는 잡혀간 아버지와 앓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팎의 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눈먼 동생의 손발이 되어주어야 하였다.

순돌이는 어린 몸이 모든 부담을 다 이겨내면서도 오직 잡혀간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질 않았고 어머니는 허리병이 도진데다가 심장병까지 겹쳐 한달전부터는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고있었다.

사람들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이 백두산에서 왜놈들을 쳐부신다는 소문이 짜하게 돌아 변구장놈은 더 기승을 부렸다.

구장은 마을을 싸다니며 《공출》이라고 쌀과 소와 지어는 뚝그릇에 뚝숟가락까지 빼앗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몇 안되는 마을의 청장년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모조리 잡아가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순돌이도 구장놈의 손에 걸려 《징병》령장을 받고 래일 아침 집을 떠나게 된것이였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난 순돌이는 《이제 내가 떠나면 불쌍한 어머니와 눈먼 동생은 어떻게 살아간단말입니까?》하고 긴숨을 후-내쉬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난 아저씨는 순돌이의 한쪽손을 끌어당겨잡더니 《음, 그랬됐구나. 순돌아, 네가 혼자서 정말 고생을 했구나. 그러나 너무

근심할게 없다. 너도 잘살 날이 올게다.》하며 말했다.

《예? 잘살 날이 온다구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순돌이의 눈은 갑자기 반짝거렸다.

아저씨는 정색해서 말했다.

《나는 백두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지금 백두산에는 장군별과 함께 광명성이라는 새별이 솟았는데 그 별빛은 너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광명을 주고 원썬놈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빛이란단다.

이제 조금후에 그 별이 이 산마루도 비치게 된다.》

꿈같은 말에 순돌이는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그 별빛은 보이지 않았다.

하늘이 온통 구름으로 뒤덮였던것이다.

순돌이가 실망하여 그 사람을 찾았으나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리던 순돌이는 그자리에서 도로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바로 이때였다.

눈부신 섬광이 번개처럼 번쩍하더니 박막골 뒤 산봉우리 꼭대기를 뒤덮고있던 먹장구름이 찢 갈라지면서 하늘이 짙 열리는것이였다.

뒤이어 산봉우리의 맨 꼭대기에서 동이만큼이나 큰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한참이나 타번지더니 천천히 하늘위로 솟아오르는것이였다.

캄캄하던 수림속이 대낮처럼 환히 밝아졌다.

순돌이는 《야, 별이다!-》하고 경충경충 뛰었다.

순돌이는 이 희한한 일을 어서 마을사람들에게 알리고싶어 한달음에 고개를 넘어 냇다 달려갔다.

순돌이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별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심상치 않은 일일세. 나라에 대통운이 틀 조짐이 분명하네.》

배나무집로인의 말에 마을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날밤 우가촌사람들은 장밤 떠있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새날을 맞이하였다,

날이 밝자 한밤을 꼬박 새운 마을사람들은 신기한 별이 났던 산봉우리로 달려올라갔다.

동생도 신기한 별이야기를 듣더니 오빠에게 편지를 쓰다싶이 졸라대며 순돌이의 손목을 잡고 같이 따라 올라갔다. 앓는 어머니만이 자리에 누워있었다.

산말랭이에 오른 사람들은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산봉우리 맨 정점에 서있는 백년묵은 아름드리 소나무에 《광명성》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는것이 아닌가!

순돌이는 그제서야 어제 저녁에 그 아저씨가 들려주던 백두광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러니 백두광명성이 우리 우가촌에도 밝은 빛을 뿌려주는구나.)

순돌이는 《광명성》이라고 씌여진 나무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았다.

순돌이와 마을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희한해서 그자리를 뜨지 못하고 거기서 하루해를 다 보냈다. 그날저녁 신기한 현상은 또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번개도 일지 않고 우뢰소리도 나지 않았다. 백년묵은 소나무의 푸른 잎속에서 동이만한 별이 조용히 솟아오르더니 천천히 심성산쪽으로 가는것이였다.

《야! - 별이다!》

누군가가 환성을 올렸다. 모두 손을 쳐들고 깡충깡충 뛰며 기뻐하였다.

순돌이 동생만이 《오빠야, 별이 어데 있니?》

하며 별을 보지 못해 안타까와하였다.

순돌이는 가슴이 찢기는듯 아팠다.

《저기... 저기 별이 있어.》

순돌이는 별을 가리키며 동생의 머리를 그쪽으로 돌려주었다.

동생은 두손으로 눈을 막 비비였다. 그러더니 《야, 정말 별이 보이네.》하고 말하는것이였다.

《뭘?》

동생의 눈을 들여다본 순돌이는 깜짝 놀랐다. 늘 그들이 덮인듯 빛이 없던 동생의 눈이 새별마냥 초롱초롱 빛나는것이 아닌가.

《오빠, 보여, 별이 보여, 그리고 오빠두... 보여. 다 보여.》

《애야!》

《오빠야!》

서로 부둥켜안고 놓을줄 모르는 남매를 바라보는 마을사람들은 모두 눈굽을 흘리였다.

배나무집로인이 동생을 번쩍 안아올리며 목메여 말했다.

《백두광명성이 불쌍한 너에게 눈을 주었구나. 백의동포의 머리위에 광명이 비졌도다.》

마을사람들은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그 별은 가다가는 멎고 멈춰섰다가는 또 가곤했는데 그 별이 머무른 봉우리의 아름드리 소나무마다에는 《조선독립 위하여 한목숨 바치자》, 《조국광복 멀지 않았다. 모두 일어나라》, 《내 나라 제일이다》라는 글발들이 새겨져있는것이였다.

힘든줄을 모르고 순돌이와 마을사람들이 심성산마루에 올라서니 그 별은 벌써 저 멀리 평양쪽으로 떠가면서 밝은 빛을 계속 뿌리고있었다.

그날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순돌이가 돌아와보니 바깥출입도 못하던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것이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을  
사람들은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그 별빛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오늘도 《광명성》이라고 쓴 그 소나무에서  
는 광휘로운 별이 솟아오르곤하는데 누구든지 저녁  
에 심성천다리목에서 관학골쪽으로 뻗은 도로를 따  
라 올라가면 힘들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고 한다.

## 백두겨울의 서정

강현만

드세 차구나  
회오리치는 눈바람  
그래도 좋구나  
걸음걸음 뜻깊은 답사길 따라서며  
우-우- 기승치는 백두의 겨울바람-

누구는  
아지랑이 가물대는 파아란 봄언덕이  
꽃향기 실어오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깊은 서정을 불러준다 했건만

내게는 그보다  
우-우- 내닫는 이 눈바람  
귀전에 휘파람도 불어주는 이 바람이  
더더욱 짙은 서정을 불러주누나  
류다른 서정을 불러내누나

끝간데 없는 백설의 바다  
저리도 눈부시게 깨끗한것은  
티끌하나 섞일세라  
씻어주고 쓸어주는  
백두겨울의 이 바람덕 아니냐

저기 소백수가의 하얀 서리꽃  
저렇듯 순결하게 피어나는것도  
시들세라 질세라  
어루쓰다듬는 이 바람의 조화 아니냐

행군의 설참은 또 얼마나 멋들어진가  
세차게 퍼덕이는 붉은기  
두둑한 눈무지우에 꼭 박아세우고  
가락맞는 손벽장단 발장단에  
하모니카소리 혁명가요노래소리 흥났는데  
백두의 바람도 놀아보자 휘-익 끼여드니  
어허, 이게 세상 기막힌 화음이로구나!

정녕 좋구나  
빠근하게 맞는 눈바람에  
눈섭에도 입가에도 허영계 성에 불리고  
코등이며 뺨이며 벌긔벌긔 얼어들어도  
가슴은 불을 안은듯 후덥기만 하나니

아, 그날의 투사들  
이 찬바람 맞으며  
가슴속 피를 끓여  
혁명절개 억세게 버리었으리  
이 눈바람 맞으며  
봄날의 언덕을 제일먼저 보았으리

안락과 영달을 바라는 인생엔  
가시돋힌 채찍을 안기며  
오물처럼 흔적없이 묻어버리고 쓸어버리고  
혁명만을 따르는 인생엔  
서정을 주고 노래를 주고  
불을 안겨주는 백두의 겨울바람이여

그래서  
저기에 뿌리내린 이깔, 분비나무들도  
저렇듯 자랑스레 머리를 치켜들고  
백두의 바람을 즐겨 맞는게 아니냐  
그래서 대오앞의 붉은기  
백두의 바람 안고  
저리도 붉게만 타는게 아니냐

행복한 날에도  
인생의 먼먼길 동요없이 가라고  
영원히 부패와 변질을 모르라고  
활기를 부여주는가, 백두의 겨울바람이여  
투사들이 헤쳐간 고귀한 자욱우에  
선서같은 발자국 덧찍는이들만이 느끼는  
오, 백두겨울의 류다른 서정이여!

# 빛을 들어 노래하노라 위대한 우리 당을

오영재

내 빛을 들어 우리 당을 노래하려니  
가슴 몽글히 젖어오는 빛에 대한 생각  
눈앞에 보여와라  
이 빛을 새겨안고 당중앙청사우에 나뭇기는 우리  
의 당기  
들려와라 창공에 나래치는 그 펄럭임소리

금빛으로 눈에 부신 우리의 빛  
불수록 궁지로운 우리 지식인들의 모습  
얼마나 미터운 계급들과 어깨결고 서있는것인가  
숙명의 벼루돌에 값없는 인생의 울분을 갈며  
외로워 눈물짓고 차별로 서럽던 우리의 빛이  
그 언제 성스러운 기발로 추켜올린적 있었더나

돌아보면 어제날 사회앞엔 지식이라는 황금을 바  
치고도  
막돌처럼 이 발에 밟히고 저 발에 채우며  
길바닥에 굴러다닌것이 우리 인테리들의 인생  
지식을 상품처럼 팔며  
계절조처럼 정한 집이 없이 떠다니며  
어지러운 시궁창물에 비졌던 초라한 나그네의 모  
습이  
과학자여 그대 할아버지의 모습이였고  
언론인이여 그대 아버지들의 모습이였다  
은혜로운 우리 당이 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들의 처지와 그 무엇이 다를수 있었으랴

우리 지식인들의 마음속 깊은곳까지  
당이어 오직 그대만이  
가장 참다운 사랑으로 헤치고 들여다보며  
들어주었노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속삭임소리를  
찾아주었노라  
정의와 량심의 맑은 샘줄기를

우리 지나온 길을 더듬어볼수록  
당이어 어머니여 그대를 생각하는 이 가슴 후더워  
오나니  
흠여지면 달려가 안아오고  
상처를 입으면 자신의 체온으로 품에 안아 아몰려  
준 품  
가는 바람 오는 바람 다 막아주며  
흔들림없이 억세게 우리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우  
리 당

말없는 진심으로 우리에게 진심을 안겨주고  
한없는 인간애로 우리에게 사랑과 의리를 배워주고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불타게 해준 우리 당

빠져린 깨우침을 받아안은 밤 우리는 돌아와 발편  
잠을 잤건만  
가슴아파 새벽까지 잠못이룬 아버지 그 마음  
철들어 그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눈물고인 가슴에  
스스로 의리와 량심의 아픈 채찍을 엮었나니  
우리를 믿어주고 불러주며 자신의 가장 가까운곳  
에 세워준  
그렇듯 위대한 당 위대한 품은 이 세상에 없어라

나는 바라보노라  
저 멀리 황색구름이 떠도는 땅  
지식은 필요한 열매로 거두어들이고  
지식인은 열매없는 나무처럼 바람부는 들판에 내  
버려지는 그 참상들을  
한때 사회주의를 노래하던 인테리들  
나서자란 땅에 끝내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설피 등지를 들고 한 여름을 난 계절조처럼  
다른 세계의 하늘로 날아가고있어라  
빛을 꺾고 한적한 초원길을 걸어가고있어라

아 당이어 어머니품이어  
내 정든 집 한생을 후회없이 살 내 삶이 뿌리내린  
곳이어  
그대앞에서만은 오직 그대앞에서만은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온 머리 흰 로학자도  
세상만물우에 자기를 세워놓고 종횡무진 사색의  
준마를 달려가던 로작가도  
말없이 경건히 머리숙이나니

믿음이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사랑이면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우리 아노라  
우리의 모습이 금빛찬란한 빛으로 당기에 새겨져  
누리에 자랑높이 휘날리고있거니  
저 빛이다 저 빛이  
과학자여 교수여 그대의 모습이다  
건축가여 의사여 현장기사들이여  
그대들과 가슴터놓고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시인인 나의 모습이다

크나큰 믿음에 넘쳐 그대를 우러르노라 당이어  
산갈은 파도머리를 타고넘으며  
자기가 정한 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의 용맹한  
타수여  
단결된 로동자, 농민의 미터운 함대와 함께  
남들이 못가진 충직한 인테리의 함대가 그대를 끝  
까지 옹위해가려니

폭풍이여 불테면 불라  
 형형색색의 미친 바람이여 회오리쳐보라  
 그 어떤 힘도 유혹도  
 당기의 붉은 바탕에 수직으로 서있는 우리의 붓을  
 기울게는 못하리  
 우리의 붓은 우리 당을 위해서만 우리가 든 혁명  
 의 무기  
 그 누가 다른 사상 다른 목소리를 우리에게 강요  
 한다면  
 알아두라 이 붓은 원쑤를 무찌르는 총창이 되리라  
 는것을

높이 들자 붉은 당기와 함께

인테리의 이 금빛붓을  
 높이 들자 진리를 새기며 투쟁하는 붓 전진하는  
 이 붓을  
 160 만인테리대군이여 화불처럼 이 붓을 높이 들어  
 저 하늘에 밀려오는 검은 구름에 혁명의 불을 달자  
 누리를 주체로 물들이는 이 붓으로  
 세기에 영원할 노래를 새겨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1992. 11. 5.)

## 《사령관동지 !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리동후

어느덧 밀림속에 날은 밝아  
 서둘러 마음 다잡고 떠나시려나  
 험한 령길과 가시덤불길  
 살벌한 적후의 먼길을

공작임무 받아안으시고  
 사령부를 멀리-  
 굳은 맹세 다지고 떠나시는 심중에  
 그 어이 아쉬움 없으시련만  
 결연히 천막을 나서신 김정숙동지

깜장치마에 진분홍저고리  
 산뜻하고 단정한 차림새  
 얼마나 잘 어울리는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움과 소박함이  
 그이의 온몸에 어려있는것인가

눈시울 뜨거이  
 사령부의 문을 나서실제  
 -잘 다녀오라, 성공을 바란다고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한량없는 그 믿음  
 가슴속 깊이 간직하신 어머니

우려려 경건히  
 장군님 영상을 우려려  
 티없이 순결한 진정을 안고  
 깊이 머리숙여 드리는 인사여

《사령관동지!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아, 김정숙동지께서 아뢰이시는  
 짧은 그 한마디에  
 얼마나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념원이  
 샘처럼 솟구쳐 솟아났던가

사령관동지께서 건강하셔야  
 광복의 환희로운 봄이 오고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거니  
 그이의 만수무강  
 그것은 김정숙동지의 최대의 숙원!

어머님께서 그토록 받들어모신  
 혁명전사의 신념화된 그 녀이  
 이 강산에 메아리로 울려오는  
 축원의 그 인사

아, 오늘은 대를 이어 드리는  
 만수축원의 노래로,  
 인류의 념원 세기의 속망이 고인  
 영원한 송가로 우리 받아안았어라

《아버이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의 생활체험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데 따라 많이 좌우된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 현실체험이 낳은 열매

은혜로운 향도의 빛발아래 만발한 소설문학의 화원속에 한송이의 꽃으로 향기를 풍기고있는 장편소설 《새봄》 역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에 의하여 시대의 성과작으로 창작완성될수 있었다.

한 작가가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을 반영한 장편소설을 쓸데 대한 과제를 받은것은 여러해전이었다.

그는 흥분을 안고 창작을 시작하여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면서 고심분투하였으나 끝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예총산하 창작가들의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모임에서는 지난 시기 창작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이 심각히 분석비판되었는데 장편소설 《봄의 서곡》(새봄)도 레외로 되지 않았다. 작가는 불명예스럽게도 부진작가로서 누구보다도 심각한 자체총화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작가는 작품으로써 당과 혁명에 이바지한다. 그런만큼 작품을 내놓지 못한 작가는 대오에 서있을 자격조차 없는것이다.

모임이 계속되는 기간 작가는 겉잡기 어려운 빈민속에서 모태기였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자기가 왜 소설창작에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깨닫지 못하였다.

1972년 9월초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회의에 참석하시어 그간에 진행된 모임을 결속지어주시면서 문학예술전반 특히 혁명문학건설에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창작가들이 개성적인 작품을 들고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그들이 열정에 불타지 않고 박식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창작가들이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창작가들이 현실을 떠나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으며 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

성의 원칙을 구현할수 없으므로 모든 창작가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작가는 가슴이 뭉클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이 바로 자기를 녀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같이 생각되었던것이다.

현실체험, 바로 그것이였다.

지난 시기 소설을 읽고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놓고보면 토지개혁이라는 거창한 변혁과정이 생동하게 산 인물들의 형상으로 안겨오지 않는다는것이었는데 이것은 작가의 그릇된 현실체험에서 오는 결과였던것이다.

사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하여 농촌에 현실체험을 나가기에 하였으나 많은 경우 리당위원회나 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아니면 작업반선전실에서 초급일군들과 마주앉아 신통한 이야기거리만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러니 농장원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갈수 없었으며 따라서 땅냄새 구수하게 풍기는 소설을 쓸수 없었던것이다.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하며 현실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세울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작가는 새로운 결심밑에 농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실속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하리라 굳게 결심한 작가는 그 순간부터 작가이며 농장원이 되었다.

작가는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의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다시금 깊이 학습하는것으로부터 새 생활을 시작하였다.

낮에는 농장원들과 함께 모를 내고 김을 매기도 하였으며 밤에는 장편소설의 초고를 다시 써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은 작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며 거대한 생활력으로 꽃피었다.

작가는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친숙해진 작업반원들속에서 동형근, 장과부, 문태갑 등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원형을 찾아낼수 있었으며



대장간장면을 비롯하여 생동한 화풍으로 안겨오는 여러 장면들의 묘사도 구체적으로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었다.

작가는 현실속에서 장편소설 초고를 내놓았다.

그후 작품의 운명을 놓고 마음조이고있던 작가는 뜻밖에도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가에게 우산장창작실에서 전적으로 작품의 추고작업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시었다는것이다.

후에 안 일이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가 제출한 소설의 초고가 일정한 수준에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듯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신것이였다.

작가는 풍치아름다운 휴양지, 온갖 조건이 다 구비된 우산장창작실에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작품을 수정완성하였다.

1976년말 장편소설이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린아기의 성장을 두고 기뻐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빨리 공장에 넘겨 초판을 인쇄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한때 창작부진으로 붓을 놓을수밖에 없다고 손맥을 놓았던 작가를 현실속으로 이끌어주시고 청춘의 열정을 주시여 보람찬 창작의 길에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자애로운 사랑에 작가도 일꾼들도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후 초판이 나오고 또다시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봄의 서곡》 초판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고받으시고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작가가 미처 판단하고 결심하기 어려운 문제의 방향을 명철하게 제시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에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더 잘 살리며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결합에 대한 사상을 명확하고 진실하게 그릴데 대해서와 생활세부들을 잘 살려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의 제목도 《봄의 서곡》대신에 내용을 한마디로 대변

할수 있으면서도 농민들에게 친근감이 나고 누구에게나 사랑스럽고 생동하게 표상적으로 안겨오게 《새봄》으로 고치도록 하여주시었다.

《새봄》! 얼마나 많은 뜻을 담고 보람찬 희망을 상징하는 제목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새봄》을 공화국창건 30돛기념도서로 출판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책이 나왔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시여 작가로 하여금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게 하시였다.

감격도 새로운 1978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작가들의 정치강습에 참가하고있던 작가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피 큰 장편소설 《새봄》을 친히 읽어주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주시었다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한 시바삐 작가에게 알려주고 그를 크게 고무격려해줄 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작가는 눈물을 머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한 일꾼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새봄》은 해방직후 토지개혁을 하던 시기 우리 당의 로선을 옳게 반영하였으며 극좌, 극우분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그때의 형편을 아주 잘 그린 좋은 소설이라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지 금 청년들이 해방직후 토지개혁을 하던 때의 실정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장편소설 《새봄》을 많이 읽고 토론도 하게 하라고 교시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새봄》을 청년들이 다 읽도록 신문에도 전재하고 방송에도 내보내도록 하라고 이르시었다는것이였다.

진정 작가자신도 더는 건질수 없다고 맥을 놓았던 장편소설 《봄의 서곡》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은정깊은 사랑속에 사상에술성이 높은 장편소설 《새봄》으로 새롭게 수정완성되어 시대의 명작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었다.

## 명제해설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새롭게 혁신하는데서 창작가, 예술인들이 옳은 창작방법, 창작태도를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김정일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새롭게 혁신하는것은 문학예술에서 언제나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문학예술의 사명과 목적이 내용과 형식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기때문이다.

여기서 창작가, 예술인들이 옳은 창작 방법과 태도를 가지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창작가들은 지난날에 쓰던 창작방법, 창작태도를 구태의연하게 되풀이하면서 우리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고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창작가들이 인물을 전형화하는데서도 지난날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인간과 생활의 예술적반영인 문학예술은 생활의 변화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한다.

인간과 현실생활은 문학예술의 생활적기초이며 사상예술적바탕이다. 생활이 변화되면 그 예술적반영인 문학예술의 내용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형식도 달라진다.

현실생활의 변화는 문학예술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생활적기초이며 현실의 변화발전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문학예술의 내용은 문학예술의 형식을 자기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발전시키는 기본요인이다.

여기서 창작가들이 옳은 창작방법과 창작태도를 가지고 일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시대, 같은 계급의 인물들가운데서 이 사람한테서 한가지, 저 사람한테서 한가지 특성을 따다가 작품에 설정된 어느 한 인물에게 집중시켜 전형이라고 내세우는것은 낡은식이다.

지금 일부 창작실천에서는 긍정인물인 경우 긍정적인간의 좋은 속성을 다 따다 붙이며 부정인물에게는 부정적인간의 나쁜 속성을 다 따붙이는 식으로 인물을 그리고있다.

그러다보니 긍정인물은 다 리상화되고 부정인물은 회화화되고있는 편향을 범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은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어 우리 사회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화목한 사회로 되고있다.

벽천 우리의 현실속에 들어가면 아름답고 격동적인 소행들을 곳곳에서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으며 영웅적이고 감동적인 소행들을 그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찾아볼수 있다.

보람찬 현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인가 꾸며서 전형을 창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본질을 외곡하게 되는 옳지 않은 창작태도이다.

일부 창작가들은 작품을 창작할 때 어떤 문제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인물성격과 생활을 기계적으로 들어맞추는것과 같은 도식주의적경향도 발로시키고있다.

그리고 또 어떤 창작가들은 작품의 구성단계에서부터 어떤 감동적인 생활에 마음이 끌려 작품을 쓰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사상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사상에 맞게 현실자료를 맞추려 하고있다.

이렇게 창작된 작품들은 그 모두가 작가의 주관에 앞서고 형상이 뒤에서 따르다보니 형상이 진실하게 안겨오지 않는다.

도식과 류형에 빠진 작품들에서는 생활에서 유리된 창작가의 협소한 안목과 기성의 틀을 절대화하는 의존심으로 하여 생활이 단순화되고 구성과 갈등이 판에 찍힌것으로 되며 인물들은 무개성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발전하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있는 새것을 기성의 틀을 가지고 대하여서는 찾아낼수 없으며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의 본질을 이미 창작된 작품의 제한된 형상세계를 모방하는것으로써는 제대로 밝혀낼수 없다.

인간성격을 똑똑히 잡아쥐지 못하고 생활을 발견하지 못한 창작가는 아무리 사상적의도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도식화된 사고방식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파고들 때라야 독창성으로 일관된 문제성있는 성과작을 만들어낼수 있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내자면 인간과 생활을 현실에 있는것과 같이 생동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여야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는것이다.

작품창작에서 낡은 틀은 대사를 람용하는데서도 나타난다.

지금 묘사문학이라고 하는 소설이나 행동의 예술이라고 하는 영화만 보아도 대사가 너무 많다.

소설만 보아도 대사가 지내 많고 묘사가 없기에 소설다운 체모가 갖추어져있지 않는것들이 적지 않다.

대사만 지나치게 람용할것이 아니라 소설의 기본수단인 묘사를 적극 살려씀으로써 소설의 특성을 더 잘 살려야 한다.

영화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인물의 심리와 활동세계를 깊이 파고들대신 계속 말만 주고받게 하니 사람들에게 마치 연극을 보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되면 대사를 기본 형상수단으로 하는 연극과 다를것이 없을것이다.

소설가, 영화문학창작가들이 대사형상에만 매달리고있는것은 자기 사상과 인물의 심리를 뚜렷이

표현하겠다는 주관적욕망에 있으며 또 대사를 쓰는 것을 묘사하는것보다 쉬운것으로 여기는것과 관련되어있다.

모든 창작가들은 지난 시기 작품창작에서 나타난 이러한 낡은 창작방법, 창작태도를 없애고 창작적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창작가들은 내용과 형식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새롭게 혁신함으로써 옳은 창작방법과 창작태도를 확립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 첫 눈

### 차영도

아늑한 창가엔 이슬이 맺혔는데  
따스한 온돌방엔 더운물이 흐르는데  
눈이 내린다  
통일거리 새 거리에 첫눈이 내린다

뉘라서 이 눈을  
무심히 맞으랴  
거리가 생겨, 마을이 생겨  
처음으로 맞는  
새해의 첫 눈

눈이 내린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새 거리  
층층이 하얀 집 하늘에 닿고  
창문들이 구름속에 얼굴 비치니  
정말로 지척인듯 가까운 하늘  
그 하늘에서  
정겹게 보내주는 기쁨의 《손님》

눈이 내린다  
소리도 없이  
하염도 없이  
즐비하니 늘어진 가로등우에도,  
가로수 가지에도, 그아래 두줄기궤도우에도  
자꾸만 내려앉는 하얀 눈송이...

어느덧 한해 가까이 살아온 거리  
생활의 자욱은 아랫한 추억인가  
새집들이 그날부터  
한해도 못되는 세월속에  
생활은 얼마나 많은 자욱 남기었느냐

눈이 내린다  
아침마다 녀인들이 물을 주던  
햇뿌리 정히 내린 잔디밭에도  
새 인민반이 애써 힘을 모아  
갓 꾸린 아이들의 유희장에도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내린다  
아이들이 노래하며 학교가는  
그 작은 발자욱우에도  
아니면 그 어느 현관문을  
수줍게 머리숙여 나서는  
행복한 이 거리의 새색시 머리우에도  
축복의 미소인듯 눈이 내린다

아, 정녕  
한해도 못되는 새 거리, 새 마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생활의 단맛  
이리도 큰것인가

눈발속의 푸릿한 저 끝없는 공간속으로  
또다시 일떠서는 3 만세대 살림집  
그 무수한 창문들이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안고 마주오는 행복이여

아, 정말로 이 통일거리에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실어주시려  
여기 남기신 친애하는 그이의 거룩한 자욱  
그 자욱우에 얼마나 많은 생각 없으며  
이 거리에 첫눈이 내리느냐!

##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고

### 참가자들

최영화 《김일성상》 계관인 문예총중앙위원회 제 1 부위원장

강능수 4.15 문학창작단 단장

김하명 《김일성상》 계관인 원사, 교수, 박사,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소장

신구현 교수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현종호 교수, 박사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최길상 조선문학창작사 평론실장

### 본사기자

**기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문학은 80 년대를 거쳐 90 년대에 찬란히 개화만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이전 쏘련과 동구라파나라들의 문학은 지금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사회에 각종 범죄가 성행하게 만들고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양식과 패륜패덕이 판을 치게 함으로써 인간학으로서의 자기의 신성한 가치가 여지없이 손상당하고있습니다.

이 얼마나 판이한 두 현실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우리 문학의 현실태를 천재적예지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당, 국가, 인민무력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가운데서도 1992년 1월 20일 《주체문학론》을 집필하시여 세상에 발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받아안은 감격과 흥분 속에 이야기를 나누고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가셔도 영원불멸할 문학의 대강 《주체문학론》을 받아안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남달리 류다르리라고 봅니다.

**강능수:** 그렇습니다.

나는 요즘처럼 우리 작가들이 비상한 탐구와 창조적열정으로 가슴불태운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작가들모두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 심취되고 매혹되었습니다. 작가들이 심취되고 매혹되면 환상이 나래치고 비상한 창작적열정을 낳게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사상과 리론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문학론》은 심오한 사상과 독창적인 리론, 세차게 굽이치는 시대정신과 진리성으로 하여 자주시대의 문학,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주체문학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근본원리와 원칙,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인류문학상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대백과전서적인 문학리론총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리론의 진면모와 진리성, 위대성을 남김없이 파시한 불멸의 기치이며 문학의 대강입니다.

**김하명:**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새로 저술하신 《주체문학론》을 받아안게 된것은 우리 주체문학예술과 문예과학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며 대경사로 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에 구현하시여 주체의 문예학을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한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시키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은 선행시기 문예관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구별되는 참다운 문예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하명:** 저 역시 동감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예관이라고 할 때 문학예술을 어떤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어떤 립장에서 대하는가 하는것을 말하는데 지난 시기 많은 경우 미학적견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력사의 새 시대는 새로운 문예관을 요구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며 그것은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문예관이라는것을 원리적으로 인류문학상 처음으로 밝힌 독창적인 정식화를 주시였습니다.

고전적로작에는 주체의 문예관의 본질적특징, 기본요구, 문예관의 기본척도 등 문예관을 창작활동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강조되어있습니다.

주체의 문예관은 문학예술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서 로동계급적성격을 체현하고있으며 문학예술에서 민족적특성을 구현할것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

의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문예관입니다. 주체의 문예관에서 기본핵을 이루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에 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 아름다운것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름다운것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은 정말 새롭다고 봅니다.

문학예술작품치고 아름다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것이란 없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고찰하지 못한데로부터 미의 기준을 객관적 사물현상의 속성에 있다고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체의 문예관은 우리 시대의 미의 기준을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의 하나인 자주성에 있다고 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인간의 생활과 투쟁을 아름다운것이라고 밝히고있습니다. 이것은 문학현상을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주체적문예관에서 독창적으로 밝힌 새로운 미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문예관을 세우는 사업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과 뗄수 없이 련관되어있는것만큼 창작가가 붓을 놓는 마지막순간까지 한생을 두고 꾸준히 완성해나가야 한다는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이 장에서 새롭게 천명된것은 주체성을 문학의 생명으로 규정한것입니다.

지난 시기 주체성이란 말을 써왔지만 주체적문예리론에서 《주체성》이란 범주가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고 문학작품창작에서 그렇게 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똑바른 인식이 없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에서 주체성이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으로서 민족문학의 얼굴이고 정신이며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것은 문학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기본담보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습니다.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사회주의 문학예술창작에서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할수 있게 되었으며 문학예술작품의 분석평가에서 보다 완벽한 지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온갖 반동적인 문학사상조류에 대한 신랄한 분석을 주시여 우리 문학이 그 어떤 사상에도 오염되지 않는, 주체성을 확고히 구현한 주체의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전적로작에서 주체의 문예관에 관한 사상이 전면적으로 독창적으로 새롭게 제시됨으로써 오늘의 견지에서 시대와 문학과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해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은 우리 시대에 가장 옳은 해답을 주는 문예관으로서 우리 문학의 근본문제로 됩

니다. 바로 이 주체문예관이 로작의 전체계를 관통하고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신구현:**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민족문화유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통찰하시고 우리 시대의 문예관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시여 유산과 전통의 호상관계,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와 계승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폭넓게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내 나이 80이 되도록 수많은 명저서들을 거의 다 보아오지만 이번처럼 내 심장에 청춘의 활력을 부여주는 사상리론은 처음입니다. 청춘의 열정을 되찾은듯싶습니다. 수십년동안 조선문학사연구에 한생을 바쳐오면서도 미처 발견할수도, 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집대성된 완전히 독창적이며 고전적인 리론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 《유산이 있고 전통이 있다.》

이 고전적정식화는 오늘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대하고 옳게 평가하며 그속에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고찰할데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고있습니다.

유산이 있고 전통이 있다, 이 얼마나 짧은 말속에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있는것입니까.

민족문화유산은 그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것과 보존해두기만 할것이 있으며 없애버려야 할것과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 바로 전통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문화유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창조된 혁명적문화유산도 있고 그 이전시기 선조들이 이룩한 고전문화유산도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민족문화유산의 핵이며 중추일뿐아니라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의 원형이며 그 명맥을 이루는 피줄기이며 만년초석이며 그 가치와 생활력에서도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룬다는데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정식화는 철두철미 주체적민족관에 관한 사상을 토대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로작의 유산과 전통부문에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과 함께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바로 평가할데 대한 리론도 실천적으로 전개되어있습니다.

정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유산과 전통에 대한 주체적인 사상을 받고보니 감회가 깊어집니다.

지난시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와 계승을 주체적립장에서 하지 못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날 문학연구사업을 해오면서 기성리론에 사로잡혀 유산과 전통을 고찰한 결과 그것

을 인연이 없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릇되게 해석하였으며 그대로 교육사업에 도입해왔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화유산을 구라과문학발전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우리 문학발전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번에 《주체문학론》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문학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장 옳바로 가지게 되었으며 주체적문학예술은 주체성을 생명으로 민족적바탕우에서 가장 건전하게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자:** 정말 지난날 력사에 파묻히었거나 사람들의 기억속에 희미해지었던 작품들이 새롭게 개척되어 우리 문학이 풍부한 대화원을 이루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산과 전통에 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예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주체문학론》의 독창적인 사상은 3 장 《세계관과 창작방법》에서 더 뚜렷이 확증되고있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주체사실주의로 선포하신것은 주체문학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지 않습니까.

**현종호:**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혁명적문학발전력사에서만이 아니라 인류문학사상사에서 도 실로 특기할 사변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창작방법은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며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력사는 주체사실주의의 력사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면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의 관계,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사실주의의 발생과 확립과정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오면서도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질적차이를 보지 못하고 종전의 개념과 같은것으로 리해하여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사실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발전시키신 창작방법이라고 명시하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문학이 의거하고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경위에 있어서나 철학적기초와 미학적원칙에 있어서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방법,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사실주의는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발생하게 한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력

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습니다. 또한 유물변증법을 철학적기초로 한 선행시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달리 주체사실주의는 세계관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실주의가 선행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근본특징이 있는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사실주의는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이께서 창작하신 불멸의 고전적명작을 본보기작품으로 하여 형성된 창작방법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받아안게 된것은 주체사실주의를 지난날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단순한 계승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독창성을 기본으로 보면서 계승성을 결부시켜보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종래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귀중한 경험을 계승한 그자체보다 문학예술창작방법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고 더욱 발전시킨데 주체사실주의의 독창성과 혁신적의의가 있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사실주의의 본질적특징을 새롭게 밝혀주시였습니다.

지난날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서는 인간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보고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력사발전에서 그들의 역할을 그리기는 했으나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문제를 옳바로 해명할수 없었습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을 그대로 체현하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선행한 창작방법의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 현실, 사회와 력사를 보고 자주성을 기본적도로 하여 전형화와 진실성의 원칙을 요구하며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을것을 요구하는 여기에 주체사실주의의 본질적특징이 있다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실수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헌을 받아안고보니 정말 앞이 탁 트이는데 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인류문예사에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문학의 창작방법을 주체사실주의로 선포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줄기는 더욱 빛나게, 굳세게 이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문학사적인 견지에서나 세계문예사적인 견지에서 볼 때 특이한 사변이며 우리모두의 크나큰 자랑으로 됩니다.

**기자:** 우리 문학이 오늘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활짝 꽃피나 대화원을 펼쳐놓게 된것은 바로 우리 식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집필하신 《주체문학론》에는 주체문학리론의 중요한 구성부분

을 이루는 문학건설의 지도리론뿐 아니라 문학령도 방법도 력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체계속에 정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영화:** 그렇습니다.

저는 문학대강 《주체문학론》을 탐독하면서 다시 한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예 사상과 리론의 독창성과 천재성, 위대성에 대하여 절감하게 되었으며 매일매일 그이의 령도를 받으며 일하는 긍지와 영광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됩니다.

매장과 절마다에서 그리고 매 글줄과 구절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광채, 참으로 이것은 우리 주체문학의 참모습과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빛발인것입니다.

당의 령도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생명선이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명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생명문제를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혀준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견지에서나 오늘날 세계적인 판도에서 로동계급의 문학실태를 놓고보나 실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명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생명체를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는 당의 령도가 없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을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

당의 령도를 충실히 받고있는 우리 주체문학은 날이 갈수록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인간학으로 끊임없이 개화발전하고있으며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철저히 실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이 빛나게 건설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부르조아가 복귀된 나라들에서는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자유화》 함으로써 문학이 반동적인 사조에 오염되어 혁명적이고 로동계급적인 본성을 잃게 되었고 결국에는 썩고 구린내나는 부르조아반동문학의 시궁창속에 깊이 굴러떨어지고말았습니다.

얼마나 판이한 두 현실입니까.

이러한 현실은 당의 령도가 혁명적문학의 생명선이라는것과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문학사업을 〈자유화〉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로동계급의 문학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것이 결판지어진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설득력있게 확증하여주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이러한 력사적교훈을 강조하시면서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3위 1체를 이루는 당, 문학예술행정기관과 문예총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작가는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가라는 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였습니다.

특히 우리 작가는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서 당 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당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찰자가 되는 바로 여기에 기존관념의 작가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나라 작가의 본질적특성이 있다는것도 새롭게 천명하시였습니다.

새롭고 독창적인 명제들로 수놓아진 글줄들을 읽어나가노라면 마치 팔팔 솟구치는 맑고 정갈하고 시원한 샘물을 들이키는것처럼 머리가 신선해지고 두뇌가 새 진리로 가득차입니다.

정말 《주체문학론》은 기존 문학리론이나 사상으로는 결코 말할수 없는 완전히 우리 식의 문학리론과 사상으로 충만된 주체문학의 대리론총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헌을 보고나면 우리 작가들이 문학작품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우리 문학의 형상원천, 형상원리, 형상방도가 환히 안겨옵니다. 매 장마다 새로운 진리로 가득찬 명저작중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작의 《사회정치적생명체와 문학》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규정하신것은 문학창작활동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강능수:** 정말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전에 혁명의 주체를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문학예술분야에 구현하시여 우리 문학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해주셨습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 이 얼마나 수천년동안 인류문학이 바라고 바라던 문제입니까.

예로부터 문학은 인간과 생활을 자기의 형상원천으로 삼아왔고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때마다 문학의 기본형상대상에 대해 수없이 론의를 하였으나 자기의 옳바른 영원한 형상원천, 형상대상을 찾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시대의 영원한 형상원천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습니다. 하여 우리의 문학은 이때까지 인류문학이 대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 온 사회가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위대한 현실을 형상원천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우리 문학이 오늘은 물론 미래에도 영원히 형상원천으로 삼고 시종일관 옹호하고 복무해야 할 항구적인 대상입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삼는 데서 중요한것이 수령, 당, 대중의 3위 1체의 원칙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밝힌 이 사상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특히 로작의 4 장에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함에 있어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주체문학건설에서 수령형상이 가지는 의의와 수령의 위대성형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작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와 관련한 사상과 이론의 집대성이며 하나의 완결된 수령형상론이라고 봅니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는 당의 작가라면 누구나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이지만 특히 4.15 문학창작단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관건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고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을 창조한 작품은 있었으나 수령형상창조와 관련한 창작리론을 정식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문학의 제일주인공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이라는 것과 함께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며 수령, 당, 대중의 3 위 1 체를 형상에 실현할 데 대하여, 그리고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릴 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을 뿐 아니라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예술적생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습니다.

로작에는 인민대중속에 계시는 수령, 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박고 수령의 경도를 받는 당, 수령과 당의 경도를 받으며 충성과 효성을 발휘하는 인민대중,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그릴 데 대한 사상이 맥박쳐 흐릅니다.

이처럼 《사회정치적생명체와 문학》에서 밝혀준 사상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꽃피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할 수 있는 창작의 지침으로 됩니다.

**기자:** 정말 《주체문학론》은 종자와 성격창조, 구성, 언어형상 등 창작실천상의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것으로 하여 우리 창작가들의 지도적지침으로 됩니다. 5 장 《생활과 형상》이 바로 문학작품창작의 형상원리에 대한 사상, 창작리론입니다. 특히 작품의 진실성과 철학성, 문학의 지성세계와 관련한 사상은 매우 새롭고 독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길상:** 저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많은 로작들과 문학예술작품들에 대한 탁월한 지도를 통하여 작품의 종자에 대한 리론을 비롯하여 문학의 형상원리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체문학론》을 집필하시어 종자론을 비롯하여 《성격문학이나, 사건문학이나》, 《형상의 힘은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여야 한다》, 《구성이 좋아야 작품이 산다》 언어형상에 이르기까지의 문학

의 전반적형상원리들에 대한 보다 심오하고도 과학적인 분석과 해명을 주신 것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활동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됩니다.

로작을 받아안기 전까지만 해도 작가들속에서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론쟁도 많이 하여 왔습니다. 특히 일부 작가들은 작품이 진실하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지성도가 높아야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을 수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본질에 대한 파악이 없다보니 창작실천상에서는 적지 않은 오류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누구도 올바른 원칙적방도문제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주체문학론은 형상의 힘은 작품의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밝히고 진실성과 철학성, 문학의 지성도의 본질과 척도를 통속적으로 철학적 해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문학론》은 주체문학의 형상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밝혀준 창작의 백과전서이며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전적로작 여섯번째체계인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은 우리 문학을 다채롭고 풍만하게 꽃피워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리정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 로작에는 문학의 모든 형태의 특징과 그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문학창작실천과 관련한 완벽한 대저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최영화:** 그렇습니다.

아직 그 어느 저명한 문예리론가도 이렇게 창작실천상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적은 없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문학론》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의 우리 시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며 생명인 서정성을 살릴 데 대하여서와 시인의 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시문학의 음악성을 살리는 데서 나서는 창작실천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문학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조형식을 잘 살리고 단시, 담시, 교훈시, 풍경시, 가사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인들도 기성관념에 포로되어 상상도 못한 주체의 시문학론입니다.

**최길상:** 또한 《주체문학론》은 주체의 소설문학론, 아동문학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작은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인 소설문학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벽소설, 서한체로 된 소설, 일기체로 된 소설, 의인화된 수법으로 씌여진 소설, 운문소설, 지능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개척해야 한다는데 대해 새롭게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로작은 아동문학을 어린이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창작리론문제들과 그 형태도 새것을 좋아하는 어린이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내용과 형식이 다채로와야 한다고 밝힌 주체의 아동문학창작리론입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번 로작에서 작가라면 평생에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좋은 수필을 적어도 몇편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텔레비존극문학을 여러 형태에 걸쳐 새롭게 개척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문학운동에서 평론이 노는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큰 의의를 부여하시오 우리 식 평론의 특성을 잘 살릴데 대한 리론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우리 식 평론은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된 평론입니다. 이 고전적정식화는 우리 식 평론의 근본사명과 기본과업, 평론의 사상적기초가 무엇인가를 밝혀준 고전적명제로 됩니다.

우리 식 평론은 작가와 작품을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는 평론이며 온갖 반동적이며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우리 문학에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전초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특히 평론이 곧 창작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시어 평론에서 발견이 있고 개성이 있으며 형식도 다양하게 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학창작리론을 받아안은 창작가들속에서는 지난 시기의 창작상오류를 말끔히 가세내고 시대정신이 강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생활과 형상,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에 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리론은 우리 창작가들의 창작활동에서 삼아야 할 좌우명이며 생명선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라는것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문학사업전반을 놓고볼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문학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해 말할수 없습니다.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화예술론》, 《가극예술에 대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를 집필하신데 이어 또다시 1990 년대에 《무용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주체문학론》을 집필완성하여 세상에 선포하신것은 우리 문학예술분야의 대경사이며 문학예술의 본령을 잃고있는 세계문학의 앞길을 환

히 밝혀준 세계문화사에 특기할 사변중의 위대한 사변입니다.

참말로 문학예술의 거장이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문예사에 그 어느 나라 지도자가 문학의 근본원리, 창작리론들을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이론총서와 같은 문예리론저서들로 집필완성한 일이 있었습니까. 문학사업에 대한 지도를 하였다고 해도 국부적인 현상이나 요소들에 대한 견해와 지도일뿐 전면적이면서도 폭넓은 문학리론으로 완성시킨적은 없지 않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70 년대로부터 1980 년대를 거쳐 1990 년대에 문학예술전반에 대한 수많은 명저작들을 발표하실수 있으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문학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데로부터 《축복의 노래》,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비롯한 본보기적인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였으며 20 대에 벌써 문학예술전반사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문학예술의 영재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시지 않았습니까.

정녕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문학예술의 거장중의 가장 걸출한 거장이시며 위인중의 가장 위대한 위인이십니다.

하기에 당, 국가, 인민무력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면서 1~2 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한부분도 아닌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예술론들을 집필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주체문학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문학명도의 정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92 년 5 월 23 일 문헌에서 《주체문학론》의 구현인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를 디딤돌로 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주체문학론》을 깊이 연구하여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주체문학의 대부흥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인자, 당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서의 우리 시대 작가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가장 옳바른 길이 아닙니까.

**일동:** 그렇습니다.

**기자:** 크나큰 기쁨과 환희 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받아안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창작과 창작지도사업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본사기자 신경애

## 거대한 날개

양의선

## 1

석양빛이 수도의 서쪽변두리를 붉게 물들었다. 무성한 나무잎새들속에서 갓 켜진 푸른 가로등불빛들이 린광처럼 빛을 뿜고있었다. 찌던 한낮의 무더위가 여름밤이 밀고오는 신선한 대기와 바뀌는 저녁녘의 가장 상쾌한 순간이다.

회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소리, 유난히 크게 울리는 자동차경적... 활기로 차넘치고 불빛으로 짙찬 거리였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레사로운 생활의 흐름속에 상서롭지 못한 표정을 지닌 두 남녀청년이 뛰어들어 못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들은 이 구역의 가장 변화가인 대극장로타리 왼쪽에 자리잡고있는 20 층 탑식아파트에서 빼여져나와 사람들의 흐름속에 끼여들었다.

30 살안팎의 청년, 그는 자그마한 러행용트렁크를 들었다. 굳게 다문 입술, 트렁크손잡이를 짝 부르친 손, 성큼성큼 내짚는 걸음발... 청년의 결연한 태도에 비해 그뒤를 따르는 처녀는 차비가 좀 급급했던 모양인지 옷차림이며 머리매무새가 잘 정돈돼 있지 못했다.

앞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재우쳐 마르던 처녀가 물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세요? 하루밤 주무시고 래일 아침차로 가면 편하실텐데...》

허나 남자는 스러져가는 노을쪽으로 눈길을 얼핏 들었다떨구며 그냥 걸을뿐 대답이 없었다.

《우리 집에서...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처녀는 슬픔과 의혹이 서린 눈길로 남자의 옆모습을 안타까이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소. 동무의 부모님들은 나를 극빈을 맞이하듯 성의를 다해줬는데...》

남자의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그럼 뭇때문에 그래요? 느닷없이 불쑥 일어나 트렁크를 집어들고 말이에요?》

《내 바빠서 그런다질 않소!》

보이지 않는 몽둥이에 얻어맞듯 처녀는 흠칫 몸을 떨었다. 걸음발이 석연치 않고 두눈동자가 저멀리 스러져가는 노을빛을 받아 애처롭게 떨고있었다.

《철우동무! ...》

처녀는 원망과 설움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되뇌었다. 그뒤엔 침묵... 이 침묵의 공간속에 거리의 소음도 잦아들고 저 멀리 비껴간 진한 노을빛이 이들의 마음속에 옮겨앉아 불태우고있었다.

(어째서, 어째서 우리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전에는 이러지를 앓았었다. 예전에는 언제나 그의 마음이 보옥이앞에 활짝 열려져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 활짝 열려있던 마음의 문이 저녁에 성문이 닫기듯 닫기였다. 그 두려운 침묵의 원인을 보옥은 알수 없었다.

오늘 일도 그렇다. 북부지구 어느 중요 전자기공장에 출장가는 길에 집에 들린 사위를 부모님들은 명절날처럼 맞이했다.

오래간만에 온 사위였고 금년 가을에 할 결혼식을 앞두고 의논할 일도 많았다.

보옥은 다가오는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후의 생활을 어떻게 꾸릴것인가 하는 공상이며 꿈이며 계획이 많았다. 첫날옷은 어떻게 지을것이며 어떤 가정집물들을 구입할것인가. 서가는 어떻게 꾸리며 문보는 미풍에도 흔들리는 모스링천을 칠것인가. 무게있고 정숙한 분위기를 돋구는 공단을 늘일것인가... 보옥이한테는 이런 오만가지 생각과 《걱정》들이 그대로 기쁨이며 꿈이며 행복이었다.

보옥은 집에서 있는 일들을 꼼꼼히 생각해보았다. 어머니와 자기가 철우동무를 가운데 앉히여놓고 지나치게 겨꿈내기로 지껄인감은 난다. 그래서 인지 옷방에 앉아 사위의 표정을 살피고있던 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그만들 하오. 하루저녁에 그 모든걸 다 토의하겠소. 출장길에 나신 사람을 좀 쉬게도 해야지.》 그리고는 사위쪽을 향해선 《머칠 폭 쉬고 가지. 휴식할줄 아는 사람이 일할줄도 안다는 말이 있소. 결혼준비를 위해서 보옥이랑 그 에미랑 무슨 계획이 많은가분데...》

허허... 생활은 역시 생활이거든.》 하고 웃었다.

그외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 이집 사위감을 본답시고 이웃들이 찾아오고 뒤이어 그에 따르는 음식 치닥거리가 좀 있었을뿐이다.

이런 일들때문에 기분나빠할 동무가 아니었다. 이것 역시 아버지 말마따나 생활이 아닌가. 흔히 있을 레사로운 일때문에 감정을 상해할 그가 아니었고 또 설사 어찌다 기분이 상했다 해도 그 기분을 로출시켜 불쑥 트렁크를 들고 집을 나설 그가 아니었다.

무엇인가 그의 가슴속에 커다란 불만이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자라나고있고 그 불만은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돼버린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보옥은 아직 그 불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있다.

(이 이상은 더는 못참겠어.)

하고 보옥은 스러져가는 노을빛을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바쁘다면 단가?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지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으면 못가.)

보옥은 철우가 든 트렁크를 붙잡고 걸음을 멈춰 세웠다.

《트렁크를 인주세요. 그러구 저 공원에 들어가 말씀 좀 하세요.》

《왜 그러우? 차시간이 바빠서 그런다질 않소?》

얼결에 트렁크를 빼앗긴 철우가 묻는 말이다.

《동무는 항상 바쁜줄 알아요. 허지만 오늘은 속 시원히 말해줘요. 저에 대한 동무의 심정을...》

저한테 이 이상 바쁘게 없어요!》

《뭘 말하라는거요?》

《...》

보옥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물이 눈굽을 넘어 님다. 노을빛이 비친 자기 얼굴의 처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였다.

《저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면... 속 시원히 말해주세요. 전 요즘 불안해서 더는 못견디겠어요.》

그들이 앉아있는 공원의자우에는 줄장미넝쿨이 엉켜있었다. 한창인 빨간 장미꽃송이들이 석양녘의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그 향기는 눈물이 날만큼 유난히도 보옥의 폐부를 찔렀다. 한것은 그들의 첫사랑도 이런 줄장미넝쿨아래서 맺어졌던것이다. 대동강 기슭의 여름밤, 무너져내리는 꽃향기속에서 두 청춘의 뜨거운 손길도 이 줄장미처럼 굳게 엉켜있었다.

《나의 방조자가 되어주오. 나의 심장속에 열도를 더해주는 나의 과학, 나의 미래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달라는거요! ...》

《이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옥은 공포에 가까운 의혹의 눈길로 철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방금 한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추억이 환영으로 되살아나 현실처럼 느껴진것이 아닌지!

보옥은 무엇으로 호되게 얻어맞은듯한 기분이였다. 분명 철우동무는 1년전 대동강기슭의 여름밤에 외웠던 그 말을 되뇌이고있었다.

남자의 그 목소리가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는 듯싶었다.

《나의 진실한 길동무가 되어달라고 했소.》

철우는 그것을 확인하듯 다시한번 되뇌였다.

1년전 그 여름밤, 철우동무는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때는 그 목소리가 꿀같이 달콤했었다. 사랑과 신뢰에 넘치는 그 목소리를 기쁨과 흥분이 없이는 들을수 없었다.

허나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울린 그 목소리는 보옥이한테 눈물과 절망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보옥은 분명히 고개를 쳐들었다.

《어째서, 어째서... 그 말씀을 오늘 저녁 저한테 또다시 외우시는건가요? 1년전 그때의 저의 대답으론 부족하시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날밤의 저의 언약이 모두 거짓이었구 헛헛세였단말인가요?》

《아니요, 모두 진실이었소.》

《그럼 어째서 그런 언약을 또 받으시려 하나요?》

《언약을 받느니 어찌니보다... 그저 그 말을 하고싶었소. 조용한 기회에 간절히 말요.》

보옥은 목이 메였다. 저이는 그 한마디 말이 지난 1년간의 생활, 사랑하는 처녀의 사랑과 행복, 자질구레해보이나 그이와 자신을 위해 설계되었던 모든 꿈과 계획들을 부정해버리는것으로 되는줄 알기나 하시는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보옥은 눈물에 젖어 뿌잇해지는 눈길을 돌려 멀리 스러져가는 석양빛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건 절 믿지 않기때문이지요? 천박한 말투 한해 지내놓고보니 제가 싫어졌다는거지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게 아니요.》

철우는 엄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허나 격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보옥의 걱정을 멈춰세울 수는 없었다.

《그럼 뭘예요? 무엇인가 불만이 있어 그러는게 아니겠나요? 예전엔 안그랬었죠. 현대 요즘엔 우울해하시구 마음을 주지 않구... 뭇때문에 그래요. 전 그걸 알고싶단 말이에요!》

《...》

《나는 알아요!》 하고 보옥은 부르짖었다.

《우리 집에서 랭동기요, 이불장이요, 옷장이요 할 때 동무는 잔뜩 얼굴을 찌프리고있었지요? 결혼식을 앞둔 집에서 웅당 있을수 있는 애기들인데두요. 생활은 역시 생활이거든요. 동무가 그걸 리해 못할 남자는 아니예요.》

문제는 당자가 싫어지면... 모든것이 다... 싫어지는거예요.》

철우는 보옥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생활은 역시 생활인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불야성을 이룬 수도의 전경이 펼쳐졌다. 밤하늘의 별들을 무색케 하는 수천의 아파트불빛들이 생각에 잠겨있는 철우의 눈길에 저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는것만 같았다. 저 창문들은 무엇을 속삭이고있는가? 수천수만의 창문들을 밝히는 저 불빛들은 그저 전등불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희열, 자기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저 하늘 성

좌들의 높이까지 쌓아올리려는 인간들의 영원한 지향의 불탑들로 보였다. 저 밝은 창문 하나하나마다에 깃든 웃음과 만족, 따뜻한 숨결, 그 어떤 뜻모를 걱정과 흥분조차도 수천수만 사람들의 하나같은 지향의 세계,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도의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있다.

그렇다. 생활은 역시 생활이었다. 거창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저 불빛의 대하앞에 누가 감히 그것을 부정하랴. 철우자신도 그 장엄한 흐름과 화음앞에 가슴이 부풀고 기꺼움과 행복에 넘친 자기의 목소리를 합치고싶었다. 하건만 그같은 말이 자기의 운명과 가장 밀접히 얽혀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왜 자신은 그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못마땅해했는가?

자기가 보옥을 피뎌놓고있다는 생각, 여의치 않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상태때문에 처녀가 불안해하고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지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웁소. 동무 아버님이 그렇게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충고해주고있소. 하지만 그러한 생활에 대해선 동무도 나도 좀 두고 생각해봅시다. 오늘은 바쁜 나의 길을 띄워주소.》

철우는 트렁크를 들고 일어섰다.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충동이 그를 출장지로 떠밀고있었다. 한시바삐 목적지에 달려가 지금 조립중에 있는 수치조종종합선반기를 앞에 놓고 탐구와 사색의 세계에 잠기고싶었다.

과학탐구와 사색에서 지나칠만큼 열정적인 철우는 생활에서도 그 어떤 아리송하거나 뜨뜨미지근한 《미지수》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들은 이것을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색과 탐구의 세계를 거쳐서만 기쁨도 행복도 되찾는데 습관된 그는 한시바삐 그 세계로 되돌아가고싶었다.

트렁크우에 덧없어졌던 보옥의 가냘픈 손길이 맥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역까지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걸어갔다. 철우가 승강대에 오르고 붕- 하고 기적소리가 울려서야 그들은 눈길을 마주쳤다. 그제서야 그들은 서로의 눈길속에서 이렇게 서둘러 그 어떤 서글픔과 의혹을 풀지 못한채 헤어져서는 안될 순간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련차는 이미 움썩 하고 움직이고있었다.

## 2

여름이 채 물러가지 못한 가을초입이지만 여기 북방의 산지대는 제법 색깔돈힌 단풍잎들이 한잎두잎 소연히 돋히는 계절이었다. 포장도로에 무늬처럼

놓인 단풍잎들을 백설같은 구두발로 자본자본 밟으며 ㄷ기계공장 합숙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처녀가 있다.

처녀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을 끌고도 남음이 있었다. 도시풍의 날씬한 몸매에 어울리는 말쑥한 옷차림이며 세련된 걸음걸이와 같은것때문만이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어린 해쓱한 얼굴, 초연한 자태와 한곳을 곳곳이 바라보는것 같지만 진한 속눈썹밑에 초점을 잃고 위태롭게 반짝이는 눈동자... 무엇인가 조금 다치기만 하면 넘쳐날듯싶은 슬픈 모습이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처녀는 합숙정문으로 다가가 무엇이라고 조용히 물었다. 그러자 접수실에서 강마르게 생긴 경비원로인이 황황히 뛰쳐나와 포도넝쿨밑에서 한창 장기를 두고있는 청년을 소리쳐 불렀다.

《여보게 성호, 이 녀손님을 료양소에 안내해드리게.》

《아버이가 직접 모셔다드리구려.》

성호란 청년은 고개도 들지 않고 뇌까렸다.

《임자, 이 손님은 과학원 연구사동무한테 오시는 귀한 손님이야!》

그 말에 청년은 장기판앞에서 닝큼 뒹겨일어났다.

《그렇다면 진작 그렇게 말할거지... 갑시다!》

청년은 지나칠만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줄곧 그 시커먼 눈으로 보옥을 훑어보며 연구사동무와는 어떤 사이냐, 직업이 무엇이며 어떤 사연으로 이 먼길을 떠나왔느냐, 얼굴이 해쓱한걸 보니 어디 편치 않느냐...

보옥은 더 참아내지 못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고마워요. 인젠 저혼자 찾아갈수 있어요.》

다행히도 산자드락길은 아늑한 골짜기를 향해 외줄기로 뻗어있었다. 깊숙한 골안의 한끝에 석양빛을 받아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장같은 건물 몇채가 마주보였다.

보옥은 이 한적한 산골길을 조용히 혼자 걷고싶었다. ...

보옥이가 철우를 처음 알게 된것은 인민대학습당 외국문서고열람실에서였다. 보옥은 그때도 그 열람실 도서대출원으로 있었다.

보옥은 며칠째 한 남자때문에 퇴근시간이 늦어지곤하였다. 그 남자는 열람시간이 펍 지났는데도 행뎡그런 열람실 한복판에 고개를 짓속이고 혼자 퍼더앉아있었다.

례의상 저런 《열성독자》들을 나무랄수는 없었지만 극장이며 영화관 갈곳도 많고 생활에 취해

있는 처녀대출원들한테 이런 손님들이 고깝기 그지 없었다.

보옥은 책이며 대출명세서, 카드같은것을 간직하며 책상너머 짓숙여진채 쳐들릴줄 모르는 머리를 아니꼽게 쓰아보며 혼자소리로 웅얼거렸다.

(보나마나 책뒤주겠지! 《최학신일가》에 나오는 수학쟁이처럼 생활엔 얼뜨기구 무뎡한 인간…

앞이 막히고 답답한 남자일거야. 처녀들앞에선 말 한마디 할줄 모르고 정서도 없는… 게다가 주위 감각이 무딘걸 보니 근시일지도 몰라!…)

멀리서 대출원처녀가 아니꼬운 눈길로 흘겨보며 온갖 험구를 다 퍼붓고있었던 그 《얼뜨기》, 《근시안》은 조금도 모르고있었다.

(저런 남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보니 어느 대학 기숙사생같은데 책에 미쳐 굶기를 떠먹듯할거야. 합숙도 식당들도 다 닫기전에 내가 깨우쳐줘야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손님앞에 아니꼬움을 이런 값늑은 동정으로 바꾸며 보옥은 그앞으로 다가갔다.

하나 열람탁앞에서 처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무언중 그 열람탁주변에 어린 자기마당처럼 형성된 고도의 긴장성에 놀랐던것이다.

열람자도 보옥이가 억측했던 《얼뜨기》요 《근시안》인 그런 류의 손님이 아니었다. 사색의 열정이 어린 서글서글한 눈빛, 번뜻한 이마와 짙은 눈섭… 억세고 지성적이고 호협한 얼굴을 탁상등 불빛이 엇비스듬히 비추주고있었다.

보옥의 눈을 끈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청년의 책상우에는 두개나라의 원서와 사전 참고서적들이 가득히 놓여있었다. 보매 청년은 두개나라 원서를 동시에 번역해나가고있었다. 보옥은 준박사이며 식물육종학자인 아버지한테서 본바가 있어 저런 학습방법이 얼마만한 긴장과 주의집중을 요구하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웬간히 억세고 명석한 두뇌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감당해낼수 없는 학습방법을 한갓 대학생에 지나지 않는 청년이 해나가고있는것이다.

보옥은 어느덧 자기를 잃고 그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고 서있었다.

《미안합니다. 저때문에… 퇴근시간이…》

렁빈 열람실을 둘러보며 황황히 사죄하는 청년앞에 보옥은 벌써 처음과는 전혀 판소리를 하고있었다.

《저의 호기심을 용서하세요. 동무의 학습방법이 하두 독특해서요…》

《공연한 호기심입니다. 여기엔 조금도 독특한것이 없지요.》하고 청년은 어쭙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인생은 짧고 시간은 적으니…》

보옥은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 소박하고 서툰 변명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열람탁에서 일어서자 청년의 모습은 달라졌다. 검은 눈섭과 서글서글한 눈빛이 한없이 소박하고 어쭙해보였다. 그것이 보옥의 마음속에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니예요. 하지만…》하고 보옥은 말하였다. 《동무가 택한 학습방법에두 일련의 결함이 있어요.》

《어떤 결함말입니까?》

청년은 물었다.

《억양이나 발음에서 근친성이 덜한 두개의 외국어를 택한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발음의 근사성이 외국어학습에서 서로 방해할 놀고 혼란을 가져오기때문이지요.》

하지만 문법구조만은 서로 가깝고 비슷한걸 택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건 뭇때문입니까?》

청년의 성급한 물음에 보옥은 방그레 웃었다. 희고 번뜻한 이마밑에 모아지는 짙은 눈섭, 불티가 살아나듯 대변에 번뜩이는 눈길… 학구적인 문제만 제기되면 천성적으로 조금하고 긴장해지는 성미의 청년이로구나 하고 보옥은 생각했다.

《문법구조의 근사성은 그 반대의 작용을 놀기때문이지요.》

(이것봐라!) 하고 그의 눈길은 이렇게 경탄하는것 같았다.

청년은 보옥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소! 정말 귀중한 경험을 가르쳐주어서 고맙소.》

보옥은 그가 너무 기뻐하는통에 꽃같은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띠고 말했다.

《별걸 다 가지시구… 그건 저의 경험이 아니랍니다. 언젠가 저의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을 동무한테 그저 옮긴거예요.》

《그저 옮기다니… 동무는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었소. 수많은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을 말요!》

알고보니 그는 리과대학 전자공학부 리철우학생이었다. 그는 여름방학을 평북도 어느 해변가에 있는 고향에 가지 않고 두어개의 외국어를 더 뽕셈으로 인민대학습당에 왔었다.

《저와 함께 가세요.》보옥은 그한테 잡힌 손을 빼내며 너성다운 배려가 담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쯤은 러관식당도 다 닫기였을거예요. 제가 철야식당을 한곳 알고있으니 함께 가세요.》

이날부터 보옥은 그의 충실한 방조자가 되었다. 문헌이며 사전같은것들을 빠짐없이 제공하는것은 물론 그 혼자를 위해 우정 일감을 만들어 열람실에 지체해있기도 하고 빵이며 음식가지들을 싸들고와 그가 끼니를 번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러느라 자연 그 천체같은 커다란 대학습당 건물에서 그들 둘이 맨 마지막으로 나서게 되군하

는데 그때마다 시계탑의 은은한 종소리가 그들을 바라주곤하였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자정이 넘은 수도의 거리를 나란히 걸어갔다. 불야성을 이룬 대동강반이며 거리들을 말없이 걷기도 좋았지만 보옥은 자주 그의 말을 듣고싶어 전자공학의 추세며 발전전망이 어떻냐는것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하였다.

그러면 그 복잡한 미지의 전자세계가 펼쳐지고 저 하늘의 별들처럼, 불야성의 흐름처럼 세기의 위대한 변혁을 가져올 과학의 세계가 펼쳐지는것이였다.

보옥은 많은 경우 그가 말하는 그 미지세계의 운동이며 법칙들을 이해할수 없었다. 아니 애당초 그런것들을 애써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보옥이가 그로 하여금 과학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게 한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난듯싶은 그 서글서글하고 어쭙고 소박한 표정이 씻은듯 사라지고 그 성격의 속박에서 벗어나 전혀 딴사람이 되는것이였다.

더우기 보옥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것은 그의 눈길에 어리는 황홀한 광채였다.

그것은 탐구어로 지향하는 열정과 사색과 지혜의 빛이였다. 그럴 때면 서글서글한 안광에 거대한 나래가 퍼덕이는것 같았다. 그것은 미래를 확신하고 줄달음치는 역센 정신적힘의 퍼덕임이였다.

때로는 그 나래의 퍼덕임이 너무나 거세고 조금 해하는것 같아서 겁먹은 눈길로 보옥은 바라보았다. 그것은 철우자신앞에 불명확한거나 모순에 싸인것, 이미 알려진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제기되었을 때 더욱 그러한것 같았다. 미지의 세계만이 그러한에서 들끓는 항거와 참을수 없는 조급성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이였다. 이런 청년이야말로 미래가 촉망되고 역센 나래를 지닌, 남보다 더 멀리, 그리고 높이 날수 있는 사람임을 보옥은 느꼈수 있었다.

그의 말을 언제나 숨가쁨속에 듣고있던 보옥은 한숨을 쏙 내쉬며 이렇게 말했었다.

《전 어쩐지 동무가 부럽군요. 목적이 뚜렷하고 열정적인 생활... 그런것이 저한테 적었어요.》

《그 지향이 중요하지요.》 철우는 고무하듯 말하였다.

《지향이 나래를 퍼면 날 의욕이 생기고 열정도 의지도 생깁니다. 락심할건 조금도 없지요.》

《저한테 그런 나래가 없어요. 동무와 사건 이 며 칠동안 자신에 대해서 절감한것이 그것이랍니다.》

혹시나... 남의 나래에 실려서 그의 충실한 방조자나 될수 있을런지...》

보옥은 이런 말을 뱉어놓고 가슴이 후두둑해왔다. 한숨과 함께 털어놓은 이 말속에 처녀의 기대와 희망이 깡그리 담겨져있었던것이다.

보옥은 검고 짙은 그 눈썹밑의 나래치는 눈길로 이미 처녀의 심장을 자기 심장의 자력권내에 너무 바투 끌어넣은 당사자가 도대체 그것을 알고나 있

는지 알아도 그것을 끄당길 용기가 있거나 한지... 그걸 알고싶어 깔금한 눈길로 남자의 표정을 흘려보았다.

한없이 부드럽고 심중해진 눈길이, 심장의 그 어떤 벽찬 의욕을 지그시 누른 눈길이 처녀를 지켜보고있었다. 남자의 그 눈길에 부딪치자 보옥의 온몸은 달아올랐다. 당황한 눈길과 수집음, 흥분과 불타는 뺨을 네온등불빛을 피해 나무그늘에라도 감추고싶었다.

《저 뻘썩에 가 앉으세요.》

보옥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미꽃향기가 무너져내리는 그늘밑에서 두 손길은 엉켜졌다. 그리고 두 마음도 영원히 엉켜졌다고 생각했었다.

《나의 방조자가 되어주오. 나의 심장에 열도를 더해주는 나의 과학, 나의 미래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오. 보옥동무!》

추억이 여기까지 미치자 보옥은 눈물이 글썽해났다. 달포전에 또다시 되뇌인 철우동무의 그 말을 듣고 피로웠던 마음이며 그 피로움과 의혹이 안겨준 불안을 이기지 못해 자기가 불원천리 여기를 찾아온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었다.

### 3

료양소 소장녀인도 길안내하던 청년 못지않게 수다스러웠다. 성호란 청년이 쉬임없이 묻는것으로 보옥을 괴롭혔다면 이 녀인은 자신의 인생체험과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일화들이 섞인 종잡기 어려운 역설로써 그를 괴롭혔다.

《에그, 일밖에 모르는 글서방을 섬기고살려면 속깨나 썩이게 됐수다. 녀자들 심정을 알아나줄라구요. 몸은 곁에서 우쭐거리두 맘은 항상 판데 가있지요. 혼자서 중얼거리구 눈을 데룩거리구... 종잡을수 있을라구요. 그런 사람의 녀편네구실을 좀 잘 못하단 식모나 머슴이 되구 말지요. 정성들인 음식 두 맛을 아나 햇숨이불을 덮어줘두 그걸 아나 이렇다할 칭찬 한마디 없지요.》

소장녀인은 침실문을 벌럭 열어제꼈다.

《자 보슈. 연구사선생방이우다. 달포나 빈방으로 있수다. 우리 아낙네들의 성의를 봐서두 하루이틀 들어와 주부실게지.》

인젠 됐어요. 체네가 왔으니 주부구실을 해보슈!》

정말 침실은 눈부실만큼 깨끗했다. 네모방정한 너른 방안에 침구며 책상이며 화분이며 어항이며 구석구석 료양소녀인들의 지극한 정성이 숨배여있었다.

《고마워요.》

보옥은 꾸밈섞인 녀인의 말을 진정 고맙게 받아들였다.

《어쩌면 이렇게도 정성들여...》

《고마울게 뭐 있수. 연구사선생이 하는 일에 비하면야...》 너인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계속했다. 《저기 전화가 있으니 주인을 불러들여 하루이틀이라두 휴식을 시키시우. 그럼 오히려 우리가 고맙겠수다.》

보옥은 전화통에 다가가 인차 송수화기를 들지 못하고 주춤한채 서있었다. 전에 없던 버릇이었다. 전에는 들길을 걷는 처녀처럼 철우앞에서 조금도 거침새없던 자신이였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이앞에서 이같이 망설이고 주춤거림은 어인 일인가? 문이 닫긴 성벽앞에 서는 심정이였다.

그는 잠시후에야 송수화기를 조심히 들어올렸다.

《네-어딜 찾습니까?》

교환대처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귀전에 울렸다. 보옥은 또다시 쭈뼛거렸다. 철우동무가 어디서 일하며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것이다.

《저... 리철우라구 과학원에서 온...》

《네, 알겠어요. 수직조종선반 조립직장이예요.》

교환수의 유난히 반기는 목소리였다. 교환대에서 접속구를 옮겨쫓는 짧은 순간에도 보옥은 가슴 찢어진 슬픔을 느꼈다. 여기서는 누구나 그이를 관심하고있다. 공장합숙에서도 그랬고 여기 료양소에서든 그랬고 교환대의 낯모를 처녀조차 그이 이름만 들으면 친지를 대하듯 반갑게 대해준다. 자기의 이번 면회가 그저 떼사로운 면회였다면 이 사실로 하여 마음이 얼마나 기뻐졌으며 긍지로 차넘쳤으랴. 그러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두고 가궁하게 여겨졌다.

《누구십니까?》

무뚝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보옥은 한순간 목이 메어 대답을 못했다.

《누구십니까? 빨리 말씀하시오.》

(그저 여기서도 빨리, 빨리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반발감이 보옥의 입을 쉽게 열수 있게 하였다.

《저예요!》

《저라니? ...》

《인젠 목소리마저 못알아들으시는구만요.》

《아! 보옥동무요? 어떻게 여길 다 왔소? 무슨 일이 있었소?》

(무슨 일이 있었느냐구요?) 하고 보옥은 생각했다. 한 너인의 신상에 실린 의혹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피로운줄을 저리도 몰라주다니...

보옥은 그가 수화기를 당장 쥔것지고 달려와주길 바랐다. 달려와 저 문을 열어제끼고 와락 끌어안아주었으면... 그가 기차를 타고 고달픈 이 먼먼길을 오면서 차후 일을 더듬어보며 바랐다면 바로 그 래주길 바랐을것이다. 그러면 보옥의 가슴속에 쌓

이고 쌓였던 근심과 설움, 고뇌와 의혹이 그 한순간에 씻겨져 달아날것이다. 사랑에서도 역시 말보담 실지 행동이 몇배나 더 힘있는 법이다. 그이가 달려오고... 끌어안아주고... 날 무척 그리워했다는것만 보여주면... 보옥은 수화기를 귀에 꼭 붙인채 눈을 감고 기다렸다.

《보옥동무! 반갑소. 당장 달려가고싶소.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지금은 최종시험단계요. 내 갈 때까지 기다려주 꼭...》

보옥은 목이 메어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오늘저녁에 와주세요. 전 오늘저녁에 필요해요.》

그리고는 서둘러 수화기를 놓았다.

석양비긴 창밖을 내다보았다. 환히 트인 골짜기 앞 저 멀리에 기계공장전경이 보였다. 달려오면 삼십분도 채 못걸릴 거리였다.

그 길은 텅 비어있었다...

석양빛이 사라진데 뒤이어 고요히 떠오른 달빛이 그 길을 비치고있었다. 글썽해보이는 별들이 고적한 그 길에 이슬을 돌리고있었다.

고달픈 밤이었다. 침대머리에 오도카니 앉아있는 보옥이한테는 밤의 한순간한순간이 이처럼 가슴에 사무치게 안타까이 느껴지며 흘러감은 일생에 처음이었다. 기대와 노여움, 절망의 교체속에 온밤 그는 뜬눈으로 새웠다.

동녘이 희유스름히 밝아오며 빨간 빛갈로 물들여갈 때 그는 더욱 처절한 슬픔에 젖어들었다.

그는 맥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트렁크에서 가을철내의류들과 필수품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머리맡에 포개놓았다.

헐썩한 얼굴로 한참동안 막연히 서있던 보옥은 신경질적인 동작으로 원탁우에 종이 한장을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내키는대로 만년필을 거칠게 옮겨갔다.

철우동무!

저에 대한 동무의 심장이 멀어진줄 안 이상 더 기다리지 않겠어요. 동무의 마음을 알자고 불원천리 달려온 제가 어리석었어요. 모든것이 뻔한걸요. 동무한테 저와 상관이 없는 다른 생활, 다른 행복이 있어요. 그걸 몰랐던 제가 바보였어요. 이 작은 가슴을 그 모멸감으로 태우고 적시며 밤을 꼬박 새웠어요.

하지만 어찌겠나요. 저는 동무의 그 행복을 눈물로 축원하며 동무결을 소연히 떠나갑니다. 부디 몸성히 계세요!

보옥 울림

보옥은 대합실을 나서서 표받는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눈앞은 뿌옇하고 몽롱하게 보였다. 누군가 그의 옆을 성급히 뛰어가다가 트렁크를 떨궈 놓고는 황황히 사죄했으나 보옥은 기계적으로 집어 들고는 추연히 앞만 바라보며 걸었다.

서둘 필요도 없었다. 기대와 흥분을 안고온 먼 길이 공허한 공간으로 그의 앞에 남아있을뿐이었다.

난데없이 승용차 한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의 앞을 비스듬히 막으며 멈춰섰다. 그것을 에돌아 가려는 보옥을 운전수가 뛰어내려 막아섰다.

《보옥동지십니까?》

《...?》

운전수청년은 그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무작정 트렁크를 빼앗아 차체에 밀어놓고 뒤문을 열었다.

《어서 타십시오.》

《절 어디로 데려가자는거예요?》

보옥은 물었다.

《잠자코 타오. 인제 알게 될테니.》

차안에서 반백의 사나이가 독촉하였다. 열결에 뒤좌석에 오른 보옥은 운전수가 그 사나이한테 료양소로 가자느냐는 물음소리를 듣고서야 자기가 그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료양소에 되돌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차를 세워주세요.》 보옥은 조용하나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있소.》

《누구한테요?》

《연구사동무와 우리 기업소 전체 로동계급들한테... 그러구 동무자신한테도 말요.》

몹시 격해진 음성으로 낯선 사람은 말했다.

《전혀 분별이 없군. 그런 쪽지편지 한장 내뜨리고 도망쳐가다니... 만약 동무가 우리 련합당위원회 산하 당원이려면 나는 당장 출당을 제기했겠소.》

《거기선 누시기에? ...》

보옥은 놀라서 물었다.

《아하- 이 늙은게 지내 흥분한김에 자기 소개를 잊었군. 여기 련합당위원회 책임비서요.》

보옥의 의심쩍은 눈길에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며 썩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는 계속했다.

《용서하오. 동문 지금 종업원 만을 헤아리는 기업소당위원회의 책임비서라는 사람이 할일없어 이런데 뛰어들어 야단이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오.》

하지만 지금 온 기업소가 연구사동무의 사색과 움직임 한순간한순간을 지켜보고있소. 그 긴장한 사색과 탐구를 힘자라는것 지켜주기 위해서 온갖 대책과 성의를 다하고있단말이요. 그의 연구와 실험에 기초해서 온 공장이 계열생산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있소. 이젠 우리 련합기업소가 나래를 펴는것과 같단말요.

그런데 동문 여기까지 왔다가 그런 쪽지 한장 써놓고 훌 떠나간단말이요? 내가 동문 만나보려고 료양소에 먼저 찾아갔겠기다행이지 연구사동무가

만약 그 쪽지를 봤다면... 에이참, 동무한테 누가 그런 권리를 줬소. 어디서 배운 사랑하는 본때냐말요!》

뜻밖의 채찍질이었다. 들판에 홀로 나섰다가 소낙비를 만난 격이었다. 하지만 별로 차갑거나 아프게 들리지 않았다. 거칠고 투박스럽지만 너자의 좁은 가슴속에 얹혔던 매듭과 웅이를 풀어주려는듯한 두드림이어서 보옥은 고개를 다소곳이 하고 듣고있었다.

《자 내리오. 다 왔소.》

보옥은 책임비서의 안내를 받아 어느 한 기계직장안에 들어섰다. 넓다란 공간을 가득 채운 기계의 소음에 보옥은 놀라 눈을 둥그렇게 떴다.

기계바다! 약동하는 음향과 운동으로 가득찬 기계바다였다. 유리채광창의 넓다란 지붕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으며 비껴갔는데 그밑에서 파르스름한 연기를 피여올리며 수백개의 바이트날들이 자개빛의 쇠팅들을 일쿠고있었다.

《저길 좀 보우. 저기가 동무 애인이 일하는곳이요.》

책임비서는 손을 들어 기계바다 건너 저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투명한 유리로 벽과 천정을 씌운 직장안의 또 다른 기계실이 있었다. 그안은 백광등으로 류달리 밝았다. 눈부시게 정갈한 기계실안에 위생복차림의 몇사람의 형체가 얼른거렸다.

《특수용 수치조종자동선반조립실이요. 어떻소? 커다란 러객기안의 조종실같지 않소?》

정말 조종실같았다. 가운데를 너른 통로로 하고 좌우편에 선반기들이 좌석처럼 배치된 직장안을 거대한 러객실에 비긴다면 맨앞의 유리방음막을 씌운 조립실은 말그대로 조종실과 같았다.

보옥은 자석에 이끌리듯 조립실쪽으로 다가가다가 공장보위대복차림의 어린 처녀한테 저지당했다.

《동무, 여긴 들어갈수 없습니다.》

보옥은 엉겁결에 뒤를 돌아보았다. 허나 책임비서도 그것만은 어쩔수 없다는듯 손을 벌려보였다.

《인젠 연구사동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만하잖소. 료양소에 가서 기다려주소.》

《책임비서동지. 절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손에 맞는 아무 일이나...》

보옥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면 그렇겠지! 우리 연구사동무가 너잘 잘못 고를리 있나!》

기쁜듯 광채어린 눈길로 보옥을 다시한번 훑어본 책임비서는 젊은 사람처럼 청높은 목소리로 누구를 찾았다.

스물안팎의 어린 선반공처녀가 그들한테 다가왔다.

《순회동무, 오늘 이 동무와 함께 일하오. 귀중한 손님이요!》



처녀는 책임비서와 보옥을 번갈아 쳐다볼뿐 대답을 안했다. 매일매일 정확한 지령에 습관된 처녀는 함께 일하라는 지시와 귀한 손님이라는 뒤에 달린 주석이 리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젠장, 동문 그만한 눈치도 없소? 바로 이 동무가 저 조종실책임연구사인 철우동무의 애인이라 말요!》

《어마나!》

처녀의 두눈은 대번에 찬탄과 기쁨, 애정으로 빛났다.

《정말 귀한 손님이네. 저의 기대있는데로 가요!》

처녀는 책임비서의 존재조차 잊은듯 보옥을 이끌며 두서없이 재잘거렸다.

《저두 연구사동지 총조립조 보조성원으루 그가요구하는 부속품을 짚았답니다. 하긴 우리 직장이 통털어 연구사동지가 요구하는 부속들을 맡아 짚았는걸요. 몇만개나 되는걸 말예요.

전 그중 하나 애기손가락만한 부속을 하나 짚는걸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처녀는 수줍음이 섞인 귀여운 웃음을 지으며 새끼손가락을 보옥이 눈앞에 펼쳐보였다.

《요렇게 작은걸 말예요! 그걸 가지구 몇날을 애먹었는지 몰라요. 남몰래 운적은 몇번이라구요.》

보옥은 부지중 목이 메음을 느꼈다. 처녀의 맑은 눈동자와 펼쳐든 새끼손가락을 차마 그대로 보아낼수가 없었다.

고개를 숙이었다. 그러나 보옥의 눈앞에는 어린 처녀의 기쁨문은 가느다란 새끼손가락이 좀처럼 사라질줄을 몰랐다. .

(저 처녀는... 낯도 모르는 저 어린 처녀는 철우동무를 위해 자그마한 부속품 하나라도 보탬을 주었는데... 그 자그마한 부속품을 설계대로 짚느라고 남몰래 울기까지 했다는데. 나는...)

보옥은 자기 행동을 돌이켜보며 얼굴을 들수 없었다. 달포전에 그를 붙잡고 괴롭히던 일이며 오늘 아침 못된 쪽지 한장을 써놓고 역에까지 나갔던 일이며를 생각하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었다.

《한번은...》 안개속처럼 눈앞이 뿌옇해오는 속에 처녀의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계속 들려왔다.

《연구사동지가 빈혈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적이 있어요. 밤을 패면서 너무 무리했단지요.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가서 치료를 받으며 며칠만이라도 좀 쉬라고 권고했어요. 하지만 연구사동진 뭐라고 말씀하신줄 아세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백걸음 달려 우리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학이 더 높이 날아올라야 경제가 날아오를수 있고 우리 조국이 더 위력해지고 부강해집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실험비행대 조종실에 앉아있는 조종비행사처럼 불면불휴의 탐구와 노력으로 최대의 속도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니 동지들! 저를 조종실로 보내주십시오!》

언니, 연구사동진 조립실을 조종실이라고 했답니다. 큰 비행대의 조종실... 얼마나 멋진 비유예요! 그날부터 온 기업소가 저길 가리켜 조종실이라 부르게 됐구 비행대성원들처럼 부글부글 끓게 됐답니다.》

보옥은 온종일 고개를 숙이고 일에 전념했다. 저녁에 료양소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마음을 안정할수가 없었다. 침실로 돌아오기전에 선반공처녀가 《연구사동지한테 전화를 걸까요?》 하는것을 보옥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서 막았다.

철우를 지금 당장 만나는것이 부끄럽고 겁이 났다. 무엇인가 자기자신을 찾고 어느정도 마음의 안정을 얻은다음 만나고싶었다.

허나 마음의 안정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야릇한 흥분이, 부끄러우면서도 기꺼운 감정으로 그의 가슴은 마냥 설레기만 하였다. 부끄러움의 원인은 너무나도 많았다. 자기의 못되고도 고까운 생각이며 오늘아침 일이며 그 모든 실책을 상기시키는듯한 어린 처녀의 새끼손가락이며 이야기며... 하지만 기쁨의 원인도 너무 많았다. 자기 눈으로 본 조종실, 자기의 걸음을 되돌려세워준 책임비서며 한없이 돋우보이는 철우의 모습... 자기가 향유하고있는 생활 전체가 그대로 기쁨이며 행복이라는것을 그는 온 가슴으로 느끼고있었다.

(어서 빨리 최종시험을 성공하고 그이가 달려와 주었으면! ...)

이처럼 리기적인 가슴을 부풀어올리며 보옥은 침대에 번듯이 나가누웠다. 부드러운 달빛이 처녀의 넓과 아름다운 자태를 음미하듯 조용히 내려다보고있었다. 부끄러움과 자책보다 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큰것으로 하여 그 달빛에 온몸을 맡긴채 처녀는 솔곳이 꿈속에 잠겨들었다.

요란한 전화종소리에 화닥닥 침대에서 일어나 보옥은 흥건히 젖은 이마를 팔꿈치로 훔치며 자기가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창밖은 벌써 아침이었다. 아침노을이 동창을 붉게 물들였다. 정적을 깨치며 전화종소리가 다시 한번 다급하게 울렸다.

보옥은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세요?》

《보옥동무! 성공이요! 성공! 기뻐해주오. 내 이제 곧 그리로 갈테요!》

보옥은 수화기를 집어던지고 형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기도 하고 헤쳐진 앞가슴을 가리기도 하며 어쩔줄 몰라했다. 창가로 다가가 그는 태양이 솟구쳐오르는 공장쪽에서 승용차 한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낮익은 차였다. 그였다. 보옥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맞혔다. 그가 아니고서야 이 새벽에 누가 저처럼 미친듯이 차를 몰아오겠는가. 승용차는 우회도로를 따라 다리가 있는쪽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길을 벗어나 발두령을 타고넘으며 곧장 달려왔다.

보옥은 폭풍같은 환희와 놀램과 공포에 높뛰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부르짖었다.

《저러다 어쩔러구?!》

차체를 흔들며 발이랑들을 타고넘은 승용차는 강물로 뛰어들었다. 차체 량쪽으로 갈라져 물갈기와 물방울들이 해빛에 번쩍거렸다.

보옥은 《앗!》하고 소리질렀다. 강을 가로질러 내닫던 차가 강북판에서 암초에 부딪쳐 멈춰선 것이다.

차문을 열어제끼고 철우가 뛰어내렸다. 그는 차를 그대로 팽개쳐둔채 침범침범 강물을 건너왔다.

물참봉이 되고 땀에 젖은 철우가 문앞에 나타났다. 그는 아연해 서있는 보옥을 다짜고짜로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뉘큼 들어 온 방안을 빙빙 돌아쳤다.

《아이참, 망칙스레...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책임비서동지 차를...》

《그까짓 승용차가 다 뭐요. 성공이란 말이요. 성공!》

미칠듯한 희열과 기쁨이 보옥을 휩쌌다. 철우의 목을 꼭 그러안고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다.

보옥은 자기가 지금 하염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로 사랑하는 남자의 가슴을 적시고있다는것을 알았다.

한없이 넓고 뜨거운 가슴이었다. 속도와 비약의 일념으로만 높뛰던 심장이 분출하는 사랑의 희열로 그 가슴속에서 거세게 태질하고있었다.

보옥은 부끄러웠다. 부끄러우면서도 온몸과 얼굴로 그 품속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탐구와 열정으로 들끓는 이 심장의 퍼덕이는 나래 밑에 나는 어떤 《보금자리》를 꾸리려 했던가. 오직 자신만을 위한 행복, 안락의 보금자리를 꾸리려 했다. 나의 트집스런 사랑이란 고작해야 그것이 전부였다. 하건만 철우는 더욱 억세게 더욱 힘있게 보옥을 끌어안아주었다. 사랑에서도 보옥이보다 몇 갑절 뜨거운 가슴이 자책과 반성으로 부끄러움을 타는 자그마한 심장을 눈물겹도록 애무해주었다.

이 순간 보옥은 자기가 이 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얼마나 긴장해서 살아야 하는가, 잠시도 눈팔새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수양하며, 탐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이 세상엔 이런 사랑의 긴장한 탐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를 상대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녀자들도 있다. 그런 녀자들은 그들나름으로 행복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긴장해서 탐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것으로 해서 곱절이나 더 행복한 녀성이 아니겠는가! 보옥이한테서 이것은 자기자신과 자기 가슴에 지녀야 할 사랑의 새로운 자각이며 발견과 같은것이였다.

이런 생각으로 한껏 부풀어오른 궁지와 행복감에 물젖은 빛나는 눈길로 남자의 얼굴을 한번 훑쳐 보고는 또다시 그 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한해전 그 여름밤에 그처럼 쉽게 다졌던 언약과 똑같은것이면서도 전혀 새로운 뜻이 담긴 언약을 속삭이는것이였다.

《절 믿어주세요. 전 영원히 충실한 길동무, 과학자의 안해가 되겠어요. 혁명동지가 되겠어요! ...》

새날의 열정과 비약의 나래를 펼친 하늘로 이글이글 타는 태양이 불끈 솟구쳐올랐다. 불타는 노을 빛은 창문과 방안을 가득 물들이고 마주보는 두 청춘의 눈길에도 황홀하게 비끼였다...

## 알찬 열매로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전쟁승리의 만세 소리가 고지를 뒤흔들었다. 원쑤 미제침략자들의 진지를 향해 한탄창을 다 풀어버리고 밤 10시를 맞던 그때로부터 40여년 세월이 흘렀다. 그날 나는 전선동부 1211 고지에 있었다. 그날밤 온 중대는 웃고 떠들고 노래를 부르며 잠들줄 몰랐다. 그때의 전우들 머리우엔 흰서리가 내렸다.

나는 중대 전우들에 대한 서정시편들을 창작하려고 마음먹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남에게 없는 특수한 재간을 가지고 혁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쓰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

나는 군인출신으로서 지난 기간 군사물 시편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이번에는 전사들의 생활그대로를 진실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쓰는데 힘을

넣으려고 한다. 그때의 일들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분석하려고 한다.

전쟁물주제 창작, 이는 전쟁참가자들의 의무이며 기쁨이며 총화로 되여야 한다. 시대의 요구는 나를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1211 고지의 그날밤에 세워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영화가 동백기름을 바른 영화, 화면마다 미남이라고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저는 이번 전쟁물주제 서정시편들을 동백기름을 바른 시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축적을 다 쏟아놓을 생각이다.

말은 쉽다, 쓰기는 힘들다. 힘들기에 기쁨이 있다. 이번 창작을 독자들앞에 자기를 겸연받는 그런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

시인 박호범

## 단편소설창작에 더 큰 힘을 !

지난해 이렇다할 소설을 내놓지 못한 나로서는 새해 할 일을 두고 자못 진중해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작품의 편수나 원고매수를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한두편이라도 새로운 철학의 세계, 미의 세계가 탐구된 소설을 쓰자는것이 나의 본래의 욕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지난해에도 그 전해에도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을 받아안고 신심과 용기,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설은 온갖 낡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높은 문화수준에 맞게 소설문학에서 혁명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온갖 낡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문학 ! 소설문학에서의 혁명 !

나의 가슴이 새로이 높됩니다.

문득 《봄》이라는 제목이 떠오릅니다.

지구의 반구를 물들였던 종래의 거대한 리념과 사상, 제도가 좌절의 경난을 겪고있는 오늘 파연 인류의 봄은 어디서 시작되고있으며 그 영원성은 무엇으로 담보되고있는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리상에 대해서 쓰고 싶습니다. 아니 꼭 쓰렵니다. 전투적이고 기동적인 단편형식으로 작은 그릇에 큰것을 담는다는 자세로 말입니다.

나는 거의 1년 가까이 통일의 성전에 한목숨 바친 강규찬, 고진히부부를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붉은 메아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새해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볼가 합니다.

하지만 장편을 쓰는 중편을 쓰는 전투적이고 기동적인 단편소설창작에 언제나 큰 힘을 넣으렵니다. 생활자체, 현실자체가 그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높은 사명감에 비추어 자신의 요구성도 따라세울 결심입니다.

소설가 양의선

## 당의 문예정책을 건결히 옹호하는 투사가 되겠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평론가로서 생각되는바도 많고 결의도 많아집니다. 이해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이 발표된지 첫뫼이 되는 해이고 우리 평론가들에게는 특히 많은 일을 해야 할 해이라고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평론가는 문화전선의 전초선에 서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공격과 사상문화적침투로부터 당의 문예정책을 건결히 옹호하는 투사로 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골화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건결히 옹호하는것은 주체문학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당 문예정책의 건결한 옹호자, 투사라는 높은 자각과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예리한

정치적안목으로 당의 문예정책과 배치되는 자그마한 이색적인 요소도 우리 문학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제가 잠들면 낱은 창작경향이 되살아나고 불건전한 문학조류가 머리를 쳐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당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며 그에 기초하여 평론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평론의 전투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거기에서 발양되는 좋은 싹들을 애써 찾아내고 적극 지지옹호하는 글과 함께 새로운 발견과 탐구가 있는 평론, 문체도 형식도 개성이 있고 다채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평론가 **최길상**

## 문학으로 전사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의 현실은 문학예술부문앞에 종래의 온갖 낡은 관념과 도식을 대담하게 버리고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문학창작에서 종래의 낡은것을 대담하게 버리고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주체사실주의문학의 근본요구일뿐아니라 우리 작가들이 문학으로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백방으로 사수하는 전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작가들이 흔히 《우리 문학에서 하나의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사춘기문학에 감히 팔을 걷고나선 젊은 작가로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과 1992년 5월 23일 문헌을 빛나게 관철해나갈 자량과 혁신의 올해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살고저 다시한번 결의를 굳게 다집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에 독자들과 약속하였던 작품들인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중편실화소설 **《네송이의 꽃》**을 올

해 상반년안으로 출판에 넘길것이며 사춘기 청년들속에 반제자주정신과 사회주의옹호정신을 키워줄 장편소설 **《류랑아들》**을 수정완성하여 연말까지 초판인쇄에 회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향차 아직 이렇다하게 일가견도 세우지 못한 사춘기문학-사춘기 청년독자들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내놓을 작품이라고 할때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창작의 근본지침으로 삼고나갈 때 풀어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작가자신의 높은 정치적안목과 창작기량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비록 한편의 수필이나 단상, 단편소설을 써도 시대가 요구하고 당에서 바라는 새것, 《나》의것이 없이는 절대로 붓을 들지 않는 작가본연의 자세를 새해에도 계속 키워나갈것이며 특히 청소년사춘기문학발전의 길에 더 대담하게 적극 뛰어들으로써 문학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 자라난 젊은 세대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해가겠습니다.

소설가 **현승남**

## 압록강반의 서정 외 1편

김영

여기는 북변 압록강가  
유난스러워  
산천에 눈깨비 내리고  
강반에 안개 내리고  
철썩-처절썩-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

불행에 울고울던 겨레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락을 주시고  
10 대에 떠나신 기슭  
반세기 넘어 찾으신 어버이수령님  
추억의 장강에  
그날의 노래를 띄우시는가

포평나루  
지켜주는이 없던 그 세월  
오라는이 없는 낯설은 산야로 떠나며  
후드득, 쏟아지는 눈물속에 돌아보던  
조국의 마지막 기슭

그래서 포평나루는  
설움의 나루  
류량의 나루  
어허, 눈물에 젖던  
리별의 나루 아니었드뇨

그날의 그 나루였더라  
파란많은 동포의 한을 다 품으시고  
장강을 건느실제  
그이의 나이는 열네살

열네살 수령님 가실 길  
피어린 장장수만리인데  
그날에 뉘 알았으리  
포평서 보시니 남은 돈은  
50 전

2월의 그 기슭을 떠나시여  
눈보라, 옥중, 원시림...  
축한, 사선의 언덕을 넘어  
만고풍상을 헤쳐오신 수령님  
우리 수령님처럼  
그렇게야 고생하신분이 있으라

포평에 필생의 맹세 남기시고  
먼먼 60 여성상  
그 첩첩한 풍상고초  
어찌 다 말하랴 말하지 말자  
우리 수령님 상실의 아픔은 또 얼마...

인민의 복락을 안아오자고  
인민을 찾아  
인민의 마음을 찾아 가고가신  
그 풍상 서린 자옥마다엔  
생의 노래가 넘치고  
사회주의 선경이 펼쳐지노니

아아-  
해와 별 찬란한 내 나라  
압록강 기슭 락원의 강반이여  
네 기슭에서 다시는  
류량의 나루배는 뜨지 않으리니

나루터는 있어도  
나루배는 뜨지 않으리라!  
출렁, 처절썩-

## 백암 풍경

-백암역을 지나며-

산수풍경이 하도 수려해  
량강의 금강이라 부르는  
백암의 계곡에 화관을 걸었노라

때는 천고마비  
단풍은 불길처럼 타고

벽계수는 아차 절벽에서 떨어지고  
봉이들은 필필이 노을을 두르고 솟은듯

아- 기막혀  
절경  
절경

백암령의 절경이여

산수에 취해  
화판에 온 냇을 붓노라니  
어느새 해는 지고  
아쉬워, 화판을 거두는데

골짜기들에 난데없는 불빛, 불빛  
순간 쿵-  
심장을 때리는 우뢰여  
밤도와 전기를 일쿠고 림지를 가꾸고  
산을 가꾸어가는 근면한 사람들  
어둠속의 화폭이여

빛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구나  
아니, 아니였네  
산깊이 들어가 땀흘리는 개척자들  
내 미쳐 보지 못했어

하늘아래 첫동네로  
락원의 첫동네로 꽃피워가는  
그네들 군상은 선경중의 선경 !

×

날은 저물어 화조는 알수 없어도  
나는 마음속 화판에  
다시 그리기 시작하였네  
백암사람들의 그 미모를

그리며 심중에 새기였네  
진정 미의 창조자는  
자연도 아니고  
화가인 나도 아니었더라

아  
백암의 인간상이여 !

## 그 풍요한 흐름은

원석파

무한량의 힘과 미를 지니고  
성새같은 갑문아래  
조용히 넘쳐 설레었다, 그 풍요한 흐름은

나는 가슴을 내대고  
맞이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푸른 물결을

발밑에 밀려오는 물결의 여운은  
잃어졌다 다시 만난  
옛벗의 뜨거운 상봉의 환성같기도 하였다

오랜 세월 세파에 모대기고 모대기다  
좋은 세월을 만나  
온갖 고뇌 다 털어버리고  
놀랍게 변한 모습으로 두팔 벌리는  
옛벗의 천진한 자랑같기도 하였다

아, 대동강 ! 대동강 !

나는 가슴을 내대고  
속삭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 푸른 물결과

귀에 다정한 그 속삭임은  
모색의 긴 진펄길을 헤매다  
꿈많은 창조의 새 노래를 찾은  
호반의 다감한 랑만시인같기도 하였다

가신듯 맑은 강심에  
조국의 가없이 트인 하늘과  
기슭을 덮은 우리의 무성한 새날을  
금지 높이 비쳐안고  
미래를 사색하는 철인같기도 하였다

아, 대동강 ! 대동강 !

나는 가슴을 내대고  
사랑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푸른 물결을

때로는 만시름 놓고 자리에 누워도  
베개머리를 흔드는 그 소리  
마음의 귀한 벗인양  
세월이 갈수록 반가움을 더하는 소리

실려있다, 환희로운 그 가락에는  
진정이 온 폐부에 스미는  
우리 당에 드리는 감사의 노래  
어이 미칠수 있으랴  
시인들의 한다는 솟씨 깡그리 바쳐진  
천백편의 시줄이 다 모여진들,

아, 대동강 대동강  
영원히 품에 안고 놓지 못할 청춘가람이여!

## 시인 김람인과 그의 창작

최형식

김람인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영생하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시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열렬한 애국자가 아닌 작가가 어찌 애국주의적인 작품을 창작할수 있으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예술가가 어찌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작할수 있겠습니까.》**

김람인은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새 조국 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운 열렬한 애국자이며 혁명적수령관을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살아온 충신이다. 그러한 시인이였기에 그는 창작활동 전기간 굳건한 지조를 지니고 애국적이며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우리 인민의 주체위업실현에 이바지할수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김람인(본명 김익부)은 1910년 1월 11일 자강도 중간군 호하로동자구의 빈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의 영향 밑에 있던 호하영명학교(4년제)를 졸업하고 중강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였다가 반일경향이 농후한 작문을 지은것으로 하여 퇴학당하였으며 1925년부터 평양, 서울, 베이징 등지로 전전하면서 고학을 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그는 울분을 안고 193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인쇄로동을 하면서 창작의 붓을 들었다.

김람인은 1939년에 벌써 시집《청색마》를 냈으며 해방후에도 가치있는 작품들을 많이 썼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서사시를 창작하였다. 람인은 해방전후에 많은 시를 발표하였으나 가렬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적지 않은 작품들이 류실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작품들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의 문학의 높은 사상에 예술성과 조선문학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충분히 알수 있다.

김람인은 일제의 야수적폭압속에서도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에 대한 신념을 안겨주는 사상에 예술성이 높은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어둡던 강산을 진감한 항일무장투쟁의 총성은 시인으로 하여금 새 삶을 약속하는 봄빛을 절감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34년에 서정시《××안에서 봄을 맞는 님에게》를 창작하게 되었다.

님이여! 당신이 기다리실 옷을 부칩니다  
이 옷꾸레미속에 압록강의 봄빛을 가득히 넣어 보냅니다

찬바람 눈보라 얼음장도 다 사라지고  
시퍼런 물결이 흰 사품을 치면서 씩씩히 흐르는 장강의 봄

그날-북만으로 가시던 이 북극의 동지달 추운 밤 장강의 얼음길을 건느시며 하신 말  
-이 얼음장이 풀리면 새봄이 오고  
새봄이 오면 우리의 소식 있으리라-더니  
아마도 내가 보내는 이 옷설속에서 찾아내실 우리들의 봄소식이던가봅니다

작품은 민족적의분을 안고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령어생활을 하고있는 남편에게 《압록강의 봄빛》을 알리는 안해의 감정세계를 짙은 서정으로 섬세하게 노래하고있다.

어지러운 세상을 저주하면서 남편의 뜻을 이어가고있는 서정적주인공이 옷꾸레미속에 넣어보내는 《봄빛》, 《봄소식》은 다름아닌 항일무장투쟁소식이었다.

하기에 그는 《봄빛》에서 새힘이 솟아남을 뜨겁게 체험하며 희열에 넘쳐 님의 의지를 새롭게 할 《봄소식》을 전하면서 남편의 투쟁을 고무하고있다. 특히 《국경의 봄빛》을 받아안고 님의 젊은 뜻이 라는 붉은 피가 모든 수난의 암초를 타고 흐르기를 바라며 《봄빛》을 마음껏 마시고 대지에 힘찬 호흡을 뿜어낼것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힘이 커가고 뜻이 자람에서 영철이와 나와 기타 모든이들에게 참으로 기쁜 봄은 올것입니다》라고 확고한 믿음을 토로하는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은 항일무장투쟁에서 광복의 새아침을 바라보며 굳세게 싸워나가려는 당대 인민들의 지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봄빛을 안고사는 람인의 신념, 일제하의 피로운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과 새 사회의 도래에 대한 확신은 시《여름구름》(1936. 8)에서도 뚜렷이 읽을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을 등대로 바라보며 시를 써오던 람인은 1936년 8월 무송현성진공전투소식에 접하자 더욱 분발하여 이해 11월 《시건설》사를 내고 문예잡지《시건설》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잡지의 창간호는 표지에 붉은 기발을 새겨넣었고 시문학건설의 새 출발을 호소하는 서문을 실었다.

시 부흥!

조선 시문학운동의 첨단자여 나오라  
《시건설》은 당신네의 기발!  
침체한 우리 시문학건설의 새 출발을 위하여...

잡지는 자신의 시들과 혁명시인 리찬의 《기원》을 비롯한 진보적시인들의 시들을 실어 인민들의 가슴에 반일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김람인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결정적영향을 준 것은 보천보전투였다. 보천보전투소식에 접한 그의 가슴속에는 민족의 구성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이 세차게 불타올랐고 장군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람인은 조국광복회 조직의 임무를 받고 《조국광복회 10 대강령》 2,000 부와 《조국광복회 10 대강령가》를 인쇄하여 조직에 보냈다.

김람인은 그때를 긍지높이 회고하면서 시 《빼치까》(1938)를 창작하였다. 여기에서 시인은 북풍, 눈보라, 강추위, 이 사나운 겨울과 싸우던 긴긴밤이 물러가면 태양은 아름다운 아침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노래하였다. 진한 비유법으로 씌여진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은 엄혹한 일제파쇼통치하에서도 우리 민족의 반일애국투쟁은 불타오르고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밑에 조국은 반드시 광복된다는 사상을 강하게 받아안게 된다.

일제는 1938 년에 잡지 《시건설》을 강제로 폐간시켰다.

그러나 람인은 주저않지 않고 반일계몽사업을 널리 벌리는 한편 시창작을 계속하였다.

김람인은 1939 년에 시 《청색마》를 썼다. 이 시는 그의 해방전 대표작의 하나이다. 이 시에서는 푸른 희망, 큰뜻을 지닌 사람, 메바람같이 땀짜고 날파람있는 사람이 되려는 지향에서 이름마저 람인이라고 고친 시인이 항일성전에 펼쳐나설 의지와 힘을 키우려는 열화같은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시인은 천둥이 울고 소낙비 퍼부어도 움쩍않고 대지에 꽃같이 서서 평원만리를 웅비할 기개를 보이고 있는 청색마를 찬양한 다음 이렇게 노래하였다.

오오, 나의 애마야  
오늘 너와 나는  
록색대지에서  
창천을 우러러 살며  
명일에 질주할 힘을 키우다

청색마와 더불어 창천을 우러르며 명일에 질주할 힘을 키우고있는 서정적주인공의 형상, 그것은 바로 일제의 단말마적발악에도 끄떡없이 혈전만리를 헤쳐야 할 항일의 폭풍우속에 뛰쳐들려는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의 대변자의 형상이다.

김람인은 일제의 파쇼적폭압이 극도에 이른 때에도 애국의 필봉을 꺾지 않았다.

그는 1945 년 5 월에 시 《독립문》을 창작하여 드높지 않는 애국의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인민들을 교양하였다. 독립문, 마음의 탑을 불러 비바람에 부대끼고 세월에 씻기여도, 산천과 사람은 모습을 갈아도 들어가는 사상을 지니고 마음속에 영원히 서있으라고 절절히 호소하는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에는 **김일성**장군님을 태양으로 우러르며 그 빛발아래 밝아올 광복의 그날을 믿고 변함없이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굳은 신념이 일반화되어있다.

김람인의 해방전창작을 총괄해볼 때 그는 일제의 파쇼적폭정하에서도 언제나 봄빛을 안고 비유와 상징의 수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신심과 량만이 넘치는 서정으로 조국광복의 새아침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굳은 신념을 해방의 그날까지 줄기차게 노래한 결괏값이고 혁명적인 시인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그가 살벌한 일제파쇼통치하에서도 혁명적인 창작자세와 창작적개성을 가지고 선진적시단의 맨 앞장에 서서 조국해방위업에 적극 이바지한 공로가 큰 시인이었다는것을 말해준다.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고무추동하던 김람인은 해방후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조국 건설에 헌신하는 과정에 자기 창작에서 새로운 특징들을 체현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람인의 창작에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데는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새로운 사회제도의 수립과 격동적인 현실, 당의 현명한 문예정책과 작가들에 대한 극진한 배려, 시인의 사상미학적수준제고와 창작에서의 자유의 보장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런데 람인의 경우 특별히 강조해야 할 점은 그가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작가의 한사람이었다는것이다.

김람인은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으며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건국로선을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그는 해방직후 면자치회 부위원장으로 선거되어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1945 년 9 월 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이해 10 월부터 1946 년까지 평안북도당 선전부장, 도당위원회기관지 《바른말》 책임주필로 사업할 때도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민대중속에 선전하는것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하여 《바른말》지면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과정과 혁명활동력사를 소개선전하는 글이 체계적으로 실리게 되었다.

람인은 가정에서도 밤깊도록 안해와 두 딸애를 앞에 놓고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광복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각오를 품고 살아야 한다고 곱씹어말하곤하였다.



그가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일군이였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운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1947년 설날아침 《평북일보》를 읽다가 우리당의 사상을 악랄하게 외곡한, 도당의 책임적직위에 있던 종파분자의 글을 보고 격분을 금할수 없었던 람인은 곧 50여매의 반박론설을 썼다. 그러나 신문사에 제기된 글은 발표되지 못했으며 람인은 출당철직되었다.

그렇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은 람인은 그 론설을 찾아가지고 평양에 올라왔다.

전국의 그 바쁜시간을 내시여 원고를 주의깊게 읽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체때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를 썼으며 해방후에는 우리당의 교양을 받은 사람이라는것이 이 글에서도 잘 알린다고 하시면서 김람인동무는 모든 선행리론들을 덮어놓고 숭배하며 그에 기초하여 우리당의 사상이 나온것으로 보려는 경향을 혁명적립장에서 옳게 분석비판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당의 립장을 지지하여 견결히 싸우다가 피해를 받은 김람인동무를 우리가 구원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평북도에 뒤두면 나쁜놈들이 계속 못살게 굴지 모르니 평양에 데려다가 인민군신문사에서 문필활동을 시키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평양에 올라와 신문 《조선인민군》 창간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이 신문문에담당기자로 일하던 람인은 1948년 4월 수령님을 만나뵈고 은정깊은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이처럼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은 그의 창작적발전의 튼튼한 기초로 되였다.

김람인의 해방후창작에서의 새로운 특징과 발전모습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과 흠모의 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한데서 볼수 있다. 그것은 시 《해방》(1945. 8), 《당의 품 수령님의 품》(1948. 4) 등이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시 《해방》은 시인이 면자치회 부위원장으로 선거되던 날에 읊어 사람들을 격동시킨 즉흥시로서 해방후 맨처음으로 창작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가이다.

작품에서 시인은 해방의 기쁨을 안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게 된 감격과 환희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바라고 기원하던  
목메여 고대하던  
해방의 이날은 꿈이나 생시나

거세찬 눈보라 몰아

보천보의 불길 삼천리를 밝히더니  
오호, 태양은 암흑을 태워버렸다  
...

거리마다 기발을 쫓고  
골목마다 프랑카드 걸고  
광복의 은인 **김일성**장군님을 맞자

시인은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끝없이 번영할 조국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온 겨레를 향하여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시는 《우리 세상, 내 세상》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감정을 해방의 감격과 융합시켜 소박하면서도 격조높게 형상함으로써 해방직후의 격동적인 현실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그처럼 바라고 기원하던 력사적순간에 접한 시인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공헌을 칭송하는 뜨거운 격정을 터뜨린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수많은 시인들가운데서 누구보다먼저 김람인이 시인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는것은 이 작가의 혁명적수령관과 력사와 시대앞에 지닌 시인의 사명감에 대한 자각의 높이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과 흠모의 감정은 시 《당의 품 수령님의 품》에서 더욱 뜨겁게 안겨온다. 이 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은 시인이 그날밤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지은 심장의 노래이다.

시에서는 수령님의 품은 우주같이 넓고 태양같이 따사로운 위대한 품이라는 깊은 사상을 뜨겁게 체험한 생활감정으로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길가에 버림받은 나를 안아준 품이 있어라  
만민이 다 안겨도 비좁을리 없고  
한생을 안겨도 식을리 없어

활개치고 살수 있고 발퍼고 잠들수 있는  
우주같이 넓고 태양같이 따사로운  
그 품은 당의 품, 수령님의 품

얼마전에는 잃었던 정치적생명을 찾아주시고 영영 나쁜놈들의 모해를 당하지 않도록 몸가까이 불러주시더니 오늘은 또 자기를 친히 만나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에 눈굽을 적시는 시인이 열렬히 토로하는 감정, 《길가에 버림받은 나를 안아준 품》-수령님의 품에 대한 칭송의 감정은 《만민이 다 안겨도 비좁을리 없고 한생을 안겨도 식을리 없》은 넓고 따사로운 품에 대한 칭송의 감정으로 승화되었다.

그리하여 시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에 대한 우리 인민모두의 청송의 감정이 뜨겁게 물결치고있다.

이 작품을 통하여 시인은 이미 《청색마》, 《독립문》 등을 비롯한 해방전후의 시들에서 뚜렷이 보여주고있던 창작적재능, 즉 간명한 시형상속에 큰 사상을 시적감흥이 안겨오게 담을줄 아는 높은 창작적기량을 더욱 뚜렷이 과시하였다.

김람인의 해방후창작에서의 새로운 특징과 발전모습은 다음으로 현실공정의 열정과 기백이 강렬하고 인민대중을 새 조국 건설과 조국통일위업으로 불러일으키는 호소성이 높은 시들을 적극적으로 창조한데서 볼수 있다.

현실을 언제나 예리한 정치적안목으로 파악하고 노래하는 람인은 자기 시들에서 광복의 새봄에 피어나는 새 생활, 환희와 랑만이 넘치는 민주주의적현실을 다정다감한 생활정서로 노래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민주조선 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민주의 도도한 흐름을 레찬하고있는 《대동강》(1946. 3),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쳐 새 조국건설으로 매진하자는 사상을 강조하고있는 《해불》(1946. 10), 진정한 애국자, 인민의 충복을 주권기관의 위원으로 선거하게 된 환희와 감격을 생동하게 노래하면서 그러한 인민정치를 베푸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는 《새 나라의 봄풍치》(1947. 2) 등을 비롯한 시가들의 창작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람인은 국토량단과 민족분열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을 노래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시 《독립문》(1946. 4)의 창작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녘의 봄날, 너는 내 노래를 그리워할거다》, 이렇게 시작한 시 《독립문》은 《너와 마주 뜻을 맹세한것이 꿈이 아니고》 《그대 얼굴에 웃음 실릴-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피력한 다음 이렇게 노래하였다.

38 도선너머  
사랑하는 나의 탑아  
그 이마에 높이 달아줄  
붉은 기폭이 내 마음에 날고있다

여기에서 《붉은 기폭》은 항일의 대오앞에 휘날리던 그 기발, 시인이 《시건설》표지에 새겨넣었던 그 붉은 기발이며 그것은 곧 자주주의 기발, 혁명의 기발이다. 독립문 그 이마에 자주주의 기발을 높이 달아주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심정의 토로는 민족의 녀이 맥박치는 온 겨레의 가슴속깊이에

서 불타오르는 조국통일에 대한 열렬한 지향의 시적반영이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슴뜨겁게 안겨주고있는 이 작품은 사상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생활정서적으로, 비유적으로 노래할줄 아는 시인의 높은 기교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하고 넘어가야 할것은 이 시인이 상징의 수법을 능란하게 구사하고있는 점이다. 람인이 해방전에 지은 시들은 거의 모두가 상징의 수법에 의거하고있다. 이것은 물론 반일사상과 새 사회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시를 쓰는 작가들인 경우 일체의 검열에 통과되기 위하여 누구나 다 써오던 형상수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람인은 해방후에 창작한 시들에서도 《대동강》, 《해불》, 《독립문》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징의 수법을 리용하여 심오한 사상을 비유적으로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이것은 확실히 람인의 창작적개성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숙원을 안고 인민무력강화를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던 나날 람인은 군사주제의 서정시들도 창작하였다. 《포사격》(1948.7), 《장엄한 포병》(1950. 2) 등을 그 실례로 들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모두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노래하였다.

김람인의 해방후창작에서의 새로운 특징과 발전모습은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창조한데서도 볼수 있다.

그는 일반서정시를 많이 쓰는 한편 송시와 헌시도 창작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제 1 차회의에 드리는 헌시 《영광이 있으라, 승리가 있으라》(1948. 9)의 창작은 그 한 실례로 된다. 헌시는 민주건설의 위대한 승리우에 찬연히 빛나는 최고인민회의와 민주통일정부에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열렬히 축원하면서 조국의 통일과 완전독립에 대한 불같은 지향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람인은 《봄노래》와 《일하러 가세》(1947) 등 가사도 창작하였다.

《봄노래》는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의 새봄을 맞는 기쁨을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였으며 《일하러 가세》는 새 민주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창조적로동의 희열과 랑만을 형상하였다.

람인은 방문기, 실화 등 산문도 적지 않게 썼다. 《태양이 솟았다》(1948. 9)와 《김일성장군 항일유격전실화》(1948. 12)는 그 대표작들이다.

방문기 《태양이 솟았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서고 그 수위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게 된 우리 인민의 감격과 환희, 영예와 긍지, 충성의 결의와 맹세를 감동깊게 형상하였으며 《김일성장군 항일유격전실화》는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력사를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수령

님의 위대성과 빛나는 업적을 인민들과 군인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는데 이바지하였다.

광복된 조국에서 위대한 태양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시적재능을 꽃피우던 김람인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불타는 조국애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가장 높이 발휘되었다.

미제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람인은 남먼저 종군할것을 탄원했다. 종군의 길에 오른 그는 락동강도하전투를 비롯한 최전선의 불바다도 헤치었으며 적후투쟁의 간고한 시련도 뚫고나가면서 총천 병사, 종군기자, 시인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람인의 종군생활은 그가 한생을 두고도 체험할 수 없는 위대한 현실을 심장속에 새겨가는 뜻깊은 나날이었다.

분노에 끓어번지는 락동강도하장에서, 적후전선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람인은 종군서사시 《강철청년부대》를 써나갔다.

1951년 6월초 어느날 서사시의 원고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이 서사시에서는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기상을 아주 훌륭히 노래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동무는 종군작가의 전형이라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었다. 그리고 이 시가 잘될수 있는것은 작가가 어려운 전투에 수 많이 참가하여 인민군장병들이 당의 군사로선과 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용감하게 싸우는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썼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로부터 이틀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일군을 다시 부르시여 시를 한번 더 읽어보았는데 잘되었다고, 시의 정치사상적내용이 좋다고 만족해하시었다.

람인은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직무에서 책임 중한 사업을 맡아보게 되었다. 새 직무에 눌러앉기전에 전선을 한번 더 밟아보리라 결심하고 전선길로 떠났던 람인은 1951년 6월 14일 전선동부에서 전사하였다.

그의 최후에 대한 비보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람인동무를 한번만이라도 만나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면서 그의 사진이라도 있으면 가져오라고 이르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서사시원고가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으신 다음 김람인동무가 그 원고를 남기고 희생된것만큼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세상에 내놓도록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품은 싸우는 인민군군인들과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작품이 출판되면 그의 유가족들에게도 보내주고 자신게도 한책 보내달라고 당부하시었다.

김람인이 간고한 적후투쟁속에서 한줄한줄 엮은 《강철청년부대》는 인민군대의 피어린 적후투쟁력사에 대한 영웅서사시이다.

서사시 《강철청년부대》는 심원한 정치사상적 내용을 담고있다.

서사시앞에 제기된 형상과제는 인민군장병들의 불패의 위력과 영웅적위훈을 폭넓게 보여주는것이였다.

남녘 천리 넓은 전선 넘나들며  
원췌에게 불벼락 안긴 영웅들  
그 빛나는 전투위훈에  
축하를 드린다, 영예를 드린다

젊은 가슴가슴에  
눈부시게 빛나는  
수많은 훈장과 금별이여  
이제 그 승리의 기록 노래에 담아  
우리 영웅들의 이야기  
오고오는 세대에 길이 전하리라

서사시는 락동강도하전투에서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특히 적후 제2전선에서 발휘한 인민군장병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폭넓고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서사시는 인민군대의 불패성과 영웅적기상을 형상하면서 그의 원천을 심오히 밝혀냄으로써 정치사상적내용의 깊이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서사시는 먼저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성과 불패성의 사상정신적기초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놓여있다는것을 시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름없는 어느 높은 산 넘을 때  
엄허오던 환자들속에서  
노래소리 들려왔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수령에 대한 전사의 충성에 티 한점 없지 못하게 하려는 깨끗한 마음을 담아 그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수령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얼어드는 추위를 물리쳤고 참을수 없는 고통을 이겨냈다. 엄혹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그들의 심장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목숨바쳐 지킬 불같은 결의로 끓어번졌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그들은 결전의 길로 나갔다.

서사시는 불패성과 영웅적위훈의 사상정신적기초에는 또한 인민군장병들의 심장깊이 간직된 혁명전통이 놓여있다는것을 힘주어 노래하였다.

간고한 적후의 나날  
전사들 더욱 굳게 간직한것은  
조국광복의 해불 높이 받들고 나아간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불굴의 혁명정신

전사들의 가슴에서 마를줄 모르며 용솟음친 신념의 샘물은 피로써 이어받은 혁명정신이었으며 항일혁명선열들앞에서 부끄럼없이 살며 싸우려는 높은 자각이었다.

서사시는 인민군장병들이 어려운 적후투쟁과정에서 항일투사들이 지니었던 애국의 열정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 인민에 대한 사랑과 혁명적동지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과 전사들에 대한 지휘관의 사랑, 숭고한 희생정신과 불굴의 투지 등을 생활과 투쟁에 구현해나가고있는 모습들을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특히 격전뒤의 밤 땀에 젖은 옷들이 얼어붙고 온몸에 살얼음이 앉았으나 불한덩이 피울수 없어 몸을 서로 감싸주며 혹한의 긴긴밤을 새우는 전사들속에 항일투사인 련대장이 나타나 고달픔을 풀어주며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그 정신, 그 힘에 대하여 들려주었을 때 전사들의 가슴이 감격에 후터워져 어느덧 추위도 멀리 사라졌다는것을 노래한 시련들은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서사시 《강철청년부대》는 정치사상적내용이 심원할뿐아니라 특이한 양상적특징을 가진 종군서사시형식을 창조함으로써 이채를 띠는 작품으로 되었다.

조선문학사상 이 작품의 창작에서 처음으로 개척된 종군서사시는 종래의 서사시형식에 종군기적특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상구성에서 이채로운 특성을 띠게 한 새로운 서사시형식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에서는 어떤 형식을 리용하든지 규정된 틀에 내용을 맞추어 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생활은 예술에 내용을 주고 내용은 그에 맞는 형식을 요구한다. 내용은 형식을 통해 표현되면서 형식을 규정하므로 예술의 형식은 언제나 내용의 형식으로 된다. 어떤 작품의 형식이 좋다고 하는것은 그 형식이 내용에 맞고 내용을 선명하게 잘 표현하고있기때문이지 결코 내용을 떠나서 형식자체에 그 어떤 독특한 매력이 있기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니다.

람인은 《강철청년부대》에서 략동강도하전투로부터 시작하여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과정에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등지의 넓은 지역에서 벌린 피어린 투쟁과 다시 38선을 넘어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등의 광활한 전선에서 영웅무쌍하게 싸운 적후투쟁 그리고 도로 38선을 넘어서 때까지 원수들에게 불벼락을 안긴 강철청년부대의 영웅적위훈을 종군하면서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그대로 폭넓게 형상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창작의도는 영웅적인 시대와 생활에 대한 폭넓은 반영을 지향하는 서사시의 기능을 가일층 확대할 방도를 탐구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람인은 종군기적특성을 흡수하면서 서사시의 형상구성방식을 변형시키였다.

11월 18일 정오

춘천을 해방

뒤이어 이튿날 이른저녁

원두봉 남쪽에서 치렬한 전투

춘천, 가평 전투에서

적살상 450명

포로 160명

시인은 이와 같이 종군기적특성을 구현하여 1950년 7월 25일 전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951년 3월 제2전선에서의 적후투쟁이 끝날 때까지 남녘땅 광활한 지역에서 장기간 피어린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전개한 강철청년부대의 영웅적 위훈을 날자와 지명, 부대의 행로와 활동내용, 전투진행과정과 전과, 영웅들의 투쟁모습과 공적, 장병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와 생활기풍 등을 실재한 사실그대로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인민군장병들이 광활한 전선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웅적으로 싸워이긴 빛나는 승리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서사적화폭을 무수한 전투들과 광범위한 생활령역을 포괄하는 웅대한 시대력사적화폭으로 확대하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시인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일관한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그에 기초하여 정연한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던 종래의 서사시에서와는 다른 형상구성방식을 탐색하였다.

시인은 개별적인 구체적인물이 아니라 강철청년부대를 주인공의 위치에 세워놓고 김철만련대장, 오춘섭, 윤태준, 우종철, 리구하, 김하수, 송영식, 김운석, 황규찬, 천승준, 윤웅섭, 박순희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실재한 영웅들을 등장시키고있다. 그리고 그들 호상간에는 인간관계를 거의나 맺어주지 않고있다. 따라서 그들의 극적관계에 의한 이야기줄거리도 조직하지 않았다. 서사시의 줄거리는 강철청년부대의 투쟁행로에 따라 엮여지고있으며 개별적영웅들의 전투위훈에 대한 형상은 하나의 투쟁국면에서만 주고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그들이 발휘한 전투위훈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는바 그것은 한 전투에서의 공적을 형상할 때 그 이전의 전투들에서 세운 위훈을 함께 보여주는 수법으로 해결하고있다.

1950년 11월 23일 가평시가포위전에서 영웅리구하가 보여준 모범을 소개하면서 춘천전투에서와 송제동계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죽전리에서 넓은 방어선을 지킬 때 그가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감동깊게 이야기한것은 그의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리하여 주인공을 비롯한 몇사람의 전형을 창조하여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영웅적기상을 일반화하려는것이 아니라 수천리 전선을 넘나들면서 영용하게 싸운 강철청년부대의 투쟁공적과 수많은 영

웅들의 빛나는 위훈을 역사적사실 그대로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시인의 창작의도는 원만히 실현되게 되었다.

시인은 다양한 사건과 생활영역을 폭넓게 받아들여 서사적화폭을 확대하면서도 그것을 서정성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원칙을 튼튼히 지키었다.

그것은 다양한 서사적이야기와 화폭들을 시인의 찬양과 규탄의 열정으로 편결시키고 주정화된 설화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서사적생활이 불리일으키는 감정과 정서를 정열적으로 토로하는 주정토로를 적절하게 주고있는데서 명확히 볼수 있다. 후송로는 끊어진지 오래고 식량도 탄약도 보충받을데 없어 엄혹한 시각이 닥쳐왔으나 굴할줄 모르는 강철전사들이 서리발총창을 비껴들고 결전의 길로 내달렸다는것을 묘사한 다음 이렇게 주정을 토로하고 있는것은 그 뚜렷한 레증으로 된다.

사랑하는 포들아, 강철의 전우야!  
불을 토하거라, 복수의 불을 토하거라  
아끼고아끼던 4천발의 포탄이여!  
너는 번개같이 날아가  
놈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라  
전우들의 앞길 열어주자

서사시는 종군기적특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처럼 서사성과 서정성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나가고

있을뿐아니라 서사적화폭의 창조에서 고도의 집약과 함축, 서술의 간명성과 탄력 등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시적감흥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처음으로 창작된 서사시작품인 종군서사시 《강철청년부대》는 높은 정치사상적내용을 담고있을뿐아니라 특색있는 서사시형식을 개척한것으로 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주체적인 시문학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람인에게 혁명전사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칭호인 충신이라는 칭호를 안겨주시여 그를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8년 7월 8일 이미 우리결을 떠났으나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충직하였던 김람인의 작품집을 출판하며 그의 투쟁공로를 높이 평가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오로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불굴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살아온 충신 김람인의 한생은 비록 짧았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으며 그가 남긴 문학은 인민들을 충성과 위훈으로 부르며 주체문학의 화원에 영원히 피어있을것이다.

## 이 땅은 영웅이 많은 나라

조성관

나이를 상관하라  
열네살 영웅도 있다  
백년을 살았어도 쉬이는 지닐수 없는 그 이름

직위를 관계하라  
수수한 농촌아낙네영웅도 있다  
아무나 함부로 는 지닐수 없는 그 이름

적탄이 우박치는 전쟁터에서만이라  
한생 한목숨바쳐 위훈떨치고

그 이름 지닌 영웅의 탄생은

레사론 평화의 날에도  
수많은 영웅이 태어나더라  
그들도 한생 한목숨 바쳤으나 살아있는...

이 땅은 영웅이 많은 나라  
수령이 만대에 길이 빛날  
절세의 영웅이시거니  
그 품에서 자라난 전사들 또한 영웅이여라

## 청년시절을 값있게 살자

림종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지키고 대를 이어 혁명을 완성해나가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집권당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못할 때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빼앗기게 된다 는것은 역사적교훈이 잘 보여주고있다.》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 나는 처음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덧없이 흘러보낸 나의 청춘시절이 불쑥 상기되면서 이렇다할 이야기거리도 남겨놓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어렴풋한 추억속에 이따금 느닷없이 돌이켜보게 되는 나의 청춘시절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경험과 교훈이 되겠는가 하는 일종의 수치감이 나를 사로잡았기때문만도 아닙니다.

더우기 사로청 제 8 차대회를 앞둔 우리 시대의 청년전위들의 심장에 불씨를 심어줄 이렇다할 이야기거리조차 남기지 못한 나로서는 자기자책으로 하여 선뜻 붓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꽤 오래동안 궁싹거렸지만 좀처럼 붓을 들수 없었던 나는 뼈저린 후회감속에 나의 청춘시절을 다시 돌이켜보았습니다.

청춘시절을 값있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청탁이 왔으니 내가 선뜻 붓을 들지 못하는 심정을 아마 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것입니다.

허나 나는 문득 눈앞을 짝 메우며 달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떠올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편집부의 요청에 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한것은 내 스스로 창조하지 못한것이라 하더라도 나와 동시대인들이 이룩해놓은 청춘시절의 한 이야기거리가 결코 오늘 우리의 후대들인 청년들에게 무의미한것으로는 될수 없다고 인정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청춘시절은 벌써 40 여년전에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손자, 손녀들까지 척 앞세운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흔히 사람들은 청춘시절을 다 보낸 다음에 가서야, 특히는 인생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청춘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하고 개탄하곤합니다. 너무도 범속하고 평범한 그 말속에서 사람들은 홀

려간 인생을 놓고 애타게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

그러고보면 《청춘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평범한 말속에는 인생의 쓴단맛이 다 담겨있어 오늘에 청춘시절을 보내고있는 청년들에게도 심원한 뜻을 안겨주는것이 아닐가 싶습니다.

서둘러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이 평범한 말의 진가가 청년들이여,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이 귀중한 시절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자고 부르는 강한 호소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청년시절을 값있게 살라 !》

수많은 이야기가 이 한마디에 응축되어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값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티끌만한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가 흘린 피방울이며 땀방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청춘시절을 깡그리 바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야 그 값을 지닐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렬한 애국자가 못되거들랑 차라리 나에게서는 청춘시절이 없었다고 자신을 타매하는것이 그래도 량심적일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기에 서두에 독자들과 약속한대로 나는 나의 청춘시절의 이야기가 그리 몇몇한것이 못되기에 동시대청년에 대한 추억가운데서 짭작한 한토막을 소개하는것으로 대신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청춘시절의 첫발자국은 조국이 불바다속에 잠겼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해도 해빛밝은 교실의 창가가 어떻게 차레졌는지 그 고마움도 미처 가려보지 못한 나는 물덤병술덤병하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허송 세월하던 철부지였습니다. 나는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와서야 청년으로서 자기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딘가 하는것도 미처 가려보지 못하고 청춘의 첫발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천진하다고 하면 애송이마냥 천진하고 순박하다고 하면 천치처럼 순박한 이런 정도의 청년이었던 나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기회가 드디어 차례진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남진의 길에 들어선지 한 보름쯤 지난 어느날 새벽이었습니다.

진격하던 대대앞에는 락타등과도 같은 밋밋한 고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고지에서 미제침략자들의 총포탄이 벼락치듯 쏟아져내렸습니다. 대대의 진격은 우박치듯 퍼붓는 총포탄앞에 주춤거리다가 끝내

멈춰지고말았습니다. 희생자도 나오고 부상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놈들의 총포탄 세례를 받자니 눈에서 불이 일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해가 뜨면 가증스러운 적비행기의 악착스러운 공습앞에 룡선에 산개한 대오는 전멸될수도 있을만큼 위기일발의 순간을 속수무책으로 맞자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쳐들수 없는 적탄앞에 대대의 진격이 끝내 좌절되는가, 하다면 날뛴기전에 고지를 점령하라는 전투임무는 수행할수 없단말인가!

아니면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돌격전을 벌려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가!

조성된 정황은 이 두길밖에 더는 없었습니다.

남진의 매 순간순간이 거의다 그러하였지만 이날 새벽에 조성된 정황은 참으로 엄혹하였습니다.

말그대로 생사를 판가름하는 정황이었습니다.

몇차례의 전투경험밖에 없던 청소한 지휘관들도 이 엄청난 정황앞에 미처 결심이 서지 못했던가 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무 한대 없는 느릿한 덕지대에 엮여있는 대오도 수습할 경황조차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남진의 길에서 이날처럼 아슬아슬한 경우를 처음으로 당한 신임병사인 나에게조차도 소리치고싶으리만큼 애타던 순간을 처음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바로 이 찰나였습니다.

나의 옆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엮여있던 대대장(그는 불과 스물대여섯밖에 안되는 청년이었습니다)이 불쑥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를 따라 18살 나와 동갑또래인 애어린 연락병이 어느사이 수기만한 공화국기발을 총창에 달고 뒤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들 두 청년은 가슴을 펴고 고지를 향하여 《만세-》 함성을 치며 비호처럼 달려올라갔습니다.

그 만세소리는 잠시 주눅이 들었던 대오를 삼시에 돌격전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을 뒤따르던 나의 가슴에는 숭엄한 그 무엇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고지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발악하던 미제 침략자들도 애젊은 우리 청년병사들앞에 끝내 무릎을 꿇고 도주하고말았습니다.

조국이 준 명령은 청년병사들의 피끓는 충성으로 하여 영예롭게 수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대안에는 용감한 병사에게는 비발치는 총탄도 피해달아난다는 전사들이 창조한 격언이 퍼졌습니다.

이 전투가 있는 다음부터 모든 병사들은 청년전위였던 그들-대대장과 연락병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게 되었고 담력도 커졌고 병사된 사명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어느 부대, 어느 전선에서나 흔히 볼수 있고 쉽게 들을수 있는 하나의 삽화와도 같은 전투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내가 왜 이 평범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며 새 세대 청년들에게 하고싶은 하많은 이야기가운데 이 자그마한 전투삽화를 끄집어내어 귀중한 지면을 메꾸려고 하는것입니까?

굳이 말한다면 그들 두 청년병사로 하여금 무비의 담력을 지닌 조국의 아들로 키워낸 그 원천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것을 말하고싶어서입니다.

그 원천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이 생명보다 귀중함을 실생활로 체득한 참다운 애국심이었다고 단언합니다. 하기에 그들은 어머니조국이 당하는 엄혹한 시련을 자식된 도리로 가셔내겠다는 높은 자각과 사상적신념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칠지언정 조국을 수호하는 성전에 자기의 피와 땀, 청춘과 생명을 혼연히 내댈수 있었던것입니다.

혹 어떤 독자들은 이 평범한 이야기를 놓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도 있을것입니다. 나도 그런 정황에 처하면 의례히 그렇게 처신할수 있을것인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런 자리에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옛병사들과 자기를 대비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머니조국앞에 얼마나 깨끗한 의리와 투철한 신념을 지닌 병사였던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3년간의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나날을 회고할 때마다 그런 전우들을 동시대인으로 가지고있었다는데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더듬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런 혁명정신으로 살고있는가 하는것을 자문자답해보고 자신을 가다듬고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 피할길없이 어렵던 역경을 한순간에 순경으로 바꾸어 부대의 승리를 보장한 그 병사들의 얼굴이 생생히 떠오르며 자신의 양심을 그들이 지닌 혁명정신에 비추어보곤합니다.

그 두 병사-나의 청춘시절에서 것처럼 크나큰 인상을 남겨준 그들이야말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병사로서 어머니조국앞에 의리를 지닌 참된 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키워주신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를 더욱 꽃피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으며 모든 청소년들이 혁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이런 혁명의 3 세, 4 세들이 혁명의 1 세, 2 세들이 넘겨준 높은 혁명정신과 창조적능력을 받아안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에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조국이 번영하는것입니다.

청춘시절을 값있게 살려서 청년들에게 이 자그마한 이야기가 토양에 뿌리내린 새싹에 한방울의 물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하고싶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 이것을 자랑하고싶다

김석주

내 이즈음 자주  
가슴 뿌듯한 생각에  
자랑하고싶은것이 있다  
세상이 가지고있지 못한 그런것  
우리만이 가지고있는 그런것

그것은  
억만금으로 헤아리는 그런 재물도 아니다  
지구우에서 제일 층수가 높은  
그런 집도 건물도 아니다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도 물론 아니다

하지만 내 그것을 긍지높이 자랑하고싶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한 그런것

둘러보면 뉘과 량심을 팔고사는  
하나의 장마당과 같은 세상도 있건만  
나는 내 나라 사람들을 생각한다  
남을 위해 살며 일하고  
피와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이 사람들을

터지는 수류탄을 가슴으로 덮은  
자랑스러운 청년영웅들을 생각한다  
깨끗한 마음, 순결한 사랑을  
영예군인들에게 바치는 이 나라 딸들을 생각한다

우리러 어버이께 효성하고  
인민의 총복으로 사는것을 보람으로 아는 사람들  
날마다 눈물겨운 미담들을 낳으며  
나라의 곳곳에서 향기를 풍기는 인간의 마음이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던가  
이렇듯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그렇다, 우리만이 가지고있는 이런것

남들은 자연금의 크기나  
그 무슨 생산량을 자랑할 때  
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세상에 자랑하고싶다

리기와 탐욕으로 가득찼으나  
도금칠한 파쇠처럼 결만 번들거리는  
그런것을 부유라 문명이라 자랑할 때  
나는 우리 인민의 이 마음을  
지구우에 높이 들고싶다

이것은 해와 별의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것  
은혜로운 그 빛발아래서만  
그렇듯 꽃필수 있고  
그렇듯 향기를 풍길수 있는 마음이다

아니다 이것은 마음만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에서는 생각조차 못할 재부이다

그것은  
솟아오르는 언체이며 석탄  
창조와 기적의 원천이며 속도  
그 어떤 무게로도 가늠할수 없는  
무한하고 강대한 힘

이런 인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무엇인들 못해내랴  
그 어떤 재부인들 이 땅우에 펼쳐가지 못하랴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이것이 나의 조국이다  
우리 당의 시대에 한껏 꽃핀  
인간의 마음이 빛과 향기를 뿌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조국이다  
그래서 더 아름다워질 나의 조국이다



## 새 세대들의 모습

리종성

간밤에 내린 흰눈이 발목을 묻는데 탄장으로 반짝이는 《검은금》을 무뎡뎡 실은 탄차들이 연방 꼬리를 물고 들어선다.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신년사를 받들고 펼쳐나선 이곳로동계급의 높뛰는 박동이 가슴 뜨겁게 안겨왔다.

나는 아침교대를 위하여 인차에 오르는 탄부들과 함께 갯안으로 들어갔다. 막장휴계실에서 나는 젊은 굴진소대장을 만났다. 그가 나의 취재대상이었다. 안전모를 쓴 길쭉한 얼굴에 어글어글한 두눈이 유난히 영채를 뽐냈다. 나는 기자본연의 조급해지는 심정을 억누르며 취재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나와 마주 앉았던 그가 갑자기 나의 손을 움켜잡으며 웨치는 것이었다. 《아니 저를 모르겠습니까?》

나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보니 어디선가 한 번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다. 《저 몇년전에 덕천리관에서...

아 생각났다. 어깨에 상사의령장을 달고 달려와서 제가 쓴 시를 보아달라고 조르던 젊은 병사,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시인이 되겠다던 청년.

참으로 반가운 해후였다. 문학공부를 하겠다던 결심은 어떻게 하고 탄부가 됐느냐고 묻는 나의 물음에 청년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제대를 앞두고 소원대로 대학추천도 받았고 입학시험도 쳤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선뜻 그 길을 택하게 되지 않더군요.

온 나라의 청년들이 대흥을 비릇한 어렵고 힘든곳으로 진출하던 때이고 여기 덕천에서도 제대군인소대를 무는 젊은 청년들이런일 혁신을 일으키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대군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앞장에 서자구요...》

《우리가 시대의 앞장에 서자!》

가슴을 쿵 울리는 말이었다. 청년들이 시대의 앞장에 서자고 호소하며 어렵고 힘든곳으로 달려간 젊은이들의 모습이 천으로만으로도 헤아려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왔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년대기에 젊음이 넘치는 청년들이 기 쌓은 업적은 산을 이루고 바다를 메우고도 남았을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무장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시었을 때도 청년들이 그들의 사상을 받들어 선창 펴쳐나섰고 새 조국 건설, 전쟁의 엄혹한 시련도 사회주의 건설도 모두 우리 청년들이 말아하지 않았던가. 하여 력사의 매 갈피들에는 청년영웅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위훈이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

마침 들려오는 대공전화기의 호출신호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교대의 실적을 보고하라는 전화였다. 젊은 소대장은 소대의 굴진실적이 110 프로라고 보고했다. 계획을 넘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그의 목소리는 풀이 없어 보였다.

왜 계획을 넘쳐했는데 그렇게 대답이 기백이 없는가고 하자 그는 뒤더수기를 굵으며 뜨직뜨직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전투목표가 150 프로였는데 그 계선을 돌파 못했다는 것이다. 소대장 자기의 전투조직사업이 치밀치 못해 공간이 많았다고 자책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계획을 넘쳐하고도 놀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 못한 것을 두고 애타하는 인간, 이런 젊은이들이 석탄전선을 지켜섰는데 점령 못할 고지가 어디 있으랴.

나는 그가 소대원들을 바래주고 오겠다며 잠깐 자리를 뜬 기회에 책상 위에 놓고간 수첩을 펼쳐보았다.

탄은 나의 사람  
탄전은 나의 청년의 대학  
아낌없이 바치리  
나의 땀, 나의 열정, 나의 사랑  
검은 금, 너를 위해

수첩의 첫머리에 써여있는 글이었다.

몇줄 안되는 글이었지만 그의 내심에 끓는 열정과 불타는 결의가 소박하게 피려져 있었다. 어쩐지 무심히 볼수 없었다. 수첩의 중간중간에는 무엇인가 환상이 나래칠 때마다 그려넣은듯한 설계도 비슷한것도 있었고 도간도간 짧은 시들도 적혀있었다.

아 90 분 강의시간

너는 나의 광명의 시간

1 분 1 초 아껴가며 배우고 또 배워

세월을 앞당길 지식을 얻자  
찬란한 미래로 줄달음치자

대학강의를 받으며 휴식시간에 써넣은듯한 시구절, 미래에 살며 부지런히 경주하는듯한 청년.

나는 순간에 결코 그가 제대시에 다졌던 희망과 포부를 저버리지 않고 일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로동과정에 또다시 하나의 진정한 문학대학도 다니고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것이 90년대 우리 새 세대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희망이 어찌 아늑한 대학의 강의실들에서만 꽃핀다고 볼수 있으랴.

당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선뜻 발을 맞추고 장엄한 진군대오에서 힘차게 나아갈 때 청년의 리상도 꽃피고 참다운 삶도 빛날 일수 있다는 일념으로 사는 우리의 청년들! 그들은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워 영웅도 되고 작가도 되고 기사도 될 것이다.

문득 나의 눈앞에 지난해에 년간계획을 끝내고 일시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잔치상을 받아안던 김명일제대군인소대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리는 사랑에 오르는것은 충성이란 구절이 생각키운다.

우리 새 세대들은 태어난 첫날부터 사랑과 은정만을 받아오며 자라왔다. 그러니 그들에게 따르는것은 오직 불타는 충성이고 하나로 뭉친 힘은 산악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것이 아닌가.

나는 취재대상이던 제대군인소대장을 통해 여기 석탄전선을 지켜선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보았고 세월을 주름잡아 달려온 결의 목표대로 월계획, 분기계획, 년간계획도 어김없이 앞당기려하는것을 굳게 확신하였다.

조인공을 찾아 사랑의 태양등은 밝은막장길을 걷는 나의 마음은 봄날의 대지처럼 끝없이 끝없이 무뎡어올랐다.

## 실습보고서

허창근

## (1)

하늘이 아득히 높아지었다.

이마를 따스하게 지져주는 해벌이 좋다.

얼핏 스쳐지나가는 작은 바람결에도 여기저기서 누르러가는 잎사귀들이 싹싹 썩썩 바스락 부스럭 기척을 낸다.

교구멍을 간지럽히며 달짝지근하고 쌀쌀하고 새콤한 가을향기가 흘러든다.

끝없이 넓은 대지우에서 각양각색의 열매들이 제 나름으로 익어가며 더이상 품고만 있지 못하겠는 듯 소중한 녀석들을 뽐어놓는것이다.

이 가을날...

유설빈교수는 한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떠나가버린 안응준으로부터 뜻밖의 두툼한 편지를 받았다.

응준이 ! ... 편지봉투를 받아쥐고 가을벌이 새물새물 뛰노는 먼 창밖을 내다보는 유설빈에게 잠들었던 옛 추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산골내기... 뒤꼍이 지나치게 나왔지... 말이 적었지... 늘 발끝을 내려다보며 걸었고...

제고향이야기를 할 때면 두눈이 번쩍번쩍 빛을 내고... 그러다간 그윽한 향수를 담고 어린애의 눈처럼 부드러워지고...

덕인골 ! 하늘아래 첫동네였다.

산골은 산골대로 자랑거리가 있다고 했다.

산나물이 많다. 약초가 많다. 아홉살짜리 사내애가 90년묵은 산삼을 쫓다. 조반전에 뒤산에 올라가 송이버섯을 한마대씩 뽑아메고 내려온다.

가까운 산, 먼 산에 머루 다래... 온갖 산열매가 해마다 풍년인데 미처 다 따들이지 못한것들이 저절로 푹푹 물러떨어진다.

꿀벌이 유명하게 잘된다. 벌을 치지 않는 집이 없다. 사람이 오래 사는것이 특징이다.

장작불 때고 이밥 먹는 고장이라고 린근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산골강을 길들여 마을의 덕밭까지 모두 논으로 풀었던것 이다.

인심이 후해 마을 이름도 덕인이었다 !

늪집 아들이 군대나가는 날이면 온동네 남녀로소가 떨쳐나 시오리나 되는 《박죽바위》있는데까지 바래준다.

응준이가 대학으로 뽑혀오는날도 그랬다.

《자네가 농사일을 하면서 그리도 직심스레 그림공부를 하더니 끝내 성공을 했네.》

《장하이. 조선봉건왕조말년에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 화가가 나오기는 임자가 처음일세.》

《우물집 삼촌이 그림생각만 하다가 소한테 발등을 밟히고 제가 물던 달구지에 실려오던 일도 이젠 옛말을 하게 됐어요.》

《평양가서 살드래도 이고장을 영원히 잊지 마세요.》

《대학가서 쓰라요.》

나긋나긋한 손이 만년필을 끼워주고 누구는 학생장을 ...

《가다가 차칸에서 점심이나 사 자시게나.》

말릴새도 없이 호주머니에 손들이 련달아 들어왔다 나간다.

...응준은 졸업을 앞두고 졸업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북부지구에 있는 군전탄광에 실습을 나갔었다.

그런데 탄광에 나가서 창작실습을 끝내고 왔으나 작품을 완성해내지 못하였으며 끝내 졸업작품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후로는 가뜩이나 말이 적은 사람이 아예 병어리가 돼버리고 말았다.

졸업작품은 그 학생의 실력에 대한 마지막 평가로 되며 배치문제에서도 일정한 작용을 하는것만큼 유설빈은 응준을 두고 적잖게 속을 썩이였다.

훌륭한 장래를 기대하며 공들여 키운 제자가 미술가로서의 재능이 모자라는 사람이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설빈은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다가 응준이 자신은 고개를 짓수긋하고 묵묵히 지내더니 졸업후에 군전탄광으로 다시 내려가 로동을 하겠다고 제기해나섰다.

응준의 배치문제를 두고 두루 궁리가 복잡하였던 유설빈은 탄광으로 다시 내려가겠다는 예상외의 말을 듣고 아연했다.

무엇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고개를 떨구며 그저 《저는 그림그릴 재목이 못됩니다.》했을뿐이였다.

유설빈은 더 할소리가 없었다.

결국 안응준은 유설빈에게 허전한 인상만 남기고 탄광으로 떠나버렸다.

유설빈의 기억속에서 응준은 차차 희미해지었다. 유설빈에게는 제자들이 너무도 많았던것이다. 게다가 새로 입학생들이 들어오고 분망하게 펼쳐지는 새 사업이 유설빈을 바쁘게 굴었다...

1 년만에 날아온 편지 !

유설빈은 사뭇 초조해지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봉투를 뜯었다.

## (2)

...

선생님 !

저의 이 편지를 1 년전에 하지 못한 실습보고로 여기고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뒤늦게야 마음속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죄많은 이 제자를 부디 너그럽게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실습차로 군전탄광에 도착하였을 때 탄광에서는 새로운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복사갱 개발공사가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있었습니다.

복사갱 개발공사는 탄광을 현지도하시면서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진행하는 의의깊은 공사였습니다.

원래 복사갱 개발은 두해가 잘 걸려야 완공할수 있는 아름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채탄장을 마련하여 새해의 석탄생산계획을 제대로 보장하자면 복사갱 개발을 적어도 상반년안으로 해내야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탄광의 당면생산에서 걸리고있는 채탄장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협의회에 참석하시였던것입니다.

탄광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협의회에서 새 갱의 개발을 기어이 상반년안으로 무조건 끝낼것을 결의다지였습니다.

2 년이 걸려야 할 공사를 6 개월에 !

위대한 수령님께 이러한 결의를 직접 말씀드린 사람은 구명제소대장이였습니다.

그때 구명제소대장의 결의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채탄장을 새로 마련하는 문제때문에 걱정하였는데 소대장동무의 말을 믿고 나는 한시를 놓겠습니다.》 하시면서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고 합니다.

탄광에서는 복사갱 개발을 위한 돌격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구명제소대장이 돌격대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탄광에 도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구명제소대장을 주인공으로 하여 작품을 그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갱에 들어가 같이 착암도 하고 집에도 찾아가고... 차차 그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물다섯해전에 탄광개발자의 한사람으로 쏙대만 설령거리는 군전골안에다 첫삽을 박은 사람이였습니다.

탄광 개발당시 그는 갱 굴진지도원이였습니다. 별을 네알이나 달았다고 합니다. 그후 당의 고속도 굴진방침 관철을 위해 안타가이 모색하다가 자진하여 직접 굴진소대장이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 다섯축이나 제기하여 승낙을 받았답니다.

그때 탄광마을의 아주머니들속에서 《아무개아 버지가 과오를 범하지 않았는가? 별이 떨어진것을 보니...》 하는 말이 돌았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 구명제소대장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로동경험도 기술도 정열도 다 겸비한 일군이였습니다.

그를 알게 된 때로부터 저의 화첩에는 소대장의 이러저러한 모습을 소묘한 그림세부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몇십년전... 나무와 풀대만 무성한 산정에 개발자의 첫발을 짚은 구명제소대장을 상상하여 그린것이 있는가하면 복사갱 개발의 엄숙한 결의를 가다듬는 모습... 이 모든것들이 이제 저의 졸업작품의 밑천으로 될것입니다.

공사는 멋지게 진척되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 구명제소대장은 또 2 중속빼기발파법이라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해내였습니다.

2 중속빼기발파법에 대하여 알고계시는지요?

간단히 말하면 막장단면의 중심부위를 먼저 한번 발파하여 속을 뚫어낸다음 두번째의 기본발파로 전면의 나머지 버력을 허물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였습니다.

원래는 막장단면에 필요한 개수의 발파구멍을 뚫고 한번의 발파를 하는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새 발파법이 도입되자 거의 두배반에 달하는 버력이 빠져나오고 매 발파당 전진하는 막장의 깊이도 상당히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굴진공들의 하루하루 로동의 결과는 교대 시간안에 막장이 얼마나 전진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평가되는것입니다.

새로운 발파법이 곧 모든 굴진막장들에 도입되었습니다. 복사갱 개발을 위대한 수령님께 결의하신 기간안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은 탄광이 더한층 열기를 띠고 돌격전을 벌리였습니다. 시간 ! 오직 시간이였습니다.

그들은 여섯달이라는 기일을 시간으로 분으로 쪼개여놓고 계산하면서 전투를 하는것이였습니다.

구명제소대장은 새로운 발파법에서 또다시 때 발파당 삼십분이라는 시간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

중전에는 첫번의 속빠기발파를 한다음 발파가스가 가시여질 때까지 30분씩이나 기다렸다가 막장에 들어가 다시 장약을 하고 두번째 발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2차로 꺾어하던 발파를 동시에 터뜨리되 도화선의 길이를 짧게 하여 중심부위만 먼저 빠져나오고 1~2초후에 전면이 다 튀어나오도록 착상해내었던것입니다.

기적적이고 위력한 발명도 사실 착상해놓은 다음에 보면 얼마나 소박한것이겠습니까?

선생님!

구명제소대장이 새로운 발파법을 도입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그것으로 하여 나라에 준 리익은 영웅칭호감이라고들 합니다.

이제 공사가 완공되어 위대한 수령님께 마지막 보고까지 드리고나면 그 결과를 알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창작적흥분속에 날과 날을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담은 영웅적탄부들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낼것인가? 폭이 넓고 깊이가 있게... 그리고 참신하게... 세상에 없는 새 화폭을 만들어내자!)

저는 이번에 단단히 야심을 먹고 접어들어 참으로 멋진 작품을 그려내고싶었습니다. 첫걸음부터 단연 두각을 나타낼 작정이었습니다.

동서고금에 그림으로 한생을 보낸 사람들의 일화를 들추어보면 첫작품이 명작으로 되어 출세작이 되고 후세에 남은 레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다.

낮이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밤이면 창작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다간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그리고... 한밤을 꼬박 새우다싶이 하고서도 지칠줄 몰랐습니다. 아니, 지칠수 없는것입니다.

저역시 시간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제한된 실습날자안에 기어이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것입니다.

졸업-생활의 전환점에 이른 저로서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는 설사 마지막 한방울의 피까지 쏟아붓는다 해도 아까울것이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글썄... 저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왔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심장신경증에 걸리어 한밤중에 탄광병원으로 실려갔던것입니다. 젊은 혈기에 건강을 생각지 않고 좋은 작품을 그려낼 한가지 생각만 앞세우면서 지나치게 무리했던탓이었습니다.

구급치료를 받아 위험한 고비는 넘기었으나 그날부터 잠을 전혀 잘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면증이라는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창작적사색은 고사하고 일기 반폐지를 쓰고나면 벌써 심장이 후둑후둑 뛰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심장에 병이 들었다!

세상 가장 귀중한것을 비기여 부르는 심장, 더구나 정신로동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 좋아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문제గా 아납니까?

절망에 빠졌습니다.

졸업작품은 둘째치고 미술가가 되려던 장래의 꿈이 통채로 깨질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입니다.

(이틀 갈길 하루에 가고 열흘을 드러눕는격이 되었구나... 아 이 일을 어쩌면 종단말인가.)

자신의 신상에 부닥친 예상치 못하였던 불행을 생각하면 그저 막연하고 눈물겹도록 안타깝기만 합니다.

절세없이 갈마드는 이러루한 고민은 절대안정이 필요한 심장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고 그 부담은 병을 더한층 악화시킵니다.

잠을 자보려고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정신이 더욱 초롱초롱해지고 피발이 열기설기 건너간 눈은 짙짙하다못해 쓰러날지경입니다.

속셈을 썬다.

하나, 둘, 셋... 열다섯... 원...

그것도 하나의 잠드는 약이라고는 하지만 저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구명제소대장이 또 점심참에 작업복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도 번지지 않고 문병을 오는 소대장입니다.

《난방은 제대로 오는가?》

들어서자바람으로 창문밑의 방열기를 짚어보는 것이 인사입니다.

말이 무겁고 행동에 익숙된 사람인지라 그쯤하고 말지만 나를 내려다보는 측은해하는듯한 그 눈빛에서 오만가지 마음속 이야기를 듣는듯합니다.

첫날... 막장으로 직접 데리고 들어가서 《자 인사를 하시오. 평양에서 우리 탄광작품을 그리려고 화가선생이 왔소. 복사경 개발에 대해 그리겠대요. 이제 우리 탄광이 그림에 올라 후세에 영원히 남을 지도 모르오.》하며 좋아하던 사람... 식사때면 명심하여 영양제식당으로 데리고가곤하던 사람...집에 간혹 약간한 별식이 생겨도 잊지 않고 끌고가서는 귀빈으로 대접해주던 사람!

그의 마음들을 얼마나 허전하였겠습니까?

한참만에 《심장병엔 그저 잠을 잘 자는게 으뜸가는 약이라니.》하며 떠나갑니다.

그말조차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저에게는 《이제는 더 기대를 가질 여지가 없는 사람이나.》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가슴이 몹시 답답해합니다.

또한차례 진통이 올 징조입니다.

유설빈은 편지장 권손을 가늘게 펴며 눈을 꼭 감았다.

(그랬됐구나 이 사람이...)

심장에 심한 부담이 실리면서 갑갑해난다.

진분홍색 머리등을 병긋거리며 다급한 경적속에 질주해가는 구급차에 유설빈 자신이 실려가는 듯한 환각마저 든다.

(응준이! 어쩌면 심장이 글썽...)

유설빈은 애틋한 동정심에 잠기며 제자의 이름을 조용히 외쳤다.

졸업당시 자기는 그림 그릴 재목이 못되노라고 겨우 대답하고는 더 말을 하지 않던 응준의 심정이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이 간다.

(그런데... 꼭 탄광에 다시 내려가야 할 근거는 무엇이란 말인가?)

유설빈은 후유-긴숨을 내뿜며 담배를 붙여물었다. 제자의 가슴저런 하소연이 어서 끝나기를 바라며 편지장에 가까스로 눈길을 돌리었다.

### (3)

...

이튿날 구명제소대장이 《요람》을 만들어왔습니다.

요람!

선생님은 탁아소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애기들을 눕혀놓고 보육원들이 자장가를 부르며 사랑살랑 흔들며 잠재워주는 움직이는 침대말입니다.

《공무직장에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일이 바쁘다구 말을 잘 듣지 않는걸 자꾸 쑤셔댔더니 허허너석들이... 심장병엔 잠을 잘 자고 안정하는게 으뜸가는 약이라길래 이런 궁리를 해봤는데 효과가 나겠는지...》

지나가는 소리처럼 말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해내게 된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묵묵히 진정을 부어주는 구명제소대장의 마음이 눈굽을 뜨끈하게 지쳐줍니다.

담당간호원처녀는 또 어떠하였겠습니까?

순간이라도 방을 비울세라 극진하게 돌보아줍니다.

침대머리에서 밤을 새우다싶이 하면서 환자인 나보다도 더 안타까와하는것이었습니다.

세상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줍니다.

그때 소심장에 령사가루를 넣은 보쌈만 하여도 여덟개나 제손으로 만들어다 먹여주었습니다. 그것도 가마에 삶으면 약효가 적어진다면서 진흙으로 감싸가지고 탄불에 구워서 익힌것이었습니다.

소심장은 어디 가서 그리도 많이 구해오는지...

고마움을 못이겨 물어보았더니 새무시 미소지을뿐입니다.

시진이 흐르고 날이 감에 따라 저는 언제나 눈같이 하얀 위생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연하게 화장을 한 동그스럼한 얼굴에 눈길마저 위생복의 색깔처럼 순결하고 온화한 간호원처녀의 보살핌에 습관되었습니다.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 호흡이 편

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것처럼 처녀의 가볍고 조용한 발자국소리와 약냄새 연하게 섞인 그의 체취가 곁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것이였습니다.

환자의 육체와 정신력에 새로운 활력을 소생시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있는 그가 어쩌나 돌보이던지...

얼굴 생김처럼 이름도 수수합니다. 구선희라구...

알고보니 구명제소대장의 막내딸이였습니다.

소대장네 집에 여러번 갔었는데 어쩌서 한번도 본 기억이 없었는지...

그러던중... 그날의 일은 저의 가슴에 참으로 심각한 파문을 일으켜주었습니다.

대지가 부푸는 봄, 새싹이 움트는 봄밤이였습니다.

들꽃 한뫼음을 가지고 들어와 머리말에 있는 꽃병에 꽂아놓은다음 처녀는 조용히 침대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요람을 조심히 흔들어주며 속삭입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빨리 병고칠 생각부터 해야지요 뭐. 오늘부터 제가 재미나는 옛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저에게 천가지도 넘는 옛말이 있습니다.》

《??...》

살랑살랑 불어드는 향긋한 봄바람속에 밤이 깊어가고 소곤소곤 이야기도 깊어집니다.

《옛날도 아득한 옛날이였어요.

바다건너 먼곳에 살기좋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그 나라에는 겨울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나무가 푸르고 고운 꽃이 피고 새들이 우짖고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지니고 의 좋게 살았답니다...》

선생님! 간호원처녀의 옛말은... 제가 이미 동화책에서 읽어 알고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아는 내색을 내게 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눈앞에는 간호원의 옛말속에 등장한 지혜로운 처녀의 그이후 생활이 영화를 보는것처럼 앞질러 떠오르는것입니다...

요람은 쉬임없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천길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처럼 도란 도란 흘러나오는 간호원의 차분한 목소리... 눈앞에 펼쳐지는 옛말속의 신비스러운 생활...

저는 어쩌지 자기의 희생적인 행동으로 그릇된 마음을 먹었던 임금을 감동시키고 만사람의 신변에 부닥친 불행을 가시여주는 행복의 천사같은 옛처녀를 마주하고있는듯하였습니다. 간호원처녀가 그렇게 생각되는것입니다.

에나 지금이나 처녀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마음씨 고올가… 이것이 꿈나라에 살듯이 잠겨들면서 제가 하게 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동쪽하늘에 아침해가 솟아오르고 입원실 창문에 붉은 노을이 진하게 물들었을 때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병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고났습니다. 심신이 편안하고 정말 살것 같았습니다.

마음껏 기지개를 하며 눈을 뜨니 글썽… 간호원 처녀가 정다운 눈길로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있습니다 !

새 아침을 맞으며 연하게 화장을 한 발기우리한 볼, 류달리 영채가 도는 크지 않은 눈, 머리기름을 발라 윤기나는 까만 머리카락… 신선한 머리기름냄새… 어제저녁부터 앓은 자리에 그대로 굳어져있는 것이나 아닌지 ?

《이젠 됐군요 !》

그림처럼 침대머리에 앉아 지켜보고있던 처녀의 눈귀에 눈물이 펴고 여가지고 어련해처럼 밝게 미소짓습니다.

(저 구슬알이 흘러내리면 분을 바른 볼에 얼룩이 생길텐데…)

이런 천진한 근심이 순간에 머리를 짹 채웁니다. 때맞춰 처녀가 부끄럼을 탈줄 모르는 사람처럼 서슴없이 손가락끝으로 눈곱을 닦았습니다.

그모습 !

울며 웃으며 만시름을 놓았다는듯 좋아하던 처녀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수 없을것입니다.

저는 그때 녀성의 눈물이 가지고있는 표현할길 없는 매력을 처음으로 느껴본것 같습니다.

내가 잠을 잘자고난것이 어찌하여 처녀에게 그토록 큰 기쁨으로 되는것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

생각은 자꾸만 이 한곳으로 파고듭니다.

점차 선명하게 깨달아지는것이 있습니다.

(아-이 처녀가 나에게 판마음을 두고있지 않는가?… 그래 저건 분명 그것이다.)

내가 도달한 결론에 나자신도 놀라왔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는가… 이게 큰일이구나.)

아직도 채 완쾌되지 못한 심장, 웬만한 반응앞에서도 놀라기 잘하는 가슴이 그저 진정을 못하고 두근거립니다.

저는 간호원처녀가 언제 방에서 나갔는지조차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조금후에 담당의사가 들어오고 과장선생이 또 찾아오고 간병원어머니까지 무슨 경사가 생긴것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문안을 오고… 하였으나 저는 새롭게 머리를 짹 그려쥐고있는 하나의 걱정에서 말끔히 벗어처나올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를 위해 기울이는 선희동무의 정성은 고맙기 그지없으나 그 처녀를 놓고 이성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배우자 선택문제는 미술공부에서 프르크하게 성공을 본뒤에 심중히 연구해볼 작정이었습니다.

종기는… 미술가의 안해답게 지성수준이 높고 그러면서도 가정살림 돌볼 시간이 비교적 푹푹한 직업을 가진 대학졸업생처녀, 외모도 뛰어나게 잘생기고… 후리후리한 키에 무용수처럼 날씬한 몸매시, 목소리도 맑고 부드럽고…

선희동무는 소박하고 성실하나 그저 탄광마을의 수수한 처녀일뿐입니다.

그렇게 놓고보면 저는 여태껏 선희동무에게서 도저히 갚을수 없는 빚을 지고있는셈이었습니다.

(야단났구나…)

저는 병원에서 당장 도망이라도 치고싶었습니다.

…

유설빈은 편지장을 슬며시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뚜걱뚜걱 구두발소리를 내며 창턱에 다가섰다.

창문을 활 열어젖히었다.

습기를 머금은 습습한 바람이 차갑게 불어들어 오고 먼 하늘에서 우르릉-우뢰소리가 굴러온다. 엷은 구름장들이 찢기며 엉키며 부산스레 밀려온다. 차차 하늘이 어둑어둑해진다.

매아닌 가을비가 후둑후둑 맑은 유리창을 갈기기 시작한다.

앞마당에 씻은듯 정갈한 몸매로 서있는 은행나무의 노란 잎사귀들이 기진한듯 한잎두잎 떨어져내린다.

굳어진듯 서서 한동안 담배연기를 피워올리던 유설빈교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책상앞으로 다가갔다.

편지의 다음부분을 읽어내려가는 교수의 눈앞에 그날 점심무렵에 입원실에서 벌어졌다는 일이 방불히 펼쳐진다.

## (4)

…안응준은 침대우에 앉아 묵묵히 바깥을 내다보고있었다.

입원실 앞마당에 꾸러놓은 소공원은 이른봄철이라 아직 한산한 느낌을 준다.

물이 나오지 않는 분수, 찬기운이 풍기는 세멘트외자, 가지영성한 버드나무들… 갓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나무아지에 참새 두마리가 쭈크리고 앉아 지절댄다.

입원실 문이 켜-열리며 간호원처녀가 들어왔다.

그 처녀가 문소리를 이렇게 크게 낸것은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발자국소리조차 알릴세라 조심스레 걸어들어오곤 했었다.

《제가 기쁜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 ?…》

웅준은 눈이 보이지 않게 웃는 처녀를 멍하니 마주 보기만 하였다.

《고향에서 형수님이 오셨어요. 조카애도 왔어요. 병원정문에서 이자 방금 전화가 들어왔어요.》

《어-영 ?》

참으로 뜻밖이었다.

않는다는 소식은 물론 탄광에 실습 나와있다는 것도 미처 알리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가? 어떻게 이 공교로운 날에 꿈같이 나타났을가?

웅준은 기쁜 생각보다도 이러루한 의문이 두서없이 떠오른다.

《어떻게 알고 여기로... ?》

자신없이 중얼거리었다.

《제가 편지로 알렸어요. 입원했을 때 인츰 편지 할가 하다가 다시 생각해보고 완쾌되기 시작한 다음에 알려졌지요 뭐.》

《?! ...》

그때 청진기를 손에 쥐고 복도로 지나가던 담당의 사선생이 환히 웃으며 문앞에 멈춰섰다.

《선희동무가 사기났구만. 이젠 선희동무 국수를 먹게 되겠나? 참 화가선생에게도 이젠 알려드려야지.》

선희동무가 화가선생 병때문에 휴가까지 미뤘답니다. 정해놓았던 잔치날까지 연기하구... 제가 담당한 중환자를 두고 자리를 뜨지 못한다고 고집이였다우.》

선희는 얼굴이 활짝 붉어지며 곱게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나 대답소리는 시원스러웠다.

《이젠 국수를 대접하겠어요. 화가선생님도 초청합니다.》

《좋소 ! 》

의사선생이 주먹을 내흔들며 사람좋은 얼굴에 환히 웃음을 띄우며 사라지였다.

웅준은 멍하니 서있기만하였다.

(그런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당치않은 생각을 하고있었는가?)

웅준은 그만에 무릎마디가 후두두 떨려서 더 서있지 못하고 침대에 슬그머니 주저앉았다.

온몸이 나른해났다.

아무 궁리도 나지 않는다.

다만 이 아름다운 처녀에 대하여 속된 지레짐작을 하였던 자책감, 처녀의 고귀한 정성을 모독했다는 가슴저린 죄의식...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처녀의 얼굴에서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마음씨를 새롭게 감득하며 낯나간 사람처럼 올려다보았다.

《어서 나가보지요.》

처녀는 어린애처럼 발을 구르며 재촉하다가 반응이 굼뜬 웅준의 팔소매를 잡아당기였다.

웅준은 처녀의 날씬한 손목을 두손으로 조심히 움켜쥐며 마른침을 삼키였다.

《선희동무는 어떻게 되어 그리도 환자에게 세심히 정성을 기울일수 있소?》

《저야 간호원이 아니나요? 직업이 원래...》

례사롭게 대답하고나서 뒤말을 잇는다.

《선생님이 빨리 나아야 좋은 그림을 그리지요. 우리 아버지도 절보고 늘 걱정이랍니다.》

(직업이 원래 그렇다 ! ... 이 처녀는 나를 위해 기울여온 자기의 그 지극하고 성실한 노력을 응당 그해야만 되는것으로 여기는구나. 직업적인 의무감으로... 그런데 나는 어째서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너절한 개인본위의 사고방식때문이었어. 그대 바로 그것이었어. 그것이 눈뜬소경이 되게 했어. 실습작품을 완성하려고 심혼을 깡그리 쏟아부을 때도 그 밑바닥에서 강렬하게 작용한 감정은 무엇이었던가? 바로 그것-자신의 뒤통에 대한 갈망이었지...)

웅준은 두손으로 천천히 앞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창문앞으로 다가갔다.

서늘한 바람을 맞으니 얼굴이 더한층 난로앞에 선것처럼 화끈화끈해났다.

-직업이 원래 그런걸요-

간호원처녀가례사롭게 하던 대답이 그냥 귀가에서 떨어지지 않고 들리는것 같다.

직업 ! ... 누구나 많이 또 수월히 외우곤하는 말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지고있는것이 직업이다. 소중한것이다.

직업이라는 두 글자는 또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것인가 !

아득한 태고적부터 인류는 로동을 통하여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부를 창조하였으며 발전의 길을 개척하였다.

로동과정에 네발걸음이 직립보행으로 발전하였으며 몽둥이가 석기로 그다음엔 청동기로, 철기로 ... 로동수단도 부단히 발전하였다.

그 나날에 생산력은 장성하여 먹고 나머지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원시적인 공동로동이 분업으로 발전하고 각자는 자기생존에 가장 유리한 제나름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직업... 그때로부터 수수만만년이 흘러간 오늘도 인간은 각자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산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사람들도 누구나 자기의 직업을 소중히 여긴다.

왜 ?

무엇때문에 ?...

선희는 ? ...

그리고 나는 ? ...

나는 무엇때문에 직업적인 미술가가 되려고 이날이때까지 그토록 노력하였던가?

웅준은 언제 형수와 조카애가 입원실에 들어섰는지조차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형수와의 상봉도 그저 쏴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조카애가… 응준을 올려놓고야말았다.

조카애의 돌덩이같은 중량이 응준의 가슴에 사정없이 꽂 안겨들며 오동통한 손가락이 목을 휘감고 놓아주지 않는다.

한참만에야 그애는 고개를 잔뜩 젖히고 올려다보며 이런 말을 줄줄 외워바친다.

《삼촌- 나 어제 탁아소에서 표창탔다. 붉은 별 !》

《오… 뭘 잘해서 탔나?》

《낮잠시간에 낮잠을 제일 잘자서 탔지.》

《…?!》

조카애도 또 잠에 대한 이야기다 !

낮잠을 잘자서 표창을 탔다 !

응준은 가슴 복판이 찡-저러오르며 이상하게도 소리없는 눈물이 불쑥 솟아났다.

간호원처녀가 밤새워 환자의 침대머리를 지켜주듯이 먼곳의 그 보육원도 쉼근쉼근 단잠을 자는 조카애의 요람가에 앉아 그애들의 가슴에 표창으로 붙여줄 붉은별을 만들었울것이다 !

간호원처녀, 보육원녀인, 그들의 세심한 마음씨-그것이 바로 어머니조국의 다심한 손길이 아닐가 !

어른도 아이들도 다같이 안기여 사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세상에서 으뜸으로 살기좋은 고향인 내 나라의 품이 아닐가 !

응준은 코물을 흘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그래그래 용타. 삼촌도 어제밤에 잠을 잘자서 표창났다.》

《에-거짓말…》

응준은 그러는 조카애를 꼭 그러안아주었다. 말큰한 살결과 젖냄새 비슷한 정든 체취에 취하며 그애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눈을 꼭 감았다.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아… 나서 이날 이때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대학공부까지 하고 병나면 무상으로 치료받으며 살아왔건만 어찌하여 나는 인간이 이렇게 시시해졌는가?)

삼촌과 조카가 함께 앉아있는 요람이 오래동안 멈추지 않고 흔들림을 춤을 추었다.

응준은 그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그냥 앉아있었다.

간호원처녀가 떨어지기 싫어하는 조카애의 손목을 끌어갔다.

《오라. 오-라, 좀 안아보자마.》

자기의 무릎위에 간신히 끌어다 앉혀놓고 온갖 듣기좋은 칭찬을 해대며 거둑거둑 머리카락을 쓸어준다.

응준은 그러는 처녀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참으로 속이 깊고 마음이 깨끗한 처녀이다.

그런데 참 그 옛이야기는 왜서 들려주었을까?)

혹시 그때 벌써 나의 뒤통이를 알아차리고 미슬가가 돼서 남을 교양하려면 제마음부터 깨끗하게 먹고 희생정신을 가져야 된다는걸 말하고싶어서 우정 그 동화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응준은 서슴없이 의심스러운것을 털어놓았다.

《선희동무가 들려준 옛이야기는 어떻게 알게 된겁니까?》

선희는 참지 못하고 호호 웃어버리었다. 얼굴까지 활짝 붉어진다.

《제가 간호원이 되어 처음으로 밤근무를 서는 날이었어요. 새벽녘에 저는 그만 깜빡 졸음에 취해 주사시간을 10 분이나 어겼어요.

그일이 어찌나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던지… 집에 들어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주사시간을 어긴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뭘. 너무 속이 상해서 좀 후련해질가 하고…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쑤이 없다가 저의 머리를 째뼉한 손으로 쓸어주며 이리더군요.

〈10 분이라… 어찌보면 작은것이지. 또 그시간을 어겼다해서 환자의 병이 더해지는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시간을 크게 볼줄 알아야 한다. 인생의 한 토막을 잃었던 말이다.

자신만을 위해 바친 시간은 사실 목숨이 붙어있어도 죽은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해야 되지만 특히 간호원들은 남을 위하는 품성을 제목숨처럼 중히 여겨야 해.

하여튼 네가 그 잃어버린 10 분때문에 고민을 하는건 좋은 일이다. 이제 마음놓고 자도 되겠다. 자거라…〉

그러면서 그 옛말을 재미있게 들려주시더군요. 전 그 동화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되어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

유설빈은 긴숨을 후련히 내뿜었다.

변덕을 부리던 하늘이 열리고 금가루같은 한줄기 햇빛이 비쳐내리었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가로비껴든다.

햇빛은 유설빈의 책상우를 밝게 물들인다.

유설빈은 손더듬으로 담배를 찾아물며 편지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 (5)

선생님 !

그러나 제가 졸업후에 기어이 탄광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게 된 사연은 그후에 있었습니다.

…탄광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작품창작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미전에 그리다만 작품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것은 아니었지만 고상하지 못하였던 지난 시기의 생활관과 깨끗이 결별하고싶은 격한 감정이 어찌보면 무모하다고도 볼수 있는 그런 결심으로 자신을 추동하였던것입니다.

구명제소대장! 오직 그를 내세우고싶은 하나의 심정을 가지고 새 작품의 구도를 잡았고 세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제목은 《준공의 날》이였습니다.

제가 환상하여본 준공식날 장면입니다.

맑은 하늘, 푸른 산밭... 그 아래에 남너로소 펼쳐나선 탄광구내가 꽃바다에 묻혔습니다.

복사갱에서 석탄을 실은 첫 탄차가 꽃다발, 꽃테프를 가르며 빠져나옵니다.

이 모든것을 배경으로 구명제소대장이 화폭의 중심에 부각되었습니다.

성스러운 로동으로 이어진 한생이 다 어린듯한 구리빛 얼굴, 희속희속한 귀밑머리... 사연많은 한 알짜리 탄부령장이 또렷합니다. 가슴에는 영웅메달이 금빛을 뿌립니다.

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향하여 그윽히 빛나는 궁지에 넘친 눈길!

그의 내심의 목소리!

《수령님! 복사갱 개발을 수령님앞에 맹세한 날자에 어김없이 끝내였습니다!》

화폭은 주인공의 이 환희에 넘친 독백과 감격에 북받치는 감정뿐만아니라 군중의 환호성과 꽃물결의 설렘 그리고 온 탄광골안에 차고넘치는 훈훈한 봄날의 향기마저 다 발산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구상을 화폭우에 살아움직이는 현실로 재현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림없이 창작실에 들어박혀 전투를 벌였습니다.

준공식날전에 기어이 작품을 완성하려는것입니다.

복사갱 개발이 제날자안에 끝나리라는것이 이미 확정적이였습니다.

준공식날에 완성된 작품을 구명제소대장과 탄광의 전체 로동계급앞에 내놓자!

이것이 드릴수 없는 저의 각오였고 결심이였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건강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그때의 제 심정은 솔직히 말하여 《이번에는 쓰러져도 좋다. 그들을 위해 헌신분투하다가 쓰러진들 그거야 무서울게 있는가.》하는것이였습니다.

아, 그런데...

저의 이 마지막 결심마저 포기하게 될줄이야...

복사갱 개발은 결의다진 날자보다 보름 더 앞당겨 끝났습니다.

저의 작품도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화폭에서 붓을 댄 저는 바빠바빠 준공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만세의 함성속에 탄광골안이 드릉드릉 메아리를 일으키고... 복사갱에서 석탄을 듬뿍듬뿍 실은 첫 탄차가 빠져나오며 고고성을 더뜨립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을 빼들고 키돋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뭉클 달아옵니다.

제가 해낸 일이라도 하듯 가슴그득 감격이 북받칩니다.

멀리 가없이 푸른 평양쪽 하늘가를 향해 눈길을 보내며 조용히 뇌입니다.

《수령님! 군전의 영웅탄부들은 보름이나 더 단축하였습니다!》

저는 한참후에야 갱구옆에서 구명제소대장을 찾아내였습니다.

희속희속한 화강석덩이우에 작업복차림으로 앉아있습니다.

폴썩폴썩 담배연기만 피워올립니다.

얼굴색을 보니 무슨 시름을 안고있는 사람같습니다. 분명히...

《소대장동지 축하합니다.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

《이젠 만시름을 잊고 발편잠을 쉼봐야지요. 입 가진 사람들은 모두들 영웅감이라고 치하합니다. 지금...》

하고 다시금 속을 풀어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글썽...

《화가선생, 사람이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는것이 참으로 가슴아픈 노릇입니다. 공사를 이렇게 더 앞당길줄 알았더라면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앞에 보름을 더 단축하겠다고 시원히 대답드리는건데... 그랬더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였겠소. 글썽... 탄광일이 넘려되시여 이곳까지 몸소 찾아오신 수고 많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저는 그만 입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한참만에야 구명제소대장이 이릅니다.

《그러구서두 우리가 지금... 장한 일을 해내었다고 영웅칭호요 표창이요 하구들... 가슴부터 내밀자고든다면 이제 불효자식의 처사가 아니고 뭣이겠소?》

그가 갈망하는 기쁨은 이러합니다.

기쁨, 행복을 바라는것은 인간의 고유한 본성일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에서는 구명제소대장과 저에게 얼마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것입니까!

저는 그저 뺨을 한개 되게 얼어맞은것 같았습니다.

그순간에 저의 작품이 완전히 실패의 운명에 처하였다는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가슴이 섬찍하였으나 이견 피할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량심이 내리는 엄격한 선고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진심을 모르고 환희에 넘친 주인공의 모습을 꾸며낸것자체가 부끄러운것이다. 이 사람은 아마 작품을 본다면 나에 대하여 환멸을 느낄것이다. 사람의 진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작자라고...)

이렇게 되어 저의 실습작품은 첫선도 보이지 못하고 영원히 빛을 잃고말았습니다.

그러는사이에 실습날자도 다 지나갔습니다.

정작 떠날 때가 되니... 탄광사람들에게는 술한 페만 끼치고 빈손으로 대학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맑은 하늘조차 뿌옇게 흐려있는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과연 그림 그릴 재목이 되는 인간인가?)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자꾸만 심각한 사색에 빠지게 되더군요.

구명제소대장, 간호원처녀... 탄광생활의 나날에 알게된 사람들의 불같은 모습들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고... 제판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숭고한 정신세계에로 선도하는 작품창작을 필생의 업으로 삼으려 했다는것이 가소롭게 생각되기까지 하였습다.

그 고민이 제가 대학에 돌아간 이후에도 머리에 서 가셔지지 않고 괴롭혔던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하였습니다.

(탄광에 내려가자. 평생에 화가가 못되는 한이 있어도 우선 성실한 탄부가 되자. 자기를 깡그리 태워 열과 빛을 만들어내는 석탄처럼 자신을 준비하자. 탄중에 알짜배기 고열탄처럼... 그다음에 그려도 그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나니 한결 속이 편안하였습니다. 그리고보면 탄광에 내려와 실습을 한 기간이

결코 허무하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두가지 측면에서 심장병을 고친셈이었지요. 나의 병을 고쳐준 은인들-성실하고 소박한 탄광사람들이 진정 고마왔습니다.

제가 배낭을 지고 트렁크를 들고 탄광에 다시 내려가 구명제소대장을 먼저 찾아가니 귀밑까지 수염그루가 거뭇게 울려덮인 그가 마당에 달려나와 억센 두팔로 나의 어깨를 꼭 그려안아주며

《아-정말 왔구만 ! 말이 그렇지 떠나면 어떻게 다시 오라 했더니 정말로 왔어. 반갑소. 반가와...》하고 탄광골안이 떠나갈듯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러고도 속이 풀리지 않는지 잣나무숲이 꺼뭇게 독을 쓰는 먼 산발을 바라보다말고 결절한 목소리로 뒤말을 잇습니다.

《우리 탄광이 올해에 횡재를 하누만. 채탄장을 새로 마련했지, 게다가 화가선생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영 ! ...하참...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구만... 이서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주소.》

선생님 !

저는 가끔가다 큼직한 작품을 그려보고싶은 창작적충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첩에 차곡차곡 소묘를 해넣을뿐 아직은 참습니다.

좀더, 좀더... 준비한 다음에...

유설빈은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이윽도록 창가에 서있었다.

어느덧 말끔히 벗겨진 하늘에서 눈부신 해빛이 풍만하게 쏟아져내리고 물기를 머금은 거리가 번쩍 번쩍 윤기를 낸다.

(응준이, 고맙소 ! 동무는 이제 멋진 그림을 꼭 그려낼게요. 그려내고말고... 동무야말로 진짜배기 화가가 됐소. 졸업실습을 훌륭히 했거든.)

## 가사

우리 함께 지내온 3년세월이  
어느덧 빨리도 흘러갔구나  
오늘은 우리 서로 헤어지지만  
래일엔 위훈안고 다시 만나자

벗꽃이 날리던 봄날의 아침  
교정에 들어서던 우리 아니냐

## 다시 만나자

(총련) 박정순

어깨걸고 공부하던 어제날처럼  
다정한 벗으로 다시 만나자

헤어지면 그리운 우리 동무들  
갈길은 멀고멀어 힘에 부쳐도  
험난한 이역에서 조국을 배운  
그 뜻을 꽃피우고 다시 만나자

## 고향의 모습에서

리영환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가 제일이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 어느 고장보다도 사랑한다.

나에게도 사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성실을 바치고 싶은 고향이 있다.

나의 고향은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북변의 서해바다 기슭이다. 풍만한 젖소의 젖인양 축 쳐내린 철산반도에 젖꼭지처럼 돌아난 장수곶, 해변이면서도 산과 겹겹이여 산에는 약밤나무 우거졌고 산기슭엔 고래논이 단목처럼 누워있으며 도래곶이에는 기암괴석들이 파도속에 발을 묻고 수평선 저 멀리에는 고기배들이 점점이 떠있는 고장.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나 겨울날 길손이 찾아들면 움속에서 저장했던 약밤을 한바가지씩 꺼다가 화로불에 튀기면서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산골마을.

경치도 좋고 인심도 좋고 어물과 약밤이 특산으로 이름났으니 세상에 내 고향이 제일인 줄로 안다.

하지만 나는 이보다도 소박하면서도 의리가 깊은 고향사람들의 성실성에 대하여 더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

얼마전에 나는 고향에 다녀왔다.

그때 나는 사회와 집단과 동지들을 위하여 참되게 살아온 한로당원의 뜨거운 소행을 전해들었다.

그는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원샷가량 된 수수한 《우편통신원》 어머니였다.

리소재지에서 우리 마을까지는 20 리길이 넘는데 바다기슭을 따라 오느라면 풍산령이라는 높은 고개가 나진다. 전쟁전까지만 하여도 대낮에 벌이 어슬렁거렸다는 산세 험한령이다. 이 험준한 산비탈의 벼랑턱을 따내고 자동차길을 닦았다. 자동차길은 푸른 바다를 굽어보며 오불오불 뻗어갔다.

통신원 어머니는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30 여년을 하루와 같이 이 고개를 넘나들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불룩한 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집집을 찾아가다녔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새 소식을 실어다주는 것보다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었다. 그러기에 결혼한 뒤 자동차운전사인 남편이 양복점으로 돌아갔을 것을 권했지만 자기 일터를 바

꾸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새 소식과 기쁨을 날라다주는 것이 그의 행복이고 기쁨이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흰눈이 펄펄 쏟아지는 어느 날 깊은 밤중이었다. 눈사람처럼 되어버린 통신원 처녀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환희에 넘쳐서 부르짖는 것이었다.

《반장아바이, 경사가 났어요. 우리 마을이 래일 아침 소리방송에 나온대요. 반장아바이랑, 분조장아랑, 삼순이랑... 농사차비를 잘한다고 모두 소개한대요.》

며칠전에 방송기자가 우리 마을을 다녀갔다. 그것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다. 처녀는 바로 그 소식을 교환수 처녀한테 전해 듣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밤중에 눈덮인 령길을 넘어온 것이다. 그는 그길로 또 분조장네 집으로 뛰어갔다. 이렇게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잠자는 사람들을 깨웠다...

그는 바로 이런 여자였다. 인간의 가치란 남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있으며 그 길에 자기를 바치는 것을 삶의 전부로 생각한다.

그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복무의 정신을 안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다.

지난해 가을 어느 휴식날에 있는 일이다. 남들이 다 쉬는 날이지만 신문을 배포하는 일을 미룰 수 없어 그는 자전거를 끌고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풍산령 중턱에 주저앉아 다리쉬를 하였던 자동차길 옷쪽 절벽면에는 소나무며 자작나무가 기묘하게 뿌리를 박고있어 병풍의 그림처럼 신기스러운데 가파른 경사를 이룬 산기슭에는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바야흐로 질어가는 빨간 단풍은 불길처럼 산발을 휩싸고 싱그러운 바람결을 타고 한껏 무르익은 산열매 향기가 코를 간지럽히며 풍겨온다. 바다가 모래불에서는 청년들이 웃고 떠들며 야유회를 벌여놓았다.

통신원 어머니는 모래불에서 뛰노는 젊은이들을 대견하게 굽어보며 호젓한 미소를 지었다. 풍작거리리는 손풍금에 맞추어 2중창을 부르는 처녀창가의 노래소리는 들을수록 좋다. 서로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군중무용도 구경스러웠으며 어죽을 끓이면 남비무경을 펴주는 소리마저도 경쾌한 음향으로 들려왔다.

언제까지고 그대로 앉아 행복에 넘친 그들을 지켜보고 싶었다.

바로 그때 등뒤에서 무엇인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돌아다보니 절벽에서 떨어쳐나온 굴러왔다. 한바퀴 또 한바퀴... 닦알도 설 때가 있다고 바위는 길코숭이에 곤두섰다. 잡자리가 없어도 다시 굴러날수 있는 일발의 순간이었다. 바위가 굴러나면 도래곶이에서 뛰노는 사람들이 잘못될수 있다.

통신원 어머니는 비호같이 달려가 바위 밑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바위가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중압으로 너인의 연약한 어깨를 내리눌렀다. 그는 자기의 작은 어깨로 못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냈다.

이것이 내가 고향에 갔을 때 처음으로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참으로 생각이 많다. 과연 그 통신원 어머니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간직되어있기에 이처럼 건인 불발의 희생성을 발휘할수 있었을까?

그는 자기보다 먼저 동지들을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기쁨에서 자기의 기쁨을 찾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참된 인간이었다. 누가 보건 말건 사심을 모르고 량심에 충실한 숨은 애국자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과 수령께 기쁨을 드리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일생을 변함없이 혁명적의리를 지켜 살아가는 것이다.

협력과 단결의 관계가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의미덕이 하나의 기풍으로 되고있으며 물과 공기처럼 떼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통신원 어머니와 함께 우리 고향에는 다섯아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낸 아바이도 있으며 영예군인들에게 시집간 쌍둥이 처녀가 있는가 하면 가족소대를 못하고 석직건장에게 달려간 가정도 있으며 일곱아이를 데려다 키운 교원부부도 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우리 고향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에서 내 조국의 모습을 보았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생활기풍이 차고넘치는 우리 사회

에서는 누구나 다 동지들과 조  
직을 먼저 생각할 줄 알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위하  
여 복무하는 숭고한 사랑으로,  
현연적인 관계로 일심단결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땅에서 태어난 것  
을, 이러한 조국,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을 무한한 영광과  
행복으로 생각한다.

둘러보면 사회와 집단은 어떻  
게 되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는 개인이기주의와 약육강식이 살  
판치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전에 나는 이러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어느 한 자본가는  
수명이 다된 러객선을 보험에 넣  
고 마지막 항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철면피하게  
배를 띄웠다. 태평양을 헤엄치는  
그 배에는 백수십명의 러객들이  
타고 있었다. 배는 낡아빠진데  
다 풍랑을 만나 증도에 수장되고  
말았다.

탐욕스러운 수전노가 노리는  
몇푼의 보험금때문에 무고한 사  
람들이 무리죽음을 당했다.

바로 이렇다. 자유와 황금만능  
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향락과 부귀를 위해서는  
사회와 집단은 안중에도 없고 지  
어 부모형제간에도 서로 속이고  
죽이고 협잡하고 물고뜯는다. 이  
것이 《오직 자기의 돈벌이와 리  
윤추구만이 인간생활의 최고목  
적》이라는 부르조아인생관이  
빚어낸 생존경쟁의 산물이다. 그  
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근로자  
들이 극소수의 착취자들에 의해  
여 무참히 짓밟히고 뜯기우고 죽  
어가고 있다.

사람이 저 혼자만을 위해 산다  
면 그것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바 없으며 그렇게 천년을 산  
들 무엇하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  
게 살아온 사람은 비록 짧게 살  
아도 영원히 사람들의 추억속에

남아있는 법이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제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고  
모진 광풍이 지구를 휩쓸어도 우  
리 나라에는 집단주의의 맑은 공  
기만이 차고넘친다.

나는 이것을 내 고향의 모습에  
서 똑똑히 보았다.

그렇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하여 온 나라가 하  
나의 정치적생명체로 굳게 단결  
되어있기에 내 나라는 나날이 튼  
성번영하는 것이다. 하나로 된 인  
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야말로 세상에서 제일이며 영원  
히 필승불패할 것이다.

고향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이  
고마운 사회를 위하여 더 성실히  
일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졌다.

## 증오의 공간

신병강

한발자욱 두발자욱...  
나는 지금 세여보고있다  
신천의 두 화약창고사이 거리를  
세여보면, 세여보면  
내 보폭으로 꼭 선여덟발자욱

오호, 가슴이 터진다!  
백발자욱도 못차는 이 공간에  
그리도 애끓는 목소리가 울려  
갔단말인가  
부르다 찾다 속타 죽으라고  
야수들이 늘큰 피타는 그 시간이  
파연 이 공간에 흘렀단말인가

세월은 흘러  
련꽃봉 언덕엔 봄향기 서렸어도  
그날의 화염속에 킁-킁-막히  
는 가슴이다!  
구름 맑은 하늘에 아이들의 노  
래가 울려도  
그날의 아우성에 찌르는듯 아  
픈 심장이다!

더 말해 무엇하랴  
공간이여, 신천의 공간이여!  
너는 오늘도 그 공간속에  
수천수만의 발자욱을 불러  
한자욱 두자욱...

총탄처럼, 탄창에 재워지는 총  
탄처럼  
복수의 이 가슴에 재워주며  
말없이 분노를 끓여주거니

이 순간  
증오의 섬광으로 번뜩이는  
내 눈앞으로 똑똑히 다가선다  
선여덟발자욱의 이 공간을 천  
만배로 곱한  
600 리 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풀숲이,  
40 여년 무거운 침묵으로 흐  
르는  
그 저주로운 공간이

그 공간으로 하여  
오늘은 저 남녘에서  
그날의 400 어머니들처럼  
그날의 102 어린이들처럼  
피타게 부르며 찾고있다

그 공간으로 하여  
세월을 넘어 분렬의 비극을 안  
고 통탄하는  
겨레의 웨침소리 구천에 사무  
치고  
민족분렬의 반세기를 부르는  
빠져린 시간이

이 땅에 흐른다!  
이 땅에 흐른다!

오, 신천이여, 증오의 공간이여!  
600 리로 넓어진 너의 공간처럼  
가슴속 증오도 백배해-  
마주보는 눈길마다 불처럼 타

는 사람들  
순간도 그칠길 없는  
피맺힌 겨레의 부름소리 들으며  
승냥이 미제를 단죄하거니

나는 여기서  
총천 병사의 자격으로 단호히  
선언한다!

피의 반세기- 쌓이고 덧쌓인  
분노한 인민의 가슴속 화약고  
가 터져

미제- 네놈들과 총 결산할 때  
똑똑히 기억하라 미제승냥이  
들아!

인류의 량심에 네놈들 용서할  
단 한치의 공간도 있을건가  
오직 무자비한, 무자비한 복수뿐-  
네놈들이 이 지구상에 삶을 부지할  
마지막 단 한치의 공간도 없으리라!

# 어서 오세요

제 2 부

손광수

어디선가 들려오는 재치있는 드럼소리와 함께 경쾌한 화고트 선율.

가까이 보면 아름다운 꽃속에 묻히운 대성산 동물원의 전경.

돌금봉어의 입속에서 꽃보라 인양 터져나오는 분수속에 텔레비죤자막이 나온다.

홍겨운 장단에 맞추어 호수가에서 춤추는 진귀한 새들, 꽃목걸이를 걸고 손저어부르는 성성이.

라조들이 날개를 펴고 노닐며 호랑이, 원숭이들이 거기에 화답한다.

눈같이 하얀 흰공작이 날개를 펼친다.

공작새의 날개가 정지되면서 제명

어서 오세요  
제 2 부

두 처녀가 즐겁게 웃으며 자기 일터로 달려간다.

## 찬봉의 집

침대우에서 꿈꾸고있는 찬봉.

《그녀석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단말이지.》

이때 상업부에서 지도원을 하는 셋째사위가 무엇인가 가득 담긴 구력을 들고 들어선다.

《어머니!》

《아이구 셋째가? 출장을 갔다더니...》

《예. 방금 오는 길입니다. 아버지께 세세요?》

《에이구...》

따분한 표정을 지으며 웃방을 넘겨다보는 순복.

웃방으로 들어가는 셋째사위.

## 웃방

누워있는 찬봉을 바라보며 놀라는 셋째.

《아니 아버님 이거...》

노숙을 떠는 셋째.

셋째를 보는 찬봉 갑자기 억울한지 말을 더듬는다.

《...민패 그녀석이 나를 속였네... 가족회의를 줄지에 풍지박산되게 만들어놓고 바빠맞으니 까 뽕소니를 쳤지.》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헛참, 그것도 모르고 수팔한다고 맥주까지 들고갔던 생각을 하면...》

자리를 고쳐앉는 찬봉.

《그래서 제제조치를 취했네. 이제부터 맥주공급은 없어. 물닭같은 녀석...》

그모양이 우습기도 하고 나중엔 동정까지 불러일으키는지 셋째가 팔을 주무르며 사근히 말한다.

《헤헤 아버님, 너무 걱정마십시오. 은아를 제가 한번 꼬드쳐 보겠습니다.》

《영? 자네야 그애 뒤처리를 하재두 고양이 소대가리 말은 격인데... 호호 고맙네.》

## 성성이야와놀이장

여기로 다가오며 놀라는 은아. 성성이가 위생복을 입고 솔과 비자루를 가지고 물청소를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호호호...》

너무 놀라고 기특해서 허리를 그러쥐고 웃는 은아.

《애 은아야, 너 무얼 보고 웃니?》

지나가던 명애가 다가선다.

《명애, 우리 대성이를 봐. 저걸 보고서야 어디 참겠어?》

《영?》

그제야 은아의 위생복이며 수건을 쓰고 놀아대는 성성을 보고 함께 웃는다.

물호스를 처녀들한테로 돌려대는 성성이.

물벼락을 받는 처녀들.

《어마나. 아니 처녀석이...》  
《좋아라 웃어대는 성성이, 처녀들과 놀자고 한다.》

성을 내는 명애.

《대성이... 너 정말...》

《명애, 욕하지 마. 대성이라도 사람흉내를 내보겠다는거야.》

《영?》

처녀들을 피해 그물망우에로 올라가는 성성이.

은아가 정겹게 손짓한다.

《대성이, 내려와요. 어서... 서워말구...》

내려오는 성성이.

《저기 옷걸이에 옷을 걸어...》

옷을 벗는 성성이. 옷걸이에 옷을 걸고 은아에게로 온다.

놀라는 명애.

《호호... 제법인데...》

《은아, 오늘은 애기동물사의 첫 검진날이다. 경실이한테 가져...》

《참 내가 왜 그걸 잊었을까?》

나비마냥 날듯이 손잡고 꽃밭속을 달려가는 두 처녀.

-이어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애기동물들의 세계가 펼쳐진다.

-어미젖을 먹는 코끼리새끼와 말.

-어미의 뒤다리를 깨물며 재롱을 부리는 새끼범.

## 애기동물사

동화적으로 꾸러진 새끼동물집들.

귀를집안에서 창문너머로 얼굴을 내미는 새끼곰.

먼산을 바라보는 강아지.

재롱을 부리는 알라딘송이새끼.

뿔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철봉에 매달리는 새끼성성이.

여기로 달려오는 은아와 명애. 새끼들을 돌보던 경실이 거운 대마냥 거수경례를 한다.

《애기동물들 차렷! ... 총연출동무, 호호. 애기동물들은 지금... 밥을 먹고있어...》

《호호. ...》

새끼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을 보고 웃고 떠드는 처녀들.

《은아동무, 애기범...》

명애가 은아의 품에 안겨준다.

《어때. 인공포유하니까 영양이 딸리지 않아?》

《아니, 초유를 먹이니깐 일없어. 호랑이 어미품에 있을 때보다 무게가 600g 이나 늘었는데...》

호랑이새끼를 애무하는 은아.

《오, 그래. 요 귀엽둥이들아. 이제 크면 서로 싸우지 말고 놀아야 한다. 여기는 너희들을 위한 행복의 동산이야. 어서 커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렴. 알겠지.》

《호호호...》

즐겁게 웃는 처녀들.

《은아, 이제 이것들이 조금만 크면 본격적으로 제주훈련을 시킬수 있겠지.》

《그럼. 그런데 먼역이 작아질수 있으니 방역에 관심을 뒤야겠어.》

울타리너머에서 그 모양을 바라보며 머리를 긁적거리는 직장장.

《가만, 〈애기동물사〉를 꾸리는 열성으로 〈물동사양관리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 첫째의 집

피아노앞에 앉아서 작곡을 하는 첫째.

악보에 무엇인가 또 기입한다. 청소하던 첫째의 처가 다가와 불평조로 이야기한다.

《아니, 여보, 아버지가 알아주었는데 말사위가 이르고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야 어디. 아니 여보, 그걸 내가 모르오. 어디 짬을 낼수가 있는가?》

이때 문을 열고 들어선 민패, 히죽이며 다가온다.

《형님- 호호호.》

돌아보는 첫째.

《아 동선가?》

반기는 첫째 처.

《오래간만에 오셨군요.》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악보를 들여다보는 민패.

《형님은 여전하시군요. 아 저형님, 아버지가 나때문에 몹시 노하셨는데 좀 도와주시구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말이지 은아 하는 일이 옳긴 옳지요. 허 참.》

《아니 일을 하겠으면 똑바로 해야지 사위라는 사람이 가시아버지까지 알아듣게 하고 이게 어디 일이 됐나.》

《예?》

아연해지는 민패.

### 동물원 정각아래

직장장과 은아가 무엇인가 토론하며 지나간다.

《직장장아바이, 대성이에게 자전거도 배워주고 철봉도 하게 하는게 어때요?》

기본이 좋았는지 선뜻 대답하는 직장장.

《영? 비행사는 시키고싶지 않느냐?》

《예?》

《오토바이도 타게 하구 승용차도 배워주려무나.》

《그게 정말이에요요? 야!》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은아.

### 앵무새실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하는 만삼.

동팔이가 권투장갑을 들고 기뻐서 소리치며 달려들어온다.

《여 만삼이, 자 받으라.》

권투장갑을 던지는 동팔. 열결에 그것을 받아드는 만삼의 놀란 얼굴.

《영? 이건 뭐야?》

《여, 은아동무의 발기와 이 동팔의 보증으로 네가 다시 곰사로 가게 됐다.》

너무 기뻐 눈물까지 글썽해지는 만삼.

《뭐 그게 정말이야?》

《자식, 다시한번 동물들을 혹사했다간 알지?》

만삼이 권투장갑을 끼고 동팔의 얼굴을 때린다.

《이 친구 사람을 어떻게 보구 이래?》

철창에 벌렁 나가넘어지는 동팔.

자기 얼굴을 연방 때리며 좋아하는 만삼.

《후-이젠 살았다.》

만삼 너무 좋아 쇠울타리를 쾅충쾅충 뛰어넘으며 달려간다.

### 길

곰사로 뛰어가는 만삼을 정겨운 눈매로 바라주는 은아의 얼굴.

저편 쟁사에서 일하던 직장장도 흐뭇해한다.

곰사앞에 있는 조각곰을 애무하는 만삼.

《자식, 보고싶었다.》

### 곰사안

곰 권투장갑과 의자를 둘러메고 들어서는 만삼.

반기며 인사하는 만삼.

《호호호. 〈봉화〉, 그새 잘있었나. 자 앉아.》

앉으며 손을 내미는 곰.

곰과 불을 비비는 만삼.

이윽고 장갑을 끼워주려고 한다.

《에라 또한번 시작해봐야지. 자, 장갑끼고.》

그러나 곰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 왜 이래? 이자식 이거 벌써 다 까먹었어?》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곰.

혈압을 올리는 만삼.

장화목에서 채찍을 꺼내든다.

《야, 또한번 맞아보겠어?》

불안하여 얼굴을 피하는 곰.

《일어서라! 야, 가라!》

곰이 일어서서 간다.

《앗!》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려조기는 만삼.

곰이 항복하듯 두손을 든다.

그제야 얼굴에 미소를 담는 만삼.

《오라!》

만삼에게 오는 곰.

장갑을 끼워주고 훈련하는 만삼.

### 한편 성성이 야외훈련장

입재주를 부리는 성성이.

성성을 쓸어주는 은아.

《호호호. 〈대성〉이 오늘 기분 좋았구나. 우리 자전거훈련할가.》

머리를 끄떡이는 성성이.

자전거기초훈련을 시키는 은아.

휴식참에 력기를 드는 성성이.

은아가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반복훈련을 시킨다.

### 한편 곰훈련장

무제한한 완력으로 곰과 맹훈련을 하는 만삼.

### 다시 성성이야외훈련장

장단에 맞춰 누워서 발재주를 하는 성성이.

흐뭇해하는 은아.

### 찬봉의 집

바지를 입으며 나갈준비를 서두르는 찬봉.

《아니 여보, 그몸으로 어딜 가시려구 그러우?》

《언제 내 몸 돌볼새 있어? 어느 녀석도 발동이 걸리지 않는데...》

《예? 호호 당신두. 사위들이 무슨 늙은 오토바이라구...》

《뭐라구? 썩 비키지 못해!》

순복을 밀어내고 나가는 찬봉, 오토바이모자를 집어든다.

앵무새가 놀려댄다.

《할아버지 안녕!》

《오! 됐다 됐어. 빌어먹을...》

앵무새에게 샷대질을 하나 또 다시 놀려대는 앵무새.

### 첫째네 집

딸딸이 반기며 나온다.

《아니, 아버지 아프시다더니 좀 어떠세요?》

들려오는 피아노소리.

《첫!》  
발걸음 죽어가며 들어서는 찬봉.  
피아노를 치는 첫째.  
《여보,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제야 일어서며 인사를 하는 첫째.  
《아버님 오셨습니까?》  
《허허. 역시 자네 재간엔 귀신도 춤을 추겠군!》  
앞에 다가온 손자에게 오토바이모자를 씌워주며 재촉하는 찬봉.  
《자 어서 한번 더 타보라구.》  
《예?》  
《자 어서.》  
그제로 다가가 피아노앞에 팔을 잡아 앉혀주는 찬봉.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첫째.  
선물에 맞추어 미풍에 흠날리는 창문보.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가만!》 하고 소리치르는 찬봉.  
《저, 짐승들도 음악을 좋아할 테지!》  
《예? 하하... 일정한 리듬과 선물은 동물들의 세포를 발전시키고 그리구 뇌수를 흥분시킨답니다.》  
무릎을 치는 찬봉.  
《맞았어... 내 군대에서 나팔을 배울 때...》  
팔을 빼들고 나팔부는 시늉을 하는 찬봉.  
《...이거 뭐든가...》  
《하하. 트럼본이란 악기입니다.》  
《그럼 트럼본! 아 내 그걸 볼 어대니까 온 동네 개들이 모두 모여서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하더라 말이야...》  
《예! 하하하, 초음파를 가려 듣는 동물들이니까요.》  
《영? 초음파?》  
눈을 크게 뜨는 찬봉.  
《헌데 왜 그러십니까?》  
《오, 내 좀 생각되는게 있어서...》  
《허허 아버님, 제일만 바쁘다고 복잡한 집안일에 미쳐 관심을 돌리지 못해 안됐습니다.》  
그제야 속을 털어놓는 찬봉.  
《허... 물닭같은 민폐녀석한테 속은건 그런대루 넘길수 있겠지만 문제는 은아야.》  
아 맹수관리를 시키면 겁이 나서 제발로 나을줄 알았는데... 허갈수록 심산이라더니... 어디 나을 꿈이나 꿰? 허 이제와서 맹수관리를 그만두라는 소리도 할수 없구. 정말 딱하게 됐네...》  
《...》  
반짝이는 찬봉의 눈.  
《저 임자가 초음파자극을 주는 곡을 하나 써주게. 아 맹수들이 야단을 치게 말이야.》  
《예?》

《아무래도 은아보다 우리안에 있는 맹수가 약해...》  
《하하하...》  
허리를 그러안고 웃는 두사람.  
눈굽을 찌던 첫째...  
《아버님, 너무 걱정마십시오. 제 은아를 한번 만나 얘기해보겠습니다. 하하, 오죽 속을 태웠으면...》  
잔등을 두드려주는 찬봉.  
《음 그래도 집안에서 믿을건 임자야...》

**동물원 편뫼가**  
은아가 까불거리며 첫째아저씨와 만나다.  
《...그러니까 첫째아저씨 아버지 보낸 렴탐군이 아니란말이죠?》  
《렴탐군? 하하... 나야 너희들의 동물재주를 처음부터 지지해 준 사람이 아니냐.》  
《그렇긴 한데...》  
믿지 못하겠다는듯 머리를 긁어대는 은아.  
《은아야, 아버지는 너를 연구소에 보내겠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바라는 보람이 어찌 연구소에 만 있겠나.》  
《정말 그래요.》  
《그러니 이미 결심한대로 힘껏 내밀어라.》  
《예.》  
《이제 아버지두 너희들의 동물재주가 완성되운 나라 사람들의 사랑과 애무를 받을 땐 참으로 기뻐하실게다... 우리 아저씨들도 뒤에서 적극 밀어주겠다.》  
《아, 그게 정말이예요?》  
어린애마냥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은아.  
《그럼.》

-음악속에 본격적인 재주기초 훈련이 시작된다.  
개유희, 원송이 재주를 하는 청년들, 그속에서 곡의 상을 토론하는 첫째와 은아.  
-도립을 서는 육중한 코끼리.  
또다시 한발로 걷기를 하는 코끼리.  
-곰 두발걷기를 시키는 청년.

**풀밭**  
세 처녀가 꽃송이를 손에 들고 따라잡기를 한다.  
웃고 떠들며 달려가는 은아와 처녀들.  
잔디밭에 주저앉았다.  
《애들아, 이제 우리 동물재주가 성공되면 어떻게 될가?》  
《축하의 꽃보라속에 묻히겠지.》  
하고 명애가 명상에 잠겨 말한다.  
《응?》  
창공을 바라보는 은아.

경실이 은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한다.  
《야 그때 밀린 잠이나 실컷 자겠다. 우리 애기동물들과 같이...》  
여전히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은아의 눈가에 환희의 빛이 어린다.  
《난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질것 같애...》  
놀라는 두 처녀.  
《응? 갑자기 눈물은 왜?》  
《동물재주를 보면서 관람자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가.》  
승엄해지는 두 처녀.  
《야, 넌 어쩔...》  
계속되는 은아의 목소리.  
《직장장아바이가 하시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 어느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다섯마리의 기린이 비행장에 도착하였을 때였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다섯마리의 기린을 위해 운수부문과 안전부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비상회의를 여시었다나...》  
놀라는 명애와 경실.  
《뭐 비상회의를?》  
계속되는 은아의 목소리.  
《응.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동물들을 운반하겠는가 해서말이야.》  
감동어린 경실의 말.  
《야, 정말 그 기린들이 그걸 알거나 할가?》  
《우리 동물들이 다 그런 잇을 수 없는 사연을 안고있지뵤.》  
명애는 뜨거운 걱정을 어쩔수 없는듯하다.  
동무들을 돌아보고 밝게 웃으며 말하는 은아.  
《애들아, 우린 동물재주를 하면서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해.》  
《응! 난 재주를 배워주면서 수의사공부를 할래.》  
《호호. 난 애기동물들을 키워낼래. 그 일도 누가 해야겠지.》  
《호호호...》  
시뫼이 나서며 말하는 명애.  
《은아는 동물재주 연출가, 난 수의사, 경실인 애기동물들 기르는 탁아소보도...》  
《호호호...》  
이마들을 쏘아리고 마주보며 웃어대는 정열적인 처녀들.  
풀밭에 누는 처녀들.  
푸르른 창공에서 부서져내리는 해빛, 해빛. 숨가쁘게 여기로 달려오는 한 처녀.  
《은아동무! 은아, 만삼동무가 곰을 불판우에 올려놓고 춤을 추고있어.》  
놀라는 세 처녀.

72



《호호. 그럴가요?》  
 하고 나가는 은아.  
 《그렇지 않구...》  
 혼자소리.  
 (허 그것들이 좋아할리가 있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소리.  
 가까이 보면

**작곡가방**  
 열정적으로 동물재주곡을 창작하고있는 첫째.  
 이때 문이 뚝뚝히 열리더니 찬봉이 들어온다.  
 조용히 문을 닫는 찬봉.  
 악보를 기입하다가 기척소리에 돌아보는 첫째.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미안해하는 찬봉.  
 《헤. 사색을 방해해서 이거 안됐네.》  
 《허허. 일없습니다.》  
 《임자 은아에게 어떤 곡을 써주었길래 관상용이 나에게 전화를 걸게 했나...》  
 《예? 하하. 아버님, 은아한테 준 음악은 아버님이 부탁한 음악이 아닌데요.》  
 《응? 예익 사람두.  
 거 짐승들한테 자극을 준다는  
 초음파 그 곡이 이건가? 자 한번 들어보세...》  
 악보를 꺼꾸로 놓고 뒤적이는 찬봉.  
 그것을 바라보며 웃는 첫째.  
 《저 이걸 아직 미완성곡입니다.》  
 《호호 일없네. 곡이 어떤 상인가 하는거야 내 어련히 가려듣지 않으리...》  
 마지못해 피아노앞에 마주앉는 첫째.  
 할수 없이 피아노를 친다.  
 점차 불협화음으로 번져가는 피아노선율.  
 그것을 들으며 찬봉의 환상세계가 펼쳐진다.

-길길이 날뛰는 호랑이들.  
 -미친듯이 돌아가는 곰들.  
 -기겁을 하고 돌아가는 처녀 관리공들.  
 -음악속에 성성이가 피상하게 소리를 지르며 사납게 달려든다.  
 -얼굴을 찌푸리는 은아와 처녀들.  
 -원숭이무리들과 사자무리까지 덮쳐든다.

생각에서 깨어나는 찬봉 호탕하게 웃는다.  
 《허허...》  
 드디어 멈춰서는 피아노선율.  
 《됐어... 자네 거 신기한 묘안을 생각해냈네그러. 틀림없어...》  
 《예?》

첫째 여전히 어처구니없는 인상이었다.  
 피아노선율의 양상이 바뀌면서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타는 첫째의 얼굴속에 기술훈련장면이 펼쳐진다.

**동물원구내**  
 -곰사양공 청년이 곰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있다. 《하나둘 하나둘...》  
 -자전거에 발을 올려놓는 곰.  
 -원숭이 룬던지기, 룬잡기 훈련을 하는 청년4  
 -공굴리기 훈련을 하는 호랑이. 연방 뿔을 던지는 멧돼.  
 -여러마리의 코끼리가 두발서기 훈련을 한다.  
 -자전거를 타는 곰.  
 -철봉 대차를 도는 성성이.  
 성성의의 잔등을 두드려주며 연습시키는 은아의 열정적인 얼굴.  
 -넋빠진 사람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만삼, 앵무새를 안고있다.  
 -청년들이 말을 타고 달린다.  
 -활짝 웃는 은아. 랑만적인 얼굴.

**폭포터**  
 백화만발한 아름다운 경치다.  
 꽃속에서 말들에게 물을 먹이는 청년들.  
 서로 물을 뿌리며 노니는 청년들의 정열적인 모습.  
 《은아, 직장장아바이 지시인데 재주동물들에 대한 검진과 생리적감시를 한시간씩 앞당기라는거요.》  
 《웁! 호호. 훈련에만 정신을 팔지 말구 동물관리에도 관심을 돌리자요.》  
 서로 궁정하며 좋아라 환성을 지르는데 어디선가 세찬 말발굽소리.  
 가까이보면 만삼이 세차게 말을 몰고온다.  
 《은아!》  
 폭포터 산언덕을 달려올라가는 만삼.  
 의아해하는 은아와 청년들.  
 《은아! 사고- 사고가 났어.》  
 《예?》  
 《〈희망〉이... 〈희망〉이가...》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은아.  
 번개같이 말타고 달리는 은아.

**호랑이사**  
 쓰러져있는 호랑이.  
 여기로 달려들어오는 은아와 청년들.  
 《〈희망〉아...》  
 호랑이를 쫓아보며 안타까와하는 은아와 청년들.  
 《아...》

## 직장장식

책상을 내리치는 직장장. 잉크병이 울려뜬다.  
 《도대체 제정신들이냐? 관리공 3년 기능공학교 2년 그래년 한이 작나. 년한이?》  
 머리를 수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은아와 청년들.  
 《난 그래도 너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왔을 때 최우등을 했는지, 굉장한 사양기계를 연구했다 하더라니 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냐? 그런데 뭐 그게 기계가 아니라 동물재주였던말이나?》  
 《...》  
 《이녀석들아, 동물들이 재주를 못피운다구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어. 하지만 동물들이 잘못되면 면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데두 동물관리는 소홀히 하고 훈련만 해대니 호랑이를 건넸잖나?》  
 《...》  
 《오늘부터 동물재주는 일시 중단이다...》  
 《예?》  
 머리를 수그리는 청년들.  
 은아의 젖어드는 눈굽.

**호랑이사**  
 멧돼와 은아가 쓰러진 《희망》곁에서 울고있다.  
 《〈희망〉아, 너 왜 그러니. 응?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야 알지...》  
 눈물이 비오듯하는 은아의 얼굴.  
 멧돼도 얼굴을 찌푸린다.  
 동물사방에서 형언못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만삼.

**찬봉집**  
 《뭐? 쓰러졌다구? 호랑이가?》  
 《예.》  
 《허, 초음파음악 위력이 그렇게 쎄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말하는 찬봉.  
 《아니 여보, 은아가 울면서 왔드렸는데 웃음이 나오우, 웃음이...》  
 《뭐? 허허 울어?... 음... 시작은 이제부터군. 여보, 래일이 은아 생일이야. 여보, 우리 생일을 잘 차려서 위로해줍시다.》  
 《예?... 예. 정말 당신같은 아버지 드물거예요.》  
 속이 찢린지 한마디 하는 찬봉.  
 《뭐?... 허허 부모같은 자식이 있을가 원...》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 찬봉.  
 (이런 때 슬픔들을 주지 말고련속공격을 해야지.)

**다음날 판매과장방**  
 전화를 거는 찬봉.  
 《오 은아냐?... 오늘 저녁에 또 늦어지겠냐? 응? 오늘이 네 생일

인줄두 몰라? 네가 좋아하는 순대랑 과일이랑 사다놓을테니 동물들이랑 데리고오려무나... 응...

전화기를 놓으며 중얼거리는 찬봉.  
(음 이쯤하면 괜찮게 돼가는 셈인데 ...)

#### 찬봉집

앵무새가 지저귄다.  
《여보...》  
찬봉 량손에 바게뜨며 구력을 들고 영치로 출입문을 닫으며 들어선다.  
《여보...》  
《예 나가요.》  
행주치마에 손을 씻으며 나가는 순복.  
《아니 이건 뭐요?》  
《허 보면 모르겠어? 순대감이요.》  
《예? 순대감이요? 아유 정말 당신같은 아들 하나만 태웠어두...》  
《뭐요? 허... 실없는 소리말구 당장 같이 내려가 과일이랑 가져와야지.》  
《예. 알겠수다.》  
순복 너무 기뻐 설레발치며 나선다.

#### 복도

내려가는 승강기  
《여보, 걸어가지요. 장수한다는데...》  
《예. 호호...》

#### 승강기앞

승강기를 타는 은아.

#### 찬봉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아.  
《은아 안녕!》  
하는 앵무새.  
《안녕!》  
맥없이 들어서며 마지못해 답례하는 은아.  
부엌에 나와 목이 마른지 랭랑고 문을 열고 찬물을 들이키다가 바게뜨에 가득찬 피를 띄여본다.  
순간에 얼굴이 밝아지는 은아.  
《아니, 야!》

#### 길

달리는 오토바이, 그뒤를 따라가는 순복.  
숨이 차서 씩씩거리며 소리지른다.  
《여보, 그 뒤에 떨어지겠수다...》  
돌아보지도 않고 달리는 찬봉.

《아니 좀 천천히 가시우. 에이구 숨차라!》

#### 현관앞

벗어서는 오토바이.  
모자를 벗으며 빈정대는 찬봉.  
《과연 소란스럽다. 저 좀 빨리 따라오구려.》  
《어이구 전 오토바이를 타구 가면서... 여보, 이거 생일이 너무 요란하지 않소?》  
《이거 생일뿐만이 아니라는데 자꾸만 그래?》  
《아니 글썄...》  
과일이며 남새를 량손에 쉬고 계단을 오르는 찬봉.

#### 다시 찬봉의 집안

열리는 랭랑고문. 놀라는 순복.  
《영? 아니 여보, 순대감이 없어졌수다.》  
《없어지다니? ...》  
달려오는 찬봉. 랭랑고안을 들여다본다.  
《영?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여보, 난 왜 찬찬히 보우, 당신하구 같이 나가지 않았됐소...》  
《오 같이 갔됐지. 아니 그럼 이게 하들로 날아갔다는게야?》  
바로 이때 《은아 안녕》하고 앵무새가 중얼거린다.  
《응?》  
마주보는 두사람.  
《아니 은아가 왔다갔나?》  
《예?》  
《방금 앵무새가 <은아 안녕> 하질 않소?》  
《호호호 아니 여보, 당신 이젠 앵무새 소리까지 다 가려듣는구려. 히히히...》  
눈을 치르는 찬봉 엄하게 말한다.  
《여보, 히들히들하면서... 이거 정말 야단났군그래...》  
옷방에 갔다오던 순복 편지를 가지고 내려온다.  
《여보, 은아가 동물원에 가져갔다우다...》  
《뭐? 동물원에? ...》  
《아이구. 짐승들이 앓는다질 않소!》  
《아이구 이거 내 작전이 또 파탄됐구나.》  
《예? 작전이라니요?》  
《당신은 몰라두 돼...》  
방바닥에 펄쩍 주저앉은 찬봉.

#### 범사관리원실

은아가 땀을 철철 흘리면서 바게뜨를 가지고 들어선다.

#### 《명애.》

마주 달려나오는 명애.  
《아니 네가 어떻게 왔니?》  
바게뜨를 받아들며 의혹에 차서 물어본다.  
《그런데 이건 뭐야?》  
《피야!》  
《피? 그런데 이건 뭘하려고.》  
《명애, 앓는 짐승들한테 피가 좋대. 더구나 맹수들한테 보약과 같다는거야.》  
《야 그래! 어서 <희망> 한테 가자...》

#### 범사

밤, 밤이다.  
쓰러진 호랑이의 모습.  
여기로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두 처녀.  
호랑이에게 피를 먹인다.  
《<희망> 아, 어서 먹어. 많이 먹고 어서 나아가 또 재주를 하지!》  
만삼이가 나무뒤에서 처녀들의 모습을 감동어린 모습으로 바라본다.  
고민에 싸인 직장장이 반대편에서 만삼이에게로 말없이 다가온다.  
음악이 흐른다.  
《아버지, 보세요.》 눈굽을 찍으며 빠지는 만삼.  
《...》  
말없이 은아를 바라보는 직장장.  
생각에 잠긴다.  
(...나살이나 전사했다는게...) 처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에 잠기는 직장장.

#### 한편 관리원실

처녀들이 몸을 웅숭이고 잠을 자고있다.  
은아의 얼굴을 가까이보면 꿈세계가 펼쳐진다.  
《따웅!》  
천지를 흔드는 호랑이 울음소리.  
은아가 호랑이의 꼬리밑에서 전자체온계를 뽐아들며 놀란다.  
《아니?... 50도?》  
안절부절 못하는 은아.  
여디론가 달려간다.  
《수의실》 문扉가 달린 문앞에 가서 야속하게 돌아서는 은아.  
동물원 접수에 가서 전화를 거는 은아.  
《구급병원! 구급병원!》  
삐삐거리는 통화신포.  
이때 옆으로 다가온 성성이가 은아의 팔을 잡아당긴다. 《응? 아니 네가 어떻게?》  
《...》

계속 은아의 팔을 잡아당기는  
성성이.  
《왜 그래 ? 어찌 자는거야 !》

**길**  
세워놓은 승용차에 오르는 성  
성과 은아.  
성성이가 문을 열고 안내한다.  
《영 ?》  
놀라는 은아.  
안심하라는듯이 머리를 끄덕  
이는 성성이.  
드디어 발동을 걸고 조향륜을  
잡는 성성이.  
《자 빨리 구급병원으랏 !》  
은아의 구령에 따라 달리는 승  
용차.  
그제야 어떤 너인과 이야기하  
며 사이다를 마시던 운전수 기겁  
한다.

《앗 내 차가? 서랏 !》  
달려가는 운전수.  
그의 얼굴에 씩씩지는 배기가  
스.  
《푸! 푸! 승용차도적이다 !》  
때마침 교통단속차가 마주 다  
가온다.

《영 ? !》  
그앞에 두손을 들고 뻗치고 선  
운전수.  
《여보시오 !》  
급정거하는 승용차.  
《안전원동무, 승용차도적이요.  
어떤 흑인, 아니 처녀요...》  
옆의 여인이 수정한다.  
《아니예요. 피물이에요.》  
《옳소. 피물이요. 검은 피물이  
처녀를 랍치해 신고갔소 !》

**도로**  
기세좋게 달리는 승용차.  
성성이가 운전을 자유롭게 하  
고있다.  
뒤를 따라 달리는 교통단속승  
용차.

**차안**  
대공전화안테나를 뽑는 처녀  
안전원.  
《4 번, 4 번, 차번호 56-838.  
피물과 처녀가 났다. 즉시 단속  
하라.》  
《알았다. 알았다.》  
성성이가 탄 승용차안  
추격신호에 후사경을 보는 은  
아.  
《아니 ? 이거 꼬리가 달렸다.  
안전원차다. 전속으랏 !》  
속도를 높이는 승용차.  
뒤따르는 교통단속차.  
《푸른등!》 네거리를 통과하는  
승용차.  
《빨간등》 신호밀에 정차되는  
교통단속차.  
《차 이런, 젠장 !》  
안절부절 못하는 운전수.

《뽕 !》  
은아의 승용차바퀴가 터진다.  
도로결에서 바람을 넣는 성성  
이.  
《자 빨리 ! 빨리 ! 대성아 !》  
은아 멀리서 다가오는 교통단  
속차를 바라보며 소리친다.

**다시 안전원차안**  
멀리 승용차가 바라보인다.  
뽕프질을 하는 성성을 바라  
보는 운전수.  
《영? 아이쿠. 저게 내 차요. 아  
이쿠. 뽕꾸가 났구나...》  
울상을 하는 운전수.  
드디어 그결에 급정거하는 교  
통단속차.  
처녀교통안전원이 바람같이  
내리며 소리친다.  
《무슨 일이에요?》  
차주인이 전조등이며 바퀴를  
만져보고야 안심한다.  
《저 재주동물들이 급병에 걸  
려서...》  
그제야 운전칸에 앉아 해죽 웃  
으며 손을 드는 성성을 바라보  
고 거수경례를 하는 교통안전원  
처녀.

《오 재주동물 ? ...  
자 뭘해요. 어서 구급병원으  
로 !》  
하고 길을 내주자 운전수가 막  
아선다.  
《아, 여보시오. 이건 내 차요.  
우리 국장동지 차란말이  
요 !》  
하며 운전칸으로 들어가려다  
성성을 보고 으악 ! 하고 소리  
를 지르며 안전원뒤에 가 숨는다.  
《아이구... 헤헤. 어서 가십시  
오. 제발 교장만 내지 마시고  
...》  
울상이 되어 말하는 운전수의  
얼굴.  
경쾌한 은아의 웃음소리.

**구급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안에서는 늙은 의사가 졸고있  
다.  
문두드리는 소리에 놀라는 의  
사.  
《영 ? 누구야 !》  
문앞에 처녀의 모습이 뿌연게  
보인다.  
《헤헤. 누구니까?》  
《저 선생님, 구급환자입니다.  
왕진을 !》  
《왕진 ?》  
《선생님, 뭘먹구 체한것 같기  
두 하고 열이 나구.》  
《음. 소화제, 해열제...》  
약을 가방에 넣으며  
《어디요?》  
《저, 동물원입니다.》

《뭐 ? 동물원 ? ! 허허. 유감이  
요. 거긴 우리 담당이 아닌데  
...》

《야 선생님, 부탁입니다.》  
하는데 문두드리는 소리.  
《동문 누구요?》 하며 돌아보  
는데 성성이가 그의 어깨를 잡는  
다.

《영 ?》  
무심히 돌아보다가 깜짝 놀라  
는 의사.  
《선생님, 저의 운전수입니  
다.》  
은아가 안심시키려고 말했으  
나 의사는 당황하고 놀라와서 어  
쩔줄을 모른다.  
성성이가 왕진가방을 들고 나  
서며 의사의 팔을 잡아당긴다.  
《예. 헤헤. 어서 나가십시오.  
가겠습니다.》

**밖**  
승용차 두대가 서있다.  
문을 열어주는 성성이.  
의사가 기겁하며 올라타자 차  
가 떠난다.  
앞서는 교통단속차.  
따라가는 성성이가.

**차안**  
성성의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머리를 기웃거리는 의사.  
(이게 꿈인가 아니면 생인가?  
제발 꿈이었으면...)  
무릎을 꼬집어본다.  
(아이구, 진짜로구나... 여보시  
오, 안전원체네, 사람 살려주지  
오 ! )  
의사의 모습을 후사경으로 보  
는 성성이.

**도로**  
달리는 승용차.  
범사안  
쓰러져있는 조선범.  
기겁을 하는 의사 달아나려 한  
다.

《여보시오... 난 수의사가 아  
니요. 치과의사란 말이요, 치과  
의사.》

《선생님, 야...》  
의사가 나가려는데 성성이가  
막아서었다.  
머리를 갑작거리며 《헤헤  
...》 하고는 목에 걸린 청진기를  
내리는 의사.  
《하겠습니다... 진찰합지요  
...》

뒤걸음치다가 호랑이우에 벌  
렁 넘어지는 의사.

《으악 !》  
혼빠진 사람인양 은아를 붙잡  
는다.  
안심시키는 은아.

《선생님, 이 조선범은 처녀들이 인공포유한 아주 순종이랍니다.》

《여보시오, 제발 저 사람만은 아니 저 괴물만은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게 해주시오! 이거야 온통 소름이 끼쳐서...》

웃기만하는 은아.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얻어 떨리는 손으로 진찰을 하는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긴숨을 내쉬며 일어서는 의사.

《...공연한 소동이요. 이 호랑이는 약물에 취했을뿐이요. 한잠 폭 자고나면 깨어날거요.》

《예? 야!》

의사의 손을 잡고 반가와하는 은아.

### 관리원실안

드디어 꿈에서 깨어나는 은아. 천지를 뒤흔드는 호랑이 울음소리.

아직 잠자는 명애를 흔들어 깨운다.

《아니 <희망> 이가.》

달려나가는 두 처녀.

살창안에서 설레치는 호랑이. 처녀들을 보고 다가와 얼굴을 비빈다.

《야! <희망> 아!》

눈시울이 젖어드는 처녀들.

...네가 살아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두 처녀가 사방에 대고 입나팔을 분다.

《동무들- <희망> 이 살았어요!》

앵무새사에서도 곰사에서도

놀라며 달려오는 청년들.

직장장과 만삼이도 달려온다.

철창속을 오르내리는 <희망>.

직장장이 은아의 잔등을 두드려준다.

좋아하는 청년들.

눈곱을 찍어내는 직장장.

《은아야... 장하다. 직장장이라는게 너희들의 진속을 모르면서...》

여전히 생글거리는 은아와 명애.

《직장장아바이...》

《자 이제 거 <불동사양기>

라는걸 더 세차게 돌려라...》

《야!》

감동되는 은아와 청년들.

드디어 직장장을 올려준다.

허공에서 오르내리는 직장장.

창공에 터져오르는 비둘기떼들.

경음악이 터진다.

### 공지, 선물관왕

말, 코끼리, 게사니, 오리 등. 재주동물들이 질서있게 정렬하여섰다.

장단에 맞추어 <열병식> 지휘관마냥 사열을 하는 직장장의 우스운 모습.

그뒤를 따라 걷는 은아의 밝은 얼굴.

웃음어린 얼굴로 직장장앞에 서있는 청년들.

《재주동물들 차렷! 좌로 봤!》

직장장이 답례하며 지나간다. 이죽거리며 직장장을 바라보는 청년들

이윽고 직장장이 흐뭇하여 머리를 끄덕이며 엄숙하게 <명령> 한다.

《오늘부터 동물재주조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기뻐하는 청년들의 얼굴.

동물들도 즐거워한다. 마냥 그 모양을 바라보며 웃음짓는 직장장.

《하하... 괜찮아.》

드디어 동물들의 특기 재주들이 시작된다.

### 코끼리사

동팔이가 직장장의 초상을 그려놓고 코끼리더러 수염을 붙이라고 시키며 기타를 친다.

이를테면 코끼리 수염붙이기 재주.

재치있게 수염을 코로 물어다 직장장의 코잔등에 붙인다.

다시 수정시키는 동팔.

멀리서 그 모양을 바라보며 재코밀을 문대보는 직장장.

《영 처녀석이? 야 이너석아!》

동팔 직장장을 바라보며 멋적어한다.

《미안합니다!》

머리를 꾸벅 숙여보이는 동팔.

《일없다. 어서 해라, 해... 허허...》

그래도 웃기만 하는 직장장.

### 맥주공장판매과

첫째가 <세계동물편람> 을 들고 서있다.

문이 열리더니 찬봉을 둘러싸고 한무리의 인수원들이 따라들어온다.

파장의 주머니에 담배까지 찢러주는 녀인수원. 아랑곳없이 들어오던 찬봉.

첫째를 알아보고 반가와한다. <...잠깐 기다리게...>

판매지도원에게 지시를 준다.

《강철공장과 통일거리 건설장엔 계획대로 열석톤삼백오십을 우선적으로 주시오.》

전표를 떼는 판매지도원.

《파장동무,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는 인수원들. 여기에 다가서는 만사위. 의자를 권하는 찬봉.

《이건 무슨 책인가?》

《세계맹수편람입니다.》

《영? 작곡가도 이런 책을 보나?》

《저 은아가 좀...》

《허허. 자네도 물닭같은 민패처럼 끌려가는게 아니야?》

《허허 아버지두. 저 우리도 남들처럼 가족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은아가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다는데...》

《영? 은아가? 에이 배치된지 한해도 못되는 아이가 뭘...》

《그래도 직장장아바이랑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뭘? 관상용이? 허. 그 고집불통이 보기 싫어 더 안가겠네...》

《아버님두. 직장장이 보기 싫으면 춤추는 동물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하.》

그래도 직장장아바이 사돈이다 된것처럼 말하던데요...》

《뭘?... 사돈?》

### 한편 곰훈련실

권투장갑을 끼고 제일 사나운 곰과 맹훈련을 하는 만삼.

그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 발악적으로 달려드는 곰.

《좋아! 그렇지. 한번 더...》

드디어 리성을 잃고 달려드는 곰.

연방 얻어맞는 만삼.

바닥에 넘어지는 만삼.

승리자의 채갑인양 한손을 드는 곰.

이때 은아 달려들어오며 소리친다.

《아니, 스톱! 저리가 앉아...》

제자리에 앉는 곰.

넘어진 만삼을 안아일으키는 은아.

모자도 크롭도 대견스레 벗겨주는 은아.

《만삼동무,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

은아를 바라보는 만삼의 땀에 젖은 얼굴.

《은아...난 아직 더 맞아야 해...》

《...!!》

《은아. 난말이야. 은아처럼 동물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열정도 쏟아붓지 않고 체육실만 채우려 했어. 한마디로 그 욕망을 어리석게도 창조라고 생각했으니까...》

《응. 응!》

권투장갑으로 자기 머리를 툭치는 만삼.

《그렇지... 은...》

다른 말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만삼의 입을 정답게 막는 은아.

행복이 넘친 노래가 흐른다.

### 공지

아름다운 꽃송이에 구슬같은 비가 내린다.  
우아한 옷차림을 한 은아가 성  
성과 노래하고 춤을 추며 꽃밭  
에 물을 주고있다.

남모르게 피워온 꿈  
여기에서 싹이 트고  
무르른 아지를 펼치여가네  
어서 오세요  
즐겁고 유쾌한 동물원으로  
그러면 웃음이 넘쳐요  
그러면 즐거워져요

서로서로 손잡고 재미나게 돌  
아가는 은아와 성성이.

### 크림매점

장단에 맞추어 꿈이 크림바게  
츠를 들고 여기로 간다.  
봄비는 사람들 뒤에 가서 줄을  
서는 꿈.  
《오악!》  
돌아서 달아나는 사람들.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는  
크림판매원은 남.  
그러나 꿈은 돈과 바게츠를  
《점장게》 준다.  
떨리는 손으로 크림을 담아주  
며 감탄하는 은남과 사람들.  
판매원에게 거듭 인사하고 멀  
어지는 꿈.  
계속되는 노래.

내 가슴에 피워온 꿈  
여기에서 꽃이 피고  
탐스런 열매도 주렁지리라  
어서 오세요  
즐겁고 유쾌한 동물원으로  
그러면 웃음이 넘쳐요  
그러면 즐거워져요

### 공지

동물들의 식탁을 꾸밈히 차리  
는 성성이.  
손을 들어 동물들을 부르는 성  
성이.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붉은머  
리 앵무가 《식사 모였!》 하고  
소리친다.  
줄을 지어 여기로 오는 성성이  
들, 원숭이들, 곰들, 오리, 게사  
니들.  
자기자리에 오손도손 앉아 먹  
는다.  
그결에서 자기 동물들을 부추  
기며 기뻐하는 청년들.  
직장장의 흐트해하는 얼굴도  
보인다.  
《...어, 어서 많이들 먹어  
라!》

### 성성이사 앞

한대의 소형버스안에서 사이  
다며 식료품들을 들고 내리는 셋  
째와 첫째.  
은아와 청년들이 달려가 맞이  
하며 기뻐한다.  
《아저씨, 정말 고마와요.》

《오, 은아야 어서. 그동안 동  
물재주를 하느라 수고가 많았  
다.》

은아의 등을 두드리주는 셋째.

### 판매과장방

문을 빠르게 열고 들어서는 직  
장장.  
웅크리고 문서를 정리하는 찬  
봉.  
안경을 두개씩이나 끼고있다.  
《아니 여보게 찬봉이, 지금 은  
아네 재주를 보겠다구 온 동물원  
이 법석 끓고있는데 여기 앉아  
뭘하나? 겨울나는 꿈처럼...》  
《응? 허허, 보면 몰라?...》  
《허허, 자네 너무 멀리 보지  
말구 코앞에것을 보라는거야.》  
《뭐? 허허. 이젠 늙어서 그런  
지 눈을 크게 떠두 잘 안봐네. 그  
래서 돋보기를 두개씩이나 쓰고  
보탔을 반네...》  
《하하... 사람두... 나두 그동  
안 눈이 멀어서 은아의 기특한  
마음을 몰라봤네.  
기껏해서 생각했다는게 관상  
용동물보존하는데 만족했었  
지... 헌데...자네 가정은 어찌면  
그리도 하나같은가.》  
《응? 하나같다는건 뭐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직장장.  
《동물들이 아플세라 피를 보  
내줘, 작곡을 해줘, 제주도안을  
그려줘...하하. 정말 자넨 얌아  
쉽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만 아연해지고마는 찬봉.  
《자네 첫째사위가 만든 음악  
을 틀어만놓으면 동물들이 너무  
기뻐 춤을 추네.》  
《뭐? 초음파음악이 춤을  
춰?...》  
이마를 찌프리는 찬봉.  
(아이쿠. 이게 어떻게 된 감투  
끈이야.)

### 극장앞

첫째가 아버지한테 술직히 고  
백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게 사실이었던말이  
지...》  
《아버님, 사실 은아를 연구소  
에 가게 한것보다 동물원에서 일  
하게 한것이 정말 잘된것 같습니  
다...》  
《응? ...》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걷는 찬  
봉.  
여기에 펼쳐지는 화면.

-민패에게 정찰임무를 주는  
찬봉.  
-첫째에게 광상곡을 부탁하는  
찬봉.

### 찬봉의 집

재털이에 무뚝한 담배꽂초.  
그우에서 타고있는 한대의 담  
배.

찬봉이가 잠옷바람에 누워있  
다.  
여기에 들려오는 직장장의 목  
소리.

《정말 자네 가정엔 가풍이 섰  
거든...동물들이 아플세라 피를  
보내줘, 그림을 그려주고 음악을  
만들어줘. 정말 자넨 얌아 쉽지  
않은 사람들일세...》  
입이 쓰거운지 입맛을 다시는  
찬봉.

문득 일어나 중얼거린다.  
《가만, 텔레비로 무슨 동물원  
소개를 한다고 했지.》  
텔레비존을 켜는 찬봉.  
텔레비존화면에 재주동물들의  
사열이 진행된다.  
맨앞장에서 직장장이 작은 말  
을 타고 지나가며 찬봉을 향해  
손을 흔들고 은아가 조롱하듯 해  
죽거리며 지나간다.

《응? 허허...》  
런이어 개마차, 곰권투, 코끼  
리, 게사니 행렬이 우습강스럽게  
지나간다.  
장단에 흥에 나서 어깨춤이 저  
절로 나는 찬봉.  
그러는 자기를 발견하고 놀라  
는데 순복이 들어서는 기척이 들  
린다.

날래게 스위치를 끈 찬봉 아닌  
보살하며 다시 방바닥에 눕는다.  
《아니 여보, 어디 아파요. 어  
두운데 불도 켜지 않구...》

《...》  
《여보, 다섯째사위가 전국 를  
동완구창작경기에서 일등을 했  
대요... 아니 들어요.》

《뭐? 우리 민패가?》  
그제야 놀란듯 자리를 차고 일  
어서는 찬봉.  
《아마 은아네 동물재주를 돕  
다가 그 무슨 창작적환상이 내려  
쳤나봐요.》

《? ?》  
그제서야 자기의 머리를 치는  
찬봉.

《여보, 〈폭풍〉 이요, 〈 폭  
풍〉!》  
《예? 아니 기쁜 날에두 또  
〈폭풍〉 이요?》

《여보, 오늘은 어느 사위가 우  
리 은아를 진심으로 도왔나 직접  
회계를 하겠단말이야.》  
《예? 아니 그럼...》

눈시울이 젖어드는 은아의 어  
머니.  
《아 왜 또 말뚝처럼 서있어?  
〈폭풍〉 이라는데...》  
눈곱을 찍으며 달려나간다.  
《예... 예...》

### 버스안

법석 고아대며 버스에 오르는  
손주, 손녀, 딸들, 사위들.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찬봉.

(끝내 나도 끌려가는구나. 내가 가시애비가 아니라 허수애비였지. 헛참...)  
드디어 떠나는 빠스.

### 한편 동물원의무대

온갖 동물들의 재주가 시작된다.  
개산수, 원숭이재주.  
코끼리교예. 곰권투.  
곰자전거 타기.  
성성이 원통굴리기.  
개축구 등등.  
그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는 관람객들,  
그속에는 찬봉도 사위들도 딸들도 보인다,  
은아의 손과 목에 련이어 꽃다발과 꽃목걸이가 안겨진다.  
감동의 빛이 어리는 찬봉의 얼굴.  
그것을 바라보는 직장장과 청년들.

### 선물관

열려진 문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대하인양 흐른다.  
친귀한 물고기들과 파충류들이 노니는데 사람들은 끝없이 설레며 떠날줄 모른다.  
여기에 노래소리 울린다.

향기론 꽃송이에도 그 사랑 깃들고  
새들도 정다웁게 그 사랑 전하네  
이 세상 귀한것 모두 안겨주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  
다는 알지 못하리  
아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  
다는 알지 못하리

밤동물의 세계가 펼쳐지고 노란원숭이, 흰귀비단털원숭이들이 재롱을 부리며 사람들을 반긴다.  
은아가 무엇인가 부지런히 설명한다.  
머리를 끄떡이는 사람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백말에 올라앉아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있는 백발로인.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찬봉.

### 선물관공지

눈곱이 젖은 찬봉의 품에 안기는 은아.  
《은아야!》  
《아버지!》  
《장하다 -》  
《아버지, 정녕 그래서였어요. 인민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두고두고 전하고싶어서였어요...》

은아의 잔등을 끌어주는 찬봉.  
《장하다. 장해...》  
이때 직장장 뛰여든다.

《이사람 맥주과장, 이제 우리 머느리감을 놓고 또 소동을 피우진 않을테지.》

《영? 아니 이렇게 보람있는 일이라면 온 나라가 들썩하게 더 큰 소동을 피우겠네. 하하...》

잔등을 두드리며 웃어대는 직장장과 식구들, 직장장이 웃으며 말한다.

《이사람, 나누 이번엔 진정한 생의 보람은 적당히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의 기쁨을 창조하는데 있다는걸 똑똑히 알았네. 사둔!》

《하하 -》

머리를 끄떡이는 찬봉.  
만삼이가 다가가 인사를 한다.  
《아버님!》

직장장앞에 가서 웃음짓는 은아.

의미있게 머리를 끄떡이는 직장장.

여기에 동물유회가 펼쳐지면서

-끝-

## 그 마음 안고가리

### 신형길

아직은 창가에 성애가 불리는데  
봄정기 안고 된 싱싱한 꽃송이  
어제와 다름없이 입원실 창가엔  
빨간 꽃송이 연분홍 꽃송이

퇴원하는 이 아침  
기쁨을 더해주는 꽃송이건만  
이 가슴 몽쿨 젖게 하는  
정성의 진정속에 망울터친 꽃송이

창가에 눈송이 시샘을 해도  
언제나 피여웃던  
그 꽃 그 향기 가슴에 안아  
곰속에도 피여나던 환자들의 웃음

계절이 피워준 꽃이라면야  
이다지도 가슴에 정깊으랴  
인간애의 정성이 피운 꽃  
언제나 지지 않던 사랑의 꽃

어이 잊을수 있으랴  
긴긴밤 달아오른 이 몸을 지켜  
침대가에 뜬눈으로 지새우던 마음들  
한겨울에 사랑다해 꽃송이 피우듯  
나를 위해 기울이던 정성의 나날이여

내 입맛을 돋구느라  
싱싱한 과일이며 온실의 남재  
먼길에 산천어도 구해온 그 수고로움  
다는 헤아릴길 없어도  
꽃들은 언제나 나에게 말해줬네  
나도 한송이  
사랑속에 피는 꽃송이라고

그래서였구나  
환자들모두가 한식술들처럼  
그 이름 정다웁게 부르는것은  
《우리 누나》, 《우리 간호원》이라고

뜨거운 그 정성 꽃잎에 안고  
뜨거운 그 사랑 향기에 싣고  
조국의 고마움에 목메게 하는  
정성의 꽃송이  
사랑의 꽃송이

안고가리라 이 꽃을  
안고가리라 이 향기를  
그러면 이 마음도  
나라 위해 기울인 조국의 사랑  
언제나 잊지 않고 살수 있으리  
계절없이 위훈의 꽃을 피우며  
참된 삶의 향기 뿌릴수 있으리

## 동방조선의 금강산

아득한 옛날 망망한 바다와 넓은 땅만이 있던 이 세상에 나라들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 있던 일이다.

먼 남방의 어느 한 바다가나라에 타무라고 하는 공명정대하고 정의감이 있는 왕이 있었다. 어느날 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한 신하가 멀고먼 나라 해동 조선에 가면 금강산이라고 하는 천하제일 명승이 있다고 하자 타무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제일강산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한끝에 있다 하더라도 기어이 찾아가 구경하는것으로 내 평생소원을 이룰가 하노라.》

이리하여 타무왕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려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실로 해동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이 세상에는 나라들도 많았다. 기암들이 총총 물속에 서있는 바다경치를 가진 나라도 있었고 웅장한 메부리와 절묘한 동산을 자랑하는 땅도 있었다. 그리고 수려한 강과 호수가 없는 땅에는 그대신 신비한 오아시스들이 있었다. 그는 산천경계를 두고 조물주의 공정한 덕망을 칭송하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가고가고 또 갔다.

이렇게 새라새로운 땅들을 지나며 긴긴 나날을 오다나니 춘삼월 이른봄에 떠난 타무왕은 단풍이 한창 질어가는 가을에야 조선 땅에 도착할수 있었다. 조선왕의 안내를 받으며 금강산어구에 이르니 연보라빛 안개가 채하봉에 내리고 령롱한 빛발들이 수시로 변하는 한낮이 되었다.

단풍든 봉이들은 거대한 불덩이들마냥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이글거리고 숲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신묘한 향기를 취하도록 실어왔다. 과시 명산은 명산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구룡동어구에 이른 타무왕은 굉장히 큰 봉황새가 우아한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는것을 보고 그만 걸음을 멈추고말았다. 흰 꼬리의 한 끝은 개울가에 드리우고 몸은 하늘중천에 솟구쳤는데 이제라도 당장 뛰어가면 붙잡을듯싶었다. 그는 자기 신하에게 그놈을 붙잡으라고 했다.

분부를 받은 신하가 달려가서 그 꼬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였다. 일만개의 물구슬이 무너져내리며 얼굴이며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치는바람에 그 신하는 벌렁 자빠지고말았다.

그제서야 타무왕은 몇백자가 넘는 폭포에 와있음을 알았다. 신기한 비폭포를 넘없이 바라보고있노라니 어느새 폭포는 눈이 부시게 하얀 구름을 말아올리는데 삽시간에 산도 폭포도 없어지고 산정에서 약초캐는 로인들이 신선나라에서 온 손님마냥 구름우에 둥둥 떠다니고있었다.

조선왕은 금강산에서는 한번 보고난 경치를 두번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타무왕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았다. 과연 방금 지나온 그곳에는 조금전과 전혀 다른 경치가 펼쳐져 현란한 진주보석으로 촘촘히 단장한 기암런봉들이 아직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단에 맞추어 움쭉움쭉 춤을 추고 그우에 청학, 백학이 실안개를 감고 노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구룡연과 상팔담으로 해서 금강산의 여러곳을 다 돌고 마감으로 비로봉에 오른 그는 동서천리가 한눈에 안겨오는 이 주위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풍치가 다 펼쳐진것을 볼수 있었다. 눈뿌리 아득한 발밑으로 구름이 오락가락하는것을 보는 순간 타무왕은 자기가 이때까지 구경한것은 금강산의 한구석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았다.

보는것마다 별천지의 절경이라 눈에 이끌려 발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서 여기까지 온 타무왕은 제일가는 명승이 이렇게 한데 집중된것을 눈앞에 보니 이 세상의 자연경치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되었다는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어떻게 되어 비길데 없이 아름다운 금강산이 넓으나 넓은 이 세상의 한 동쪽나라에 있게 되었는지 영문을 알수 없어 그 이유를 조선왕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조선왕은 너그럽게 웃으며 산과 강을 나라마다 나누어주는 바다룡왕이 준것이라고 대답했다.

산천을 나누어줄 때 바다룡왕의 불찰로 신선나라의것과 헛갈

린것이 아닐가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타무왕은 여기도 다 같은 인간세상이라는것을 알면서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게 했다면 참을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리하여 정의감에 사로잡힌 타무왕은 바다룡왕의 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레와 배를 번갈아타고 태평양의 깊은 바다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렸다. 룡궁앞에 도착한 그는 산호진주를 다듬어 우람하게 세운 열두대문을 지나 룡왕앞에 이르렀다.

그가 찾아온 연고를 다 듣고난 룡왕은 흰수염을 무릎까지 드리우고 천천히 룡상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고로 사람은 산천의 정기를 타고난다고 하지만 산천 또한 사람의 마음이 비껴 자기의 모양을 갖추느니라. 그래서 사람과 산천은 떼려야 뗄수 없는것인데 해동국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티끌하나 없기에 열길 깊은곳의 모래알 하나까지 헤일수 있는 맑은 물을 준것이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천태만상의 메부리들은 그 땅 사람들의 무궁무진한 슬기가 서려 그런것이니라. 뜨는 해의 빛이 있어 노을이 곱듯이 깎듯한 레의범절만이 맑은 아침과 일백상통함을 마땅히 알아야 하리라.

그러나 상심할건 없다. 룡궁의 창고에는 본래 여덟개의 금강이 있었는데 제일금강은 해동국에 주었거니와 나머지 일곱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 어느나라 사람이던간에 마음이 보석처럼 다듬어진 다음에 찾아오면 기꺼이 내주겠노라.》

룡왕의 이같은 말을 듣고 제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타무왕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슬그머니 물러나왔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뜨는 해와 지는 달이 수억만번 거듭했고 땅우의 꽃과 일도 수천번 피고졌지만 금강산은 아직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허선재

# 기 다 림

한원희

우리 나라 어느 한 바다기슭엔 있다  
고기잡이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선채로 돌이 된 안해의 모습  
오늘도 절부암이라 부르는

하지만 그 전설에도 비기지 못할  
그런 안해 그런 기다림이 있다  
전선으로 떠나간 남편을 기다려  
검은 머리 백발이 된 김순임녀성 !

선채로 돌이 되고싶었지만은  
사랑이 너무 커서  
믿음이 너무 커서  
기어이 살아남아 기다렸다

남편이 싸움터에 영웅히 쓰러져  
원쑤의 손에 붙잡힌 소식도  
무참히 학살되었으리라는  
절통하고 절통한 그 말도 들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린 안해  
승리하고 돌아오리라던 남편의 약속  
가슴속엔 그 한마디뿐  
자다가도 문득 남편만나 우는 꿈

금시 들어설것만 같은 남편을 생각해  
밥 한그릇 더 떠놓고 기다린 안해  
철따라 좋은 천 상점에 나와도

옷감 한벌 더 꿰어놓고 기다린 사랑

그 기다림우엔 없혀있었다  
나라를 갈라놓은 원쑤에 대한 증오  
통일을 마중가며 앞당겨가며  
한생 출근길을 서두르던 그 새벽들이

아, 기다림 기다림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10 년이 네번을 흘러갔어도  
변치 않은 안해의 기다림 !

무슨 힘으로 기다려냈던가  
마침내 살아있는  
원쑤앞에 굴함없이 기적처럼 살아있는  
남편의 소식을 받을수 있었던가 !

우리 수령님 계시여 통일이 온다는  
그 믿음 그 신념이었다  
먼 옛날 불쌍한 우리 나라 녀인들이  
안고 기다린 믿음이 있었던가  
기다리다가 선채로 돌이 되었을뿐

아, 기다림 기다림  
그 기다림이 상봉의 환희되어 굽이칠  
그날이 그날이 다가오고있다 !  
우리 시대 우리 나라 평범한 녀인을  
온 세상이 축복해줄 그날이 보여온다!